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인 쇄 2005년 12월

발 행 2005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동북아연구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7 (팩시밀리)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8,500원

© 통일연구원, 2005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무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 박영호  
연구책임. — 서울 : 통일연구원, 2005  
p. ; cm. — (연구총서 ; 05-21)

권말부록으로 “미국 Think Tanks 연구원 설문조사”, “주요 Think Tanks 현황”,  
“한반도문제 관련 전문가” 수록  
ISBN 89-8479-345-0 93340 : ₩8,500

349.42011-KDC4  
327.730519-DDC21

CIP2005002805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문제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I. 서론 .....	1
II. 미국 외교정책과 Think Tanks .....	9
III. Think Tanks의 발전 역사 .....	23
1. 형성기: 1900년~1945년 .....	25
2. 발전기: 1945년~1970년 .....	29
3. 번성기: 1970년 이후 .....	32
IV. Think Tanks의 역할 .....	39
1. 의제설정과 정책대안 제시 .....	43
2. 정책 인재 공급 .....	49
3. 정책공동체 형성 .....	54
4. 교육·홍보활동 .....	57
5. 갈등 완화를 위한 매개 .....	59
V. 워싱턴 Think Tanks와 한반도문제 .....	63
1. Think Tanks의 영향력 순위 .....	65
2. 주요 Think Tanks의 한반도문제 관련 활동 .....	74
3. 한반도문제에 대한 관심도 평가: 전문가 조사 분석 .....	105
VI. 결론 .....	113

참고문헌 .....	118
〈부록 1〉 미국 Think Tanks 연구원 설문조사 .....	129
〈부록 2〉 주요 Think Tanks 현황 .....	139
〈부록 3〉 한반도 문제 관련 전문가 .....	153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93



## 표 목 차

<표 III-1> 주요 Think Tanks의 설립 년도 .....	38
<표 V-1> 주요 Think Tanks의 이데올로기 성향, 영향력 및 신뢰도 평가, 1997 .....	69
<표 V-2> Think Tanks의 미디어 인용 순위, 2003~2004 ...	72
<표 V-3> 이데올로기별 Think Tanks의 미디어 인용 빈도 2003~2004 .....	73

## 그림 목 차

<그림 III-1> Think Tanks의 증가 추세 .....	36
-------------------------------------	----



I

서론



냉전시대에서와 같이 탈냉전시대에도 세계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하여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주목하고 있다.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들에 대하여 미국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 자국에게 유리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방식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다.

그런데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다양해지고, 외교정책결정과정도 그만큼 복잡해진다. 분석적 차원에서 외교정책의 영향 요소들을 개인, 사회, 정부, 체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1</sup> 모든 국가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유사한 비중으로 투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적 정책결정구조, 특히 현대국가의 거버넌스(governance)체제에서는 정부 이외의 행위자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은 풀뿌리(grass-root)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 중의 하나이다. 정치적 참여자로서의 시민들은 자신의 개별적 수준의 문제는 물론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반영시키려는 노력을 한다. 시민의 힘은 쓰레기처리와 같은 일상적 삶의 문제에서부터 외교·안보정책에 이르기까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 이와 같은 시민의 힘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권력 3부와 더불어 제4부 언론에 이어 제5부 ‘시민권력’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전형적인 다원주의 정책결정구조체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외교안보정책결정과정에서 그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는 행위자가

---

<sup>1</sup> James N. Rosenau, "Pre-theories and Theories of Foreign Policy," in *The Scientific Study of Foreign Policy* (New York: Nichols Publishing Company, 1980).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이다. 특히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상호 침투, 정부 영역에의 경영마인드 도입, 정부 권위와 기능의 분산, 시민사회의 영향력 증대, 풀뿌리민주주의의 확산 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 민주주의체제에서 think tank의 역할은 ‘시민권력’ 중에서도 매우 두드러지며, 의제의 선정, 정책 대안의 제시, 여론 조성 및 결집 활동 등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think tank 연구진들이 고위급 외교안보정책 결정 직위의 충원 공급처가 되고 있으며,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국(Policy Planning Staff)<sup>2</sup>의 핵심 기능 중의 하나는 think tank를 비롯하여 학계, 비정부기구(NGO) 등과 외교정책 전문가 견해를 교환하고 정책형성과정에 광범위한 여론이 반영되도록 연락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국무부 내부의 think tank로서 정책기획국은 워싱턴지역에 포진해 있는 think tank들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의 연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외교안보정책 관련 think tank들은 각종 이슈들에 대한 정책리포트 작성과 배포, 행정부 및 의회에 대한 정책건의와

---

<sup>2</sup> 정책기획국은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of state)급이 책임을 맡고 있으며, 국무장관에게 직접 보고한다. 냉전시대 미국의 봉쇄정책의 창안자인 케난(George F. Kennan)이 초대 정책기획국 국장이었으며, 카터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된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 박사는 1969까지 정책기획국 멤버였다. 또한 클린턴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 레이크(W. Anthony Lake), 부시 대통령 1기 정부의 국방부차관 울포위츠(Paul D. Wolfowitz), 현 미국평화연구소 소장 솔로몬(Richard S. Solomon), 현 미 외교협회 회장 하스(Richard N. Haass) 등이 정책기획국 국장이었다. 부시 2기 행정부 라이스 국무장관의 정책기획국장인 그녀의 스탠포드대학 동료였던 크라즈너(Stephen Krasner) 박사이다. 그리고 냉전구조의 종식을 보면서 ‘역사의 종말과 마지막 인간(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이란 책으로 인류역사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로 향할 것이라는 논지를 주창,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그 주제의 논문을 외교정책저널인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지에 처음 발표한 1989년 정책기획국 부국장이었다.

상·하원 관련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청문회 증언, 공개 및 비공개 정책세미나·간담회·토론회 개최,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의견 개진 및 여론 조성, 해외 주요인사 초청 학술회의·세미나·공개강연회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미국의 외교안보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북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문제와 한·미동맹문제 등 한반도문제와 관련한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그들의 영향력을 인식하여, 한국의 대통령, 국회의장 등 행정부, 입법부의 최고위 인사들을 비롯하여 정책결정자들과 주요 정치인들이 워싱턴의 think tank들을 찾는다.

그 동안 역대 한국 정부에서도 대학교수나 연구소 연구원들이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중요 직책에 임명되거나 정부의 관련 각종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또는 개별적인 자문에 응하는 방식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해 왔다. 특히 정치적 민주화가 심화되고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가 교차하거나 사안의 복잡성이 증대하는 등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통찰력, 문제 해결 능력이 더욱 요구되면서 정책연구기관(think tank)의 연구원들이 정책결정과정에 깊숙하게 참여하는 현상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권위주의정부에서 민주정부로 이행되면서 한국 정부는 각 분야에 걸쳐 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정책 참여를 유인해오고 있기도 하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KINU)과 한국국방연구원(KIDA), 외교부의 연구·교육기관인 외교안보연구원(IFANS), 그리고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제문제조사연구소(RIIA)의 활동이 두드러지며, 민간 연구기관으로서는 세종연구소(Sejong Institute)의 활동이 대표적이다. 물론 대학이나 기업의 부설 연구소, 또는 사

적으로 설치된 민간 정책연구기관, 그리고 NGO가 설립한 연구소들 중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자신들의 견해를 투입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한국정치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커지면서 여러 형태의 정책연구기관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의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는 아직 미국에서와 같이 think tank의 정책투입과정이 성숙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다른 민주주의국가의 정책결정과정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의 하나는 수도 워싱턴 내부와 그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많은 정책연구기관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정책연구기관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의 단적인 예로써 한국의 대통령, 국회의장 등 정치지도자들이나 장관, 차관, 국회의원들이 미국을 방문할 때 주요 정책연구기관에서 연설하거나 세미나 등의 방식을 통해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에서 볼 수 있다. 또한 북핵 문제나 북한에 대한 인식, 주요 정책 방향 등과 관련하여 미국의 입장을 파악하려할 때, 한국의 정책당국자들이나 정책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전문가들이 워싱턴의 우수한 정책연구기관들을 찾아가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학계나 정책집단에서는 미국의 정책연구기관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진한 상태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위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주의적 한·미관계의 재정립과 협력관계의 발전이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두 가지의 연구 목적을 가지고 미국의 외교안보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think tank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자 한다. 하나는 미국의 정책연구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깊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국과 연관된 문제를 보는 학자나 전문가, 정책담당자, 언론 등은 미국의 정책연구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있다. 그러나 그 이해는 그렇게 깊은 것 같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이해의 깊이를 도와주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미국의 주요 정책연구기관 중에서 특히 한반도문제와 관련한 연구나 정책대안의 제시, 의회에 대한 영향력 투입, 여론 환기 활동 등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있는 정책연구기관들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활동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대미 통일외교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의 외교정책결정과정과정에 대한 각론적 이해를 깊이 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의 기반을 견실하게 만드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미 동맹관계가 국가이익 차원의 이익교환의 관계로 실용적인 변화를 보이는 상황에서 한·미관계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정책자료로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think tank들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을 파악함으로써 대미 공공·민간외교(public diplomacy)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인적 연계망 확대를 위한 정보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각종 보고서, 인터넷 자료, 간행물 등 관련 1차 및 2차 문헌 연구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think tanks 연구진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지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think tanks 인사 및 한반도문제 전문가들과 직접 및 간접 접촉 등을 통해 실증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 II

## 미국 외교정책과 Think Tanks



세계의 국제문제 중심지로서 미국의 워싱턴에서는 의회와 백악관 및 행정부 등 공식적인 자리 이외에도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지속적인 정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화와 인쇄물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워싱턴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안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거의 매일 조찬모임, 회의, 연구모임, 오찬간담회, 세미나, 강연, 차 모임, 만찬회의 등 각종 형태의 모임을 통해 외교안보문제에 관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모임에서는 정책결정기구 안팎의 인사들이 함께 어울리며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의 중심에서 압력과 행위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그러한 모임들은 워싱턴 K 가(街)의 현대식 빌딩, 조지타운(Georgetown)의 오래된 저택, 워싱턴 외곽에 위치한 회의 장소, 메릴랜드의 와이(Wye) 농원 등 여러 곳에서 열린다. 모임에는 현직관리, 전직관리, 컨설턴트, 상·하원의 의원 및 그들의 정책보좌관, 학자, 기업인, 국내외 언론인, 로비스트, 그리고 여러 부류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그리고 ‘벨트웨이’(belt-way) 외부의 공중들은 신문의 칼럼 및 전문가 의견(op-ed), 라디오 및 TV의 시사대담·토론 프로그램, 인터넷의 토론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들의 대화와 토론을 접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의 핵심에는 센터, 연구소, 위원회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진 기관들이 있는데, 통칭하여 think tanks라고 부른다.

Think tanks는 미국의 외교정책과 관련 정부의 외곽에서 자문에 응하고, 조언하며, 다양한 방식의 공직에 봉사하고, 공공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논평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는 집단이다. 이들 집단은 때때로 정부의 공직에 봉사하며, 정책대안을 형성하거나 정부의 계획에 포함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정책

적 쟁점의 범위를 설정하는 보고서나 연구물을 생산하는 영향력 계층이다. 이들 집단은 전형적인 미국적 기획 및 자문기관이다.<sup>3</sup> 이들 정책연구기관들은 수많은 행사를 개최하며, 각종의 리포트, 연구보고서, 뉴스레터, 책 등의 근원지이다. 이들 정책연구기관에서 무수한 전문가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활자매체, 라디오 및 TV에서의 논평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인식의 뼈대를 만들어낸다.<sup>4</sup>

Think tank라는 용어는 1950년대 RAND와 같은 계약연구기관을 지칭하기 위해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Think tank란 원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국방과학자들과 군사기획가들이 전략과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안전한 공간을 의미하는 군사용어이다.

그런데 이러한 협의의 think tank 개념은 그 후 정책분석이나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일컫는 용어로 확장되었고, 심지어는 자기 집단의 특정한 주의·주장·입장을 정책결정과정에서 투입시키기 위한 주장집단(advocacy group)까지도 포함되는 매우 광범위한 용어로서 사용되기까지 한다. 따라서 연구기관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관들을 think tank로 지칭한다. 미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이나 회계감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 같은 정부 기관도 때로는 think tank라고 불린다.<sup>5</sup> 대학에 소속된 연구기관과 think tank를 동일하게 간주하는 경우도 있고, 이익집단이 운영하는 연구조직을 think tank로

<sup>3</sup> James A. Smith, *The Idea Brokers: Thinkers and the Rise of the New Policy Elite* (New York: The Free Press, 1993), p. xiii.

<sup>4</sup> David D. Newsom, *The Public Dimension of Foreign Polic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6), pp. 141~142.

<sup>5</sup> William H. Robinson,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Policy Consultant, Think Tank, and Information Factory," in Carol H. Weiss, ed., *Organizations for Policy Analysis: Helping Government Think*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1992).

부르기도 한다. 엄격하게 말해서 이러한 기관들은 think tank라고 볼 수는 없다.

Think tank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여론과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비당파의 연구 지향적 기관을 일컫는다. 비당파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비이데올로기적인 것은 아니다. 특히 전문성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think tank는 “지지를 획득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전문성 및 아이디어를 생산하며 또 그에 의존하는 독립적이고, 특정이익에 기반을 두지 않는 비영리 기관”으로 정의된다.<sup>6</sup> 미국의 법률에 따르면, think tank는 공공정책 이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와 아이디어를 널리 보급하는 법률 501(c)3 규정에 따른 비영리 기구를 말한다.

Think tank는 한편으로는 대학 또는 고등교육기관과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및 당파적 정치 사이에 위치하여 공식적인 정치과정의 외곽에서 활동하는 연구기관이며 미국 정치과정에서 구체적인 정책전문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sup>7</sup> Think tank와 그 연구원들은 행정 및 강의 부담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고립된 환경 속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상아탑’이 아니라, 정책공동체에 속하며 그들의 연구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정책형성과정에 영향을 준다.<sup>8</sup>

---

<sup>6</sup> Andrew Rich, *Think Tanks, Public Policy, and the Politics of Expertis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 11.

<sup>7</sup> James A. Smith, *The Idea Brokers: Thinkers and the Rise of the New Policy Elite*, p. xiii.

<sup>8</sup> Donald E. Abelson, *American Think-Tanks and their Role in US Foreign Policy*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6), p. 5.

미국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 think tank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세계에서의 역할의 확대와 관련이 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은 명실공히 세계 강대국으로 등장하였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국가들을 대신하여 자본주의세계의 종주국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의 세계문제에 대한 관여의 정도가 급격하게 증대하게 되었다. 미국이 세계질서의 주도자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서부터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 think tanks의 역할이 커지게 되었다. Think tank들이 외교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된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sup>9</sup>

첫째, 아시아, 아프리카 등 이전에는 미국의 관심이 적었거나 잘 알지 못했던 지역과 사안들에 대한 정보와 이해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민간 기업과 정부 간의 의사소통의 확대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요구를 정부만의 기능으로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think tank들이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둘째, 냉전체제가 시작되면서 미국의 관료, 상·하원 의원, 언론인과 학자들이 새로운 이슈들에 봉착하게 되었다. 소련과의 경쟁,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 및 갈등의 관리, 핵시대의 군비통제문제, 새롭게 전략적 요충지로 부각한 지역 등이 그 예이다. 탈냉전 시대에도 냉전시대와는 다른 갈등의 양상이 나타나고, 테러리즘과 위협도 새로운 차원을 띠게 되었다.

셋째, 정부의 외교정책 영역은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요구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특히 관료집단은 새로운 아

---

<sup>9</sup> David D. Newsom, *The Public Dimension of Foreign Policy*, pp. 144~145.



이디어를 수용하는 정도가 제한적이다. 외교정책에서의 비밀 유지 필요성은 정부와 민간 간의 의견 교류를 제한하며, 대통령과 국무장관, 국방장관은 장기적 계획에 관심을 갖는데 반해 관료 집단 내에서는 일상적인 업무에 바빠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또한 향후 발생 가능한 사안에 대한 정책(안)의 누출이 관료에게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며, 따라서 앞을 내다보는 기획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이 외교정책에서 think tank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넷째, 1970년대 초 의회 개혁에 따라 의회가 외교정책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고, 의원 개개인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 의원들은 신장된 역할을 뒷받침할 만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특히 장기적이고 새로운 이슈 영역에 대해 think tank에 의존하게 되었다. Think tank들로서는 의회가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자신들의 입장을 투입할 수 있는 이상적인 창구가 되었다.

다섯째, 대학의 많은 자원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문적 연구들이 정책대안의 강구에 필요한 간결성, 시의성, 명료성이 결핍되었으며, think tank는 이러한 결핍을 보완할 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think tank는 학문적 연구를 정책결정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연구중개인’이 되었다.<sup>10</sup> 그러나 think tank의 많은 연구진들은 그들 스스로가 학계에 속하면서 동시에 정책결정과정의 외곽에서 활동함에 따라 현실 정책의 문제에 깊은 관여를 하게 되었다.

---

<sup>10</sup> David M. Ricci, *Transformation of American Politics: The New Washington and the Rise of Think Tank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3), p. 163, quoted in David D. Newsom, *The Public Dimension of Foreign Policy*, p. 145.

여섯째, 국제경제 및 통상관계가 확대되고 다국적 기업들이 팽창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해외시장 개척 및 투자 결정, 투자위험 평가, 정부정책결정에의 영향력 투입 등을 위해 외교정책을 추적하게 되었다. 특히 민간부문의 사람들은 행정부 관료들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어려우며, 접근이 가능하더라도 이해의 충돌, 정실 등의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관료들이 만나기를 꺼린다. 정책에 대한 장기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언론인이나 학자들도 관료들을 접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Think tank들은 관료들과 공인들이 공식적 방문이라는 형식적 틀을 벗어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미국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 think tank가 주요 행위자로 참여하게 되었으나, 그 중요도가 더욱 커지게 된 것은 카터(Jimmy Carter) 대통령 시기와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 시기를 거치면서이다.<sup>11</sup>

1974년 8월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이 불명예스럽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민주당으로의 정권 이동은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보였다. 그러나 조지아주 주지사를 한번 역임한 카터가 민주당 대통령으로 등장한 것은 예상 밖이었다. 카터 대통령은 1970년에 조지아주지사가 된 직후 중앙무대로의 접근을 추진하였다. 그는 '동부의 주류권력집단(Establishment)'에 접근하여 중앙정치문대로 진출하기를 원했다. 이 과정에서 카터는 록펠러(David Rockefeller)와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를 알게 되었으며, 이 두 사람이 주도하여 1973년에 설립한 삼각위원회

---

<sup>11</sup> Donald E. Abelson, *American Think-Tanks and their Role in US Foreign Policy*, pp. 6~18.

(Trilateral Commission)의 회원으로 초청되었다. 삼각위원회의 많은 회원들이 동시에 외교협회(CFR)의 회원들이었으며, 이를 통해 카터는 대통령 선거캠페인 과정에서 외교정책에 대한 도움을 받았다. 선거 이후 여러 CFR 회원들이 카터 행정부에 참여하였다. 카터 대통령은 당선된 직후 민주당 성향의 브루킹스연구소의 전문가들에게 외교 및 경제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했으며, 백악관을 비롯하여 행정부의 관료들로서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들을 충원하였다.

레이건 대통령은 두 차례의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역임하면서 주요 think tank와 대학의 정책분석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했지만, 1980년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그의 보수적 가치를 선거정강에 담기 위하여 우수한 think tank의 연구원들로 대규모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였다. 정책자문단에 참여한 연구원들은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 후버연구소(Hoover Institution on War, Revolution and Peace), 현존위험위원회(Committee on the Present Danger) 등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들은 보수적 가치를 일반 국민들에게 호소력 있는 정치적 어젠다로 전환시킴으로써 레이건 대통령이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는데 기여하였다. 레이건 대통령 후보는 당시까지 미국 대통령 선거캠페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정책 Task Force를 운영하였는데 외교, 국방, 경제 및 국내정책분야에 걸쳐 거의 50개의 그룹, 450여 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선거 승리 이후 선거자문단에 참여한 많은 인사들이 행정부의 고위 직위에 충원되었는데, 국무장관(George Shultz), 국방장관(Casper

Weinberger),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Alan Greenspan), 국가안보 보좌관(Richard Allen), 국방부부장관(William Howard Taft IV) 등이 대표적이다. 차관보급 이상 고위직으로 충원된 인사 중 절반 이상이 think tank의 연구원들이었다.<sup>12</sup>

이와 같은 현상들은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레이건 대통령을 이은 공화당의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이나 그를 꺾고 12년 만에 민주당 정권을 되찾은 클린턴(William J. Clinton) 대통령도 워싱턴의 think Tanks 출신들을 여러 명 그들의 고위급 각료 및 참모로 충원하였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는 중도 성향의 랜드연구소 연구진들이 주요 직책에 여러 명 충원되었다.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John White), 해군성 장관(Richard Danzig), 국방부 전략기획차관보(Edward Warner),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주담당 특별보좌관(Kenneth Lieberthal) 등이 있다. 또한 랜드연구소의 선임 분석가(senior analyst)에서 클린턴 행정부의 국무부 정보조사 담당 부차관보로 충원된 스타인버그(James B. Steinberg)는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을 거쳐 클린턴 행정부 2기에는 국가안보부보좌관을 지냈으며, 정권이 공화당으로 바뀐 후 2001년 가을부터 다른 think tank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부소장 겸 외교정책연구실장으로 있다.

이처럼 think tank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외교안보정책결정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엘리트’(policy elite)를 구성한다. 이들은 넓은 시각에서 사회의 흐름을 보고 철학적 관점에서 공공문제를 바라보는 일반 저명지성인이라기 보다는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공공전문가들이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sup>13</sup>

---

<sup>12</sup> *Ibid.*, p. 15.

첫째, 행정부의 장관이나 국가안보보좌관 또는 경제자문위원회 위원 등 고위급의 공직에 있는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학자정치인’(scholar-statesmen)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로서 정책엘리트집단 중 가장 이름난 사람들로서 정책 책임이라는 어려운 일을 수행한 실제적 경험과 학문적 전문성으로 인해 존중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현대의 전문지식의 권위일 뿐만 아니라 고대의 왕의 자문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눈에 띄는 정부의 공직보다는 특정한 정책분야에서 오랜 연구에 기반을 둔 전문가 그룹으로서, 이들은 ‘정책전문가’(policy specialists)로 불릴 수 있다. 이 유형의 전문가는 정책결정이나 전임 자문보다는 정책연구와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한다. 그들의 연구결과는 정책의 이론적 기반제공 및 구체적인 정책화 또는 공직에 진출할 학생의 교육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주로 주요 정책연구기관, 정부의 연구기관 및 대학의 연구센터 등에 종사한다.<sup>14</sup>

셋째, 일반적으로 단기계약과 고객이 의뢰한 문제를 기반으로 일하는 ‘정책컨설턴트’(policy consultants) 그룹이 있다. 이들은 자료를 산출하고, 프로그램을 평가하거나 사회적 실험을 모니터한다. 랜드연구소나 도시연구소의 많은 정책분석가들이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이들의 주된 대상은 학계나 일반 대중이 아니라 국방부, 군, 정부 부처 등 특정 계약을 맺는 고객이다. 기업의 최

---

<sup>13</sup> James A. Smith, *The Idea Brokers: Thinkers and the Rise of the New Policy Elite*, pp. 224~226.

<sup>14</sup> Bernard Barber, *Effective Social Science: Eight Cases in Economics, Political Science and Sociology*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87).

고경영자들도 국내외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점차 이들의 고객이 되고 있다. ‘학자정치인’과 ‘정책전문가’도 때때로 ‘정책컨설턴트’의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고위급의 직책에 임명되지 않은 ‘정부전문가’ 집단으로서, 의회예산처(CBO), 상하원 위원회, 의회연구처(CRS), 내각의 부처 및 독립기관의 분석단위에 근무하는 전문가들이다.

마지막으로 ‘정책기업가’(policy entrepreneurs)가 있다. 이들은 공공정책의 분석가로서 활동하기도 하지만, 주로 기관을 세우는 일에 종사한다. 그들은 특정한 제의를 추진하기 위해 자원을 동원하고, 여러 전문가와 활동가들의 연대를 만들며, 정책엘리트에 진입하고자 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육성하고, 새로운 저널을 시작한다.

상기와 같이 think tank의 전문가들을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나, 그들 간에는 상호 침투성이 매우 높다. 현대 미국의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는 정책전문가들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학자전문가들로서 think tank의 전문가들은 권위를 가지고 정책에 대해서 말을 하며, 정책전문가로서 외교안보문제의 개념을 규정하며, 정책컨설턴트로서 기존의 프로그램과 정책을 모니터하고, 정부의 전문가로서 현대관료제가 가능하도록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일상적인 분석을 수행한다. 또한 정책해석가로서 그들은 정책결정자와 일반 공중에게 정책을 해석해 주고 정책토론의 윤곽을 설정한다. 그리고 정책기업가로서 재정 및 인적 자원을 특정 정책분야로 향하게 하고, 정책의제를 설정하며 전문성이 활용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만든다.<sup>15</sup>

이에 따라 ‘정책엘리트’집단으로서 think tanks의 전문가들이 사회과학연구의 발전을 위한 기관으로서 보다는 자신들의 연구와 활동을 후원하는 기업이나 자선재단들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해주는 데 기여한다고 비판을 받기도 한다.<sup>16</sup> 그러나 think tanks의 목적이 특정한 집단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헤리티지재단이나 미국기업연구소처럼 보수주의를 명백히 표방하거나 자유와 시장경제 및 자유기업활동 등을 기치로 내세운 think tanks도 있으나 대부분의 think tanks는 비당파적이며 특정 정치적 성향을 내세우지 않는다. 또한 연구 및 활동 재원의 많은 부분을 사적 개인의 기부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이해집단의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또한 think tanks가 주로 정책연구, 즉 응용연구에 중심을 두는 것은 사실이지만, 랜드연구소가 체계분석(system analysis)이론의 정립에 기여하고, 허드슨연구소가 미래연구의 개척에 기여했던 것처럼 사회과학 연구의 발전에도 공헌하는 바가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결국 think tanks의 전문가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의제의 제시, 정책 분석과 대안의 제안 등과 같은 다양한 연구 및 관련 활동을 통해서 미국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 자신들의 지식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제도적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수많은 이해집단들이 자신들의

<sup>15</sup> James A. Smith, *The Idea Brokers: Thinkers and the Rise of the New Policy Elite*, p. 226.

<sup>16</sup> G. William Domhoff and Thomas R. Dye, *Power Elites and Organizations* (London: Sage, 1987); Thomas R. Dye, “Oligarchic Tendencies in National Policy-Making: The Role of Private Policy-Planning Organizations,” *The Journal of Politics*, Vol. 40 (1978), pp. 301~331.

이해관계를 입법과정에 반영시키려고 정책결정자들에게 로비를 전개하지만, 백악관이나 의회로부터 정책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형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곳은 거의 없다. 또한 이익집단의 구성원이 의회의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특정한 정책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청사진을 거의 제시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think tanks의 전문가들은 정책결정자와 의회의 상하의원, 즉 입법가로부터 외교안보정책의 개발과 집행에 관하여 실제적인 자문을 요청받는다. 더욱이 대통령 선거 과정 및 정권인수 시기에 대통령 후보자(당선자)는 많은 think tanks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게 되며, 그들의 상당수가 정책결정자로 참여하게 된다. Think tank의 전문가들은 정치지도자들의 효율적인 통치방법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이다. 요컨대 Think tanks는 정책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형성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 III

## Think Tanks의 발전 역사



미국에서 연구기관이 정부에 자문하기 시작한 것은 183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으나,<sup>17</sup> 대체적으로 미국에서 외교·안보정책 관련 think tanks가 출현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이러한 think tanks는 처음에는 정책연구(policy research)기관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점차 미국 국내정치과정에서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특정한 정책대안을 주장하는 정책주창자(advocacy)로서 또 특정한 이데올로기 성향을 대변하는 기구까지 등장하였다.<sup>18</sup>

## 1. 형성기: 1900년대~1945년

1900년을 전후하여 미국은 국제문제에 대한 고립주의의 입장에서 벗어나 해외문제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세계는 급격히 수축되었고, 유럽에서의 세력균형은 영국에 대한 독일의 도전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미국의 경제 및 산업능력의 성장은 미국을 더 이상 국제문제로부터 유리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을 조성하였다.<sup>19</sup> 18세기 말에 이르러 카리브해 전역은 북미의 인접지역으로써 ‘미국의 안보지대’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미국이 당연히

---

<sup>17</sup> Paul Dickson, *Think-Tanks* (New York: Atheneum, 1970), quote in Donald E. Abelson, *American Think-Tanks and their Role in US Foreign Policy*, p. 23.

<sup>18</sup> Donald E. Abelson, *American Think-Tanks and their Role in US Foreign Policy*, pp. 23~64.

<sup>19</sup> Foster Rhea Dulles, *Americas Rise to World Power: 1898-1954* (New York: Harper and Row, 1954), p. 1. quoted in Eric A. Nordlinger, *Isolationism Reconfigured: American Foreign Policy for a New Centur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p. 53.

지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sup>20</sup>

미국은 1898년 스페인 지배에 저항하는 쿠바 및 필리핀 지원을 명분으로 군사적으로 개입했고, 결국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강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쿠바와 필리핀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미국은 1903년 파나마운하 일대를 조차하면서 카리브해 일대를 미국의 영향권 아래 두려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사회과학이 막 싹을 트기 시작했는데, 이들의 전문성이 공공문제의 해결과 정부의 정책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과학적 지식’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미국 정치발전사에서 진보주의시대(Progressive Era)의 흐름이 think tank의 등장에 영향을 미쳤다.<sup>21</sup>

이 시기에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think tank가 등장하였는데, 가장 먼저 설립된 것이 1907년 세이지(Margaret Olivia Sage)가 세운 러셀세이지(Russel Sage) 재단이다. 이 재단은 ‘사회연구, 정책처방, 공공토론의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회과학연구가 아닌 사회적 병을 해결하는 응용연구를 목적으로 연구원을 충원하였다. 그러나 이 재단은 대외관계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또한 같은 해에 도시연구국(The Bureau of Municipal Research)이 뉴욕의 기업가들과 지식인들에 의해 뉴욕에서 설립되었는데, 이 기관 역시 대도시 뉴욕의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sup>22</sup>

---

<sup>20</sup> Dexter Perkins, *The American Approach to Foreign Polic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2), p. 108. quoted in Elliott Abrams, *Security and Sacrifice: Isolation, Intervention, and American Foreign Policy* (Indianapolis, IN: Hudson Institute, 1995), p. 52.

<sup>21</sup> Andrew Rich, *Think Tanks, Public Policy, and the Politics of Expertise*, p. 34.

미국의 대외정책 내지는 국제문제와 관련하여 이 시기에 세 개의 주요 연구기관이 탄생하였다. 가장 먼저 1910년 피츠버그의 철강왕 카네기(Andrew Carnegie)에 의해서 카네기국제평화기금/카네기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이 설립되었다. 카네기재단은 1919년까지는 국제법, 경제, 역사 및 교육 등을 연구하는 부서를 두었으며, 전쟁의 원인, 국가 간 갈등의 완화 방법 등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1919년에는 후버(Herbert Hoover) 전 대통령에 의해 후버연구소(Hoover Institution on War, Revolution and Peace)가 설립되었고, 1921년에는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가 창설되었다. 후버연구소의 전쟁도서관은 1922년까지 80,000권 이상의 서적을 소장하였고, 이 분야에서 가장 독보적인 기관으로서 인정받게 되었다.<sup>23</sup> 외교협회는 1919년에 국제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뉴욕의 학자, 변호사, 기업인, 정부 관료들이 세계 정치무대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는 모임으로 출발하였다. 이들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클럽에서 월례모임을 갖다가 1921년에 외교문제 연구를 위한 항구적인 연구기관을 설립하게 되었다.<sup>24</sup> 이 세 think tanks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계속하여 미국의 지도적인 think tank로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과 비슷한 시기인 1916년에 정부의 능률과 예산체계를 개선하는 연구를 하기 위한 목적의 정부연구소(Institute for Government Research)가 워싱턴에 설립되었는데, 이 연구소는 1922년 설립된 경제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s)와 1924년에 설립된 브루킹스경제

---

<sup>22</sup> *Ibid.*, pp. 34~35; Donald E. Abelson, *American Think-Tanks and their Role in US Foreign Policy*, p. 32.

<sup>23</sup> *Ibid.*, p. 38.

<sup>24</sup> *Ibid.*, p. 44.

정부대학원(Robert Brookings Graduate School of Economics and Government)과 합쳐져 1927년 12월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로 창설되었다.<sup>25</sup>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AEI)는 1938년 뉴욕에서 미국기업협회(American Enterprise Association)로 출범하였으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1943년 워싱턴에 사무소를 개설하였다. AEI는 케인지언경제에 직면하여 ‘자유경쟁 기업 유지를 통한 사회적, 경제적 장점에 대한 대중의 지식과 이해의 증진’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였다.<sup>26</sup> AEI는 19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소규모에 머물러 있었다.

전반적으로 20세기 상반기에 창설된 think tanks는 그들의 과학적 전문성을 여러 공공정책문제들에 응용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카네기재단이나 브루킹스연구소는 질 높은 학문적 연구물을 생산하는데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고, 따라서 이들은 ‘학생이 없는 대학’이라고 불렸다.<sup>27</sup> 이들 연구기관의 학자들이 때때로 정책결정자들의 자문에 응하였지만, 그들의 주된 목적은 정책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광범위한 외교정책 사안에 대하여 정책결정자와 일반 대중들을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었다. 이 시기의 think tanks는 정책지향적인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자신들의 지적 독립성과 기관의 독립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치과정에서의 직접적인 관여로부터는 거리를 유지하였다.

<sup>25</sup> “Brookings Institution History” <[http://www.brookings.edu/lib/history\\_hp.htm](http://www.brookings.edu/lib/history_hp.htm)>.

<sup>26</sup> Karlyn H. Bowman,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 Brief History,” *Unpublished mimeo* (October 2003), p. 1.

<sup>27</sup> R. Kent Weaver, “The Changing World of Think-Tanks,”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Vol. 22, No. 3 (1989), pp. 563~578.

## 2. 발전기: 1945년~1970년

미국에서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연구기관이 출현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국제적인 관여가 더욱 커지면서 정책결정자들에게 외교정책에 관한 정보 및 자문의 필요성이 급증하게 되었다. 미국은 세계의 '패권국가'로 등장하게 되었고 특히 냉전구도가 시작되면서 정책결정자들은 국가안보정책의 개발을 위해 think tanks 전문가들의 지식과 전문성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가장 먼저 등장한 think tank가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이다. 랜드연구소는 1948년 5월 핵시대의 미국의 안보이익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랜드연구소는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에서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 이외에 많은 연구기관의 출현을 자극하였다. 특히 랜드연구소는 정책결정자들의 특정한 목적에 부응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계약자로서의 정책연구기관의 효시가 되었다. 랜드연구소는 이후 민간 부문의 정책연구를 확장하면서도 국방부 및 미군 당국의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랜드연구소가 출범한 이후 1961년에는 허드슨연구소(Hudson Institute)가 창설되었고, 1963년에는 정책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Studies)가, 1968년에는 도시연구소(Urban Institute)가 각각 설립되었다. 허드슨연구소는 랜드연구소의 국방연구부문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랜드연구소에서 12년 동안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칸(Herman Kahn)이 그의 다른 동료와 함께 설립하였으며, 초창기에는 주로 국방부의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비전통적인 아이

디어의 창출을 중시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up>28</sup> 정책연구소는 케네디 행정부에서 일을 했던 라스킨(Marcus Raskin)과 바넷(Richard Barnet)의 진보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허드슨연구소가 정부 계약과제를 수행하는데 반하여 정책연구소는 정부의 연구 및 개발 계약과는 거리를 두었으며, 포드재단과 진보 성향의 몇몇 부유한 기부자들의 재정에 의존하였다.

허드슨연구소와 정책연구소의 출범은 그들 사이의 차이처럼 기존에 존재했던 think tanks와는 다른 연구기관의 출현을 의미했다.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think tanks의 연구는 정부의 정책 해결의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정부 자체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변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등장하였다. 또한 허드슨연구소를 세운 칸이나 정책연구소를 만든 라스킨 및 바넷은 박사학위를 보유한 전통적인 think tank 학자들과는 달리 박사학위를 소유하지 않았으며, 이들은 창조적이며 공격적인 지성인들로 연구진을 충원하려 하였다. 이 두 기관은 자신들의 연구물의 질과 정확성에 대해 강조하고 또 그에 따른 평판도 얻었으나, 학문적 연구에 관심을 기울였던 기존의 think tanks에 비해 ‘편향성’을 보인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허드슨연구소나 정책연구소의 성공은 정직한 사회과학전문성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고 국가의 정치적 이상에 관한 토의가 확대되는 정치적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sup>29</sup>

---

<sup>28</sup> Andrew Rich, *Think Tanks, Public Policy, and the Politics of Expertise*, p. 46.

<sup>29</sup> Arthur Herzog, “Report on a ‘Think Factory,’” *The New York Times Magazine*, November 10, 1963, pp. 30~46. quoted in Andrew Rich, *Think Tanks, Public Policy, and the Politics of Expertise*, p. 48.



이들에 이어 보다 현실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투영시키려는 think tanks가 출현하였다. 이들은 마케팅 기법을 도입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정책결정자들에게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 전파함으로써 think tanks의 성격과 역할을 확장시켜 나갔다. 이러한 기관들 중에 대표적인 기관으로 1962년에 출범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1968년에 설립되어 국내문제를 다루는 도시연구소(Urban Institute)가 있다. 이들과 같은 연구소의 등장에는 크게 미국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제도적 양태의 변화와 외교정책 관련 공공토론구조에서의 변화라는 두 흐름이 영향을 미쳤다.<sup>30</sup>

제도적 양태 변화의 차원에서 1960년대 이래 미국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외교정책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찾는 의회의 의원들과 그들의 보좌진들에게 think tanks를 지적인 원천으로 삼게 되었다. 후에 닉슨 행정부에서 의회 담당 국무차관보를 역임한 CSIS의 설립자 중 한 사람인 앱샤이어(David M. Abshire)는 의회를 주 고객의 하나로 간주하였다.

공공토론구조의 변화 차원에서는 1960년대 이래 미국 기업들이 기업운영·투자·전략결정·비전설정 등에 있어서 점차 국제화되고 이러한 경향이 모든 경제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외교안보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결국 CSIS와 같은 think tanks는 기업들을 고객으로서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의 원천으로써 간주하게 되었다. CSIS나 브루킹스연구소 등 think tanks는 기업가

---

<sup>30</sup> James A. Smith, *The Idea Brokers: Thinkers and the Rise of the New Policy Elite*, p. 210.

들에게 세계정세에 대해 브리핑하고 기업들이 활동하는 지역사정에 대해 자문하는 일 등이 좀 더 주요한 기능이 되었다.

한편 1960년대 초까지 소규모의 기관으로 머물러 있었던 AEI는 1962년 미국상공회의소 출신인 바루디(William J. Baroody)가 소장에 취임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였다. 그는 AEA에서 AEI로 명칭을 개편하고, AEI가 보수주의를 미국 사회의 지배적인 사상의 흐름이 되도록 증진하는 지적 센터로 만들기 위해 정책기업가(policy entrepreneur)들을 위한 ‘지성인의 감독’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창출하였다. 즉, 보수주의 사상가들이 AEI에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연습하고 정치지도자들에게 그 아이디어들을 제출하는 것이다.<sup>31</sup> AEI는 프리드만(Milton Friedman), 커크패트릭(Jeane Kirkpatrick), 스타인(Herbert Stein)과 같이 몇몇 미국에서 가장 이름난 경제학자, 정치학자 및 전직 관료들을 충원하고 보수주의를 적극적으로 전파함으로써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주의 think tank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에는 후술되는 바와 같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발생한 미국의 새로운 정치적 동향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았다.

### 3. 번성기: 1970년대 이후

1980년대 말 당시에 워싱턴에 있는 100여 개의 정책연구기관

---

<sup>31</sup> Sidney Blumenthal, *The Rise of the Counter-Establishment: From Conservative Ideology to Political Power* (New York: Time Books, 1986), pp. 38~39. quoted in Donald E. Abelson, *American Think-Tanks and their Role in US Foreign Policy*, p. 52.

중에서 2/3 이상이 1970년 이후에 설립된 것으로 조사되었다.<sup>32</sup> 특히 이 시기에는 1960년대에 이어 자신들의 견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고 일반 대중들에게 전파하려는 목적을 보다 강조하는 think tanks가 출현하였다.

이러한 기관들의 출현에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발생한 새로운 정치적 동향 즉, 기업계 및 협회들의 정치적 동원, 신보수주의 지식인들의 정치적 전향과 공세적인 주장, 복음주의 및 근본주의적 기독교의 정치적 동원, 대학 및 주요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 신고전주의 경제이론의 부상 등 네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sup>33</sup>

첫째,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기업계가 각종 협회 및 업종 단체를 워싱턴에 설립하고 정책결정과정에 기업계의 이익을 반영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하였으며, 그들의 영향력은 점차 매우 커졌다. 둘째,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기업의 관여가 점차 커지던 거의 같은 시기에 사회주의와 진보주의(liberalism)에 환멸을 느낀 일군의 지식인들에 의한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 흐름이 태동하였다. 크리스톨(Irving Kristol), 벨(Daniel Bell), 글레이저(Nathan Glazer) 등이 대표적인 인물로서 신보수주의자들의 반공주의 신념은 1960년대의 사회적 저항에 따른 무질서 및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반대하는 적극적인 친미국주의(pro-Americanism)로 나타났다. 이들에 의해 1965년에 창간된 저널 ‘공익(Public Interest)’은 정책결정자들이 관심을 갖고 읽는 사회 및 외교정책 관련 주요 포럼이 되었다. 셋째, 복음주의 및 근본주의적 기독교는 공립학교에서의 기도를 금지시킨 대법원의 판결에 대응하고 공교

---

<sup>32</sup> James A. Smith, *The Idea Brokers: Think Tanks and the Rise of the New Policy Elite*, p. 214.

<sup>33</sup> Andrew Rich, *Think Tanks, Public Policy, and the Politics of Expertise*, pp. 49~53.

육에서의 기도 및 영성(靈性)의 역할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였다. 여러 세대 동안 세속에 등을 돌려왔던 보수주의 기독교의 정치적 참여는 이후 미국 정치의 주요 변수가 되었다. 넷째,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통화주의론, 자유시장경제론 및 공급주의 경제론이 득세하여 케인주의를 대체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좀 더 이데올로기적이고 좀 더 마케팅 지향적인 think tanks가 등장하였는데 대표적인 연구기관으로는 1973년에 보수주의를 기치로 출범한 헤리티지재단(Heritage Institution)과 1977년에 자유의지주의(Libertarianism)<sup>34</sup>를 기치로 출범한 케이토연구소(Cato Institute) 등이 있다. 헤리티지재단과 케이토연구소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설립된 109개의 보수주의 think tanks 중 대표적인 기관이다.<sup>35</sup>

헤리티지재단은 자유기업, 제한정부, 개인의 자유, 전통적인 미국적 가치 및 강력한 국방이라는 원칙들 위에서 보수주의 공공정책을 형성하고 증진시키려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연구 및 교육기관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다.<sup>36</sup> 그 창립자들인 와이리치(Paul Weyrich)와 풀너(Edwin J. Feulner)는 1970년대 초 각각 상원의원 알롯트(Gordon Allott)의 공보비서와 하원의원 크레인(Philip Crane)의 행정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의회의 입법과정에서 보수주의 아이디어가 결여되었다는 생각에서 보수주의 정책기관 설립을 구상하였으며, 그들의 구상은 맥주재벌 쿠퍼스(Joseph Coors)의 재정지원으로 실현되었다.<sup>37</sup> 1970년대 초는 미국 정치

<sup>34</sup> 자유의지주의는 진보·보수·중도주의의 분류법에 따르면 보수주의로 분류된다.

<sup>35</sup> Andrew Rich, *Think Tanks, Public Policy, and the Politics of Expertise*, p. 56.

<sup>36</sup> 헤리티지재단 홈페이지 설명 참조 <<http://www.heritage.org/about>>.

<sup>37</sup> Andrew Rich, *Think Tanks, Public Policy, and the Politics of Expertise*, p. 54.

에서 아직 보수주의 철학이 정치적 담론의 주류는 아니었으나, 헤리티지재단은 기업가적 비전과 능력으로 매우 빠른 성장을 보였다. 특히 헤리티지재단은 정책결정자들에게 시의적절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중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활동은 이후 다른 think tanks의 활동에도 새로운 모델로서 영향을 주었다.<sup>38</sup>

케이토연구소는 자유의지당(Libertarian National Party)의 의장으로서 당의 대통령 후보 맥브라이드(Roger McBride)의 고문을 역임한 크레인(Edward H. Crane)이 캔자스의 석유 억만장자 카치(Charles Koch)의 재정지원으로 1977년 설립하였다. 케이토연구소는 제한정부, 개인의 자유, 자유 시장 및 평화의 원칙들을 공공정책토론에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정책에 관심을 가진 지성인과 관심 공중을 더 관여시키고 정부의 적절한 역할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스스로의 사명을 규정하고 있다.<sup>39</sup> 케이토연구소가 내세우고 있는 원칙들은 헤리티지재단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동 연구소는 오늘날 자유의지주의 및 자유시장을 주창하는 think tanks중 대표적인 기관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전직 대통령의 유산을 이어 받아 국내외 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think tanks가 출현하였다. 애틀랜타에 본부를 둔 카터센터(Carter Center)와 워싱턴에 근거지를 둔 닉슨센터(Nixon Center for Peace and Freedom)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대부분의 think tanks가 비정부기관인데 반하여, 독립적이고 비당파적인 연방기구인 미국평화연구소(Uni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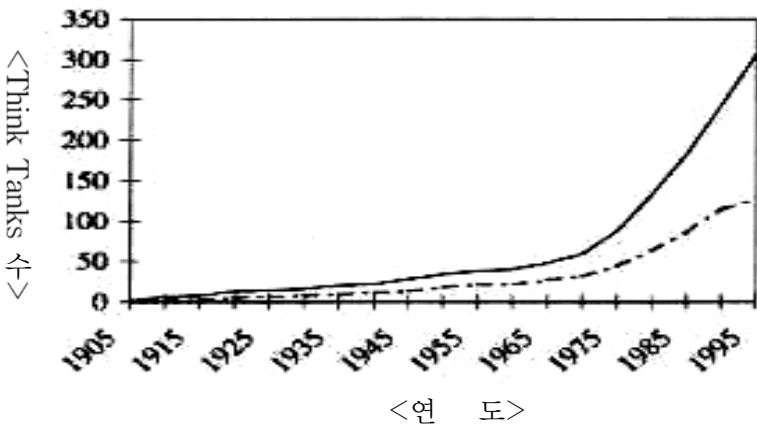
---

<sup>38</sup> Donald E. Abelson, *American Think-Tanks and their Role in US Foreign Policy*, p. 59.

<sup>39</sup> 케이토연구소의 홈페이지 설명 참조 <<http://www.cato.org/about/about.html>>.

States Institute of Peace)가 있다. USIP는 1984년 미국평화연구소법에 의해 국제적 갈등의 예방, 관리 및 평화적 해결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사회 이사들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승인을 받는다. 1986년 4월 3명의 직원으로 출범한 USIP는 다른 think tanks와 달리 의회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으며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였다. USIP의 주된 사업은 국제관계 및 국제적 갈등관리에 대한 지식의 확산, 의회 및 행정부의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지원, 국제분쟁 해결 촉진, 국내외의 국제문제전문가 훈련, 미국 및 해외분쟁지역의 차세대 교육 강화, 국제적 갈등의 성격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 증진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진다.<sup>40</sup>

<그림 III-1> Think Tanks의 증가 추세



참고: 실선은 Think Tanks 명부에 최소 1번 등재/점선은 최소 2번 등재  
출처: Andrew Rich, *Think Tanks, Public Policy, and the Politics of Expertise*, p. 223 <Figure A-1>

<sup>40</sup> 미국평화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http://www.usip.org/aboutus/mission.html>>.

<그림 III-1>은 지난 20세기 초부터 20세기 말에 이르는 근 100년 동안 미국에서 think tanks의 수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think tanks의 수는 197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하였다. 1970년 70개에 다소 못 미치는 think tanks의 수는 2000년에는 300개가 넘었으며, 이 기간 중 설립된 think tanks의 절반 이상은 정체성의 측면에서 이데올로기적이다.<sup>41</sup> 그러나 많은 think tanks의 설립은 그들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연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환경을 낳았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think tanks의 재원의 주요 원천인 재단들의 지원 규모가 축소되었고, 또 그들은 지원의 우선순위를 광범위한 이슈 영역을 다루는 기관 보다는 여성, 빈곤, 환경과 같은 특정 이슈에 두었다. 이에 따라 많은 비보수주의적 think tanks는 재원의 흐름에 따라 조직을 편성해야 했으며, 보수주의적 think tanks와 달리 여러 이슈에 대응하는 신축성이 결여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 주류 및 진보주의적 재단들의 think tanks나 정책연구소들에 대한 지원이 회복되었으나, 이들의 지원은 구체적이고 잘 정의된 프로젝트에 집중되었다. 반면, 보수주의적 재단들은 보수주의적 think tanks들에 대한 기관 차원의 지원을 중시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지원하였다.<sup>42</sup>

즉, 주류 내지는 진보주의적 재단들의 절대적인 지원 규모가 보수주의적 재단들의 지원 규모보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정치과정에서 보수주의적 think tanks가 주류 내지는 진보주

<sup>41</sup> Andrew Rich, "War of Ideas: Why mainstream and liberal foundations and the think tanks they support are losing in the war of ideas in American politics,"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Spring 2005), p. 20.

<sup>42</sup> *Ibid.*, p. 22.

의 재단과 그들이 지원하는 think tanks와의 아이디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이다.

<표 III-1> 주요 Think Tanks의 설립 년도

Think Tank	설립 년도
카네기재단	1919
미국외교협회	1921
브루킹스연구소	1927
미국기업협회 (미국기업연구소로 명칭 변경)	1938 (1962)
랜드연구소	1948
허드슨연구소	1961
전략국제문제연구소	1962
정책연구소	1963
도시연구소	1968
헤리티지재단	1973
케이트연구소	1977
미국평화연구소	1984



# IV

## Think Tanks의 역할



워싱턴 think tanks의 역할을 보여주는 한 예를 살펴보자.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물론 세계질서의 향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9·11 테러사건이 발생한 직후, 세계는 물론 미국에서는 왜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상징인 세계무역센터와 국방부가 공격당했는가, 누가 그러한 끔찍한 행위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가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세계의 언론인들이 미국의 think tank들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을 찾았고, 주요 외교안보정책 관련 think tank의 전문가들이 메이저 텔레비전 네트워크,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 언론매체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전파하였다.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think tank의 학자와 전문가들은 거의 모든 미디어를 통해 9·11 사태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해 이야기하며 여론을 주도하였다.<sup>43</sup> 부시 행정부 아래서 미국의 중동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think tanks의 역할에 대한 영국의 주요 일간지 가디언(*Guardian*)지의 다음과 같은 분석 기사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부시 행정부 국방부의 신보수주의자(neo-con)로서 강경노선 추창자인 펄(Richard Perle)의 주변에는 그의 노선에 동조하는 중동전문가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들이 텔레비전, 신문, 서적, 의회청문회 증언, 워싱턴의 오찬모임에서 중동문제에 대한 토론을 주도한다. 또한 이들이 AEI와 허드슨연구소(Hudson

---

<sup>43</sup> Donald E. Abelson, "Think Tanks and U.S. Foreign Policy: An Historical Perspective," *U.S. Foreign Policy Agenda*, Vol. 7, No. 3 (November 2002), p. 9.

Institute)의 중동연구실,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Washington Institute for Near East Policy), 중동미디어연구소, 중동포럼 등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의견 투입이나 여론을 주도한다. 미국의 대학들에는 1,400명 가량의 중동지역전문가들이 있으나, 이들의 목소리는 언론이나 정부에서 거의 들을 수가 없다. 대학에 있는 중동지역전문가들은 심지어 기본정보를 위해서도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워싱턴의 주요 think tanks에 있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만 들린다... 그들의 연구는 대학에서의 연구와는 매우 다르다. 즉, 그들의 연구는 전적으로 정부의 정책 형성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다.<sup>44</sup>

따라서 미국에서의 외교정책결정은 행정부가 주도하지만 대통령은 각종 이익단체의 주장을 비롯하여 여론의 흐름을 등한시할 수 없다. 닉슨 대통령처럼 외교문제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경우에는 대통령이 전략적 구상과 정책수행을 주도하지만 레이건 대통령처럼 그러한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국무장관, 안보보좌관 등 참모에 의존하거나 여론의 흐름 및 사안에 따라 반응하는 수동적인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sup>45</sup> 국제문제의 중심지로서 워싱턴에는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이외에도 평화 및 국제안보문제와 관련한 think tank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think tank들의 본부 또는 지부가 있다. 이들 기관은 국제안보문제와 관련한 미 정부기금 및 민간연구기금을 얻기 위하여 경쟁을 하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우드로 윌슨 국제연구센터

---

<sup>44</sup> Brian Whitaker, "US think tanks give lessons in foreign policy," *Guardian*, August 19, 2002.

<sup>45</sup> Hedrick Smith, *The Power Game: How Washington Works* (New York: Random House, 1988), p. 568.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의 조사에 따르면, 워싱턴에는 평화 및 국제안보문제 연구와 관련하여 420개 이상의 주요기관들이 있는데, 이 중 독립적인 연구기관만해도 80개 이상에 달한다.<sup>46</sup>

부시 1기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2003년 6월 말까지 국무부 내부의 think tank인 정책기획국 국장을 역임하고 2003년 7월부터는 미국의 대표적인 think tank인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회장으로 있는 하스(Richard N. Haass)는 정책기획국장으로 재임 당시에 think tank로부터 정책결정자들은 다섯 가지의 도움을 받는다고 설명하였다.<sup>47</sup>

## 1. 의제설정과 정책대안 제시

미국의 think tank의 기능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정책결정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새로운 사고’를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정책결정자들이 세상의 움직임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새로운 사고나 아이디어의 제시는 미국의 국가이익의 개념을 변경시키고, 정책우선순위를 조정하며,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제공하고, 정치

---

<sup>46</sup> Robert W. Janes, *Scholars' Guide to Washington, D.C., for Pea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5), pp. 181~234.

<sup>47</sup> Richard N. Haass, “Think Tanks and U.S. Foreign Policy: A Policy-Maker’s Perspective,” *The Role of Think Tanks in U.S. Foreign Policy, U.S. Foreign Policy Agenda*, Vol. 7, No. 3 (November 2002), pp. 6~8.

적·관료적 연대를 형성하며, 영구적인 제도의 설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think tanks는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정책결정자들에게 투입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채널과 마케팅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논문, 저서, 수시정책보고서 등의 간행·배포, 텔레비전 및 라디오 토론·좌담회 출연, 신문 칼럼 게재 및 인터뷰, 이슈 개요·사실 설명서 발간·배포,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등이다. 의회의 청문회는 정책투입에 영향을 미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공식 입장에 구애받지 않는 think tank의 학자들은 국제적인 도전이나 여러 정책 사안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들에 대해서도 솔직한 평가를 할 수 있다.

냉전체제 붕괴 이후의 세계질서에 대한 평가, 동서독 통일 이후의 유럽질서, 9·11 테러사태, 중동 전쟁 등을 비롯하여 자유무역질서, 이산화탄소 배출문제에 관한 교토협약체제, 국제사법재판소문제 등 다양한 국제적인 문제들이 의회의 청문회에서 다루어지며, 이 기회에 think tank의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의회의 입법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결국 행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반도문제와 관련하여 북핵 문제, 북한 인권문제, 한반도정세문제 등은 의회 청문회의 단골 메뉴이다. 하원의 국제관계위원회와 아·태소위원회, 군사위원회, 상원의 군사위원회, 외교위원회 등에서 한반도 관련 문제들이 주로 다루어진다.

미 의회 제109차 회기의 제1기인 2005년에 아·태소위원회에서 개최한 13차례의 청문회에서 북한문제 관련 청문회가 5차례나

되었다.<sup>48</sup> 2005년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는 2월 9일과 6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핵문제 및 6자회담 관련 청문회가 열렸다.<sup>49</sup> 상원 외교위원회가 세계의 모든 지역과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는 데, 북핵문제는 이라크, 이란 등 중동문제와 중국 문제 다음의 비중으로 다루어졌다. 이러한 청문회에서 증언하는 사람들은 해당 부분의 현직 관료를 비롯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한반도문제와 관련한 청문회에 참여해서 증언한 사람 중에는 부시 행정부 아래서 대외정책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신보수주의자(Neo-conservatives)의 한 사람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 박사가 두 차례나 참여하였다.

Think tank는 많은 경우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만, ‘아이디어의 공장’(idea factory)으로서 특히 어떤 역사적 시기나 중대한 사태는 외교정책 분야에서 새로운 사고를 투입하는 기회를 제공한다.<sup>50</sup>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발발 직후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는 전후 평화의 바람직한 기반을 탐구하기 위한 대규모의 전쟁과 평화 연구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이 연구프로젝트 참여자들은 독일 점령으로부터 국제연합(UN)의 창설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국무부를 위해 682개의 비망록을 생산했다.<sup>51</sup> 전쟁이 끝난 2년 뒤, 외교협회의 저널 ‘외교문제’

<sup>48</sup>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ouse.gov/international\\_relations/aphear.htm](http://www.house.gov/international_relations/aphear.htm)>.

<sup>49</sup> 미 상원 외교위원회 홈페이지 <<http://foreign.senate.gov/hearing.html>>.

<sup>50</sup> Richard N. Haass, “Think Tanks and U.S. Foreign Policy: A Policy-Maker’s Perspective,” p. 6.

<sup>51</sup> *Ibid.*, p.6.

(*Foreign Affairs*, July 1947)는 “소비에트의 행위의 원천”(The Sources of Soviet Conduct)이란 제목의 익명의 논문을 게재하였다.<sup>52</sup> 이 논문은 냉전시기 미국의 봉쇄정책의 지적 기반이 되었다. ‘외교문제’는 40여년이 흐른 1993년 여름호에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의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s)이란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는데, 동 논문은 탈냉전기의 미국의 외교정책에 관한 뜨거운 논의를 유발하였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의 국방부에 대한 테러는 미국에게는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기습공격에 맞먹는 쇼크였으며, 그 날은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sup>53</sup> 특히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미국식 가치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미국의 세기가 왔다고 주장하는 승리주의자들에게는 더욱 그랬다. 9·11 테러사태가 발생한 이후 많은 외교·안보 정책연구기관들이 테러와 미국의 안보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CSIS, 헤리티지재단, 브루킹스연구소 등 유수의 think tank들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미국이 국내외적으로 테러리스트의 위협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전략과 기구에 관한 정부 내 논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sup>54</sup> 헤리티지재단은 9·11 테러가 “테러의 시대에 새로운 형태의 전면전”이

<sup>52</sup> 이 논문의 실제 필자는 1944~1946년간 모스크바에 주재했던 미 외교관 케난(George Kennan)이며, 그는 국무부 정책기획국 초대 국장을 역임했다.

<sup>53</sup> Demetrios James Caraley, “Foreword from the Editor of *Political Science Quarterly*,” Demetrios James Caraley, ed.,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and U.S. Foreign Policy* (New York: The Academy of Political Science, 2002), p. vii.

<sup>54</sup> Richard N. Haass, “Think Tanks and U.S. Foreign Policy: A Policy-Maker’s Perspective,” p. 7.



라고 규정짓고 미국의 취약성이 노출되었으며 국토안보의 강화가 긴급히 필요하다면서 테러가 발생한 며칠 후에 수십 명으로 구성된 국토안보태스크포스(Homeland Security Task Force)를 출범시켜 여러 가지의 정책건의가 포함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출간하였다.<sup>55</sup> 동 태스크포스는 레이건 행정부에서 국가테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브레머(L. Paul Bremmer, III) 대사와 법무 장관이었던 미즈(Edwin Meese, III)가 주도하였다. 브레머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이라크 초대 행정관이 되었다.

대통령 선거캠페인과 정권인수 시기는 외교정책의 의제 설정을 위한 이상적인 기회이다. 헤리티지재단은 레이건 행정부 출범 직전에 종합적인 정책청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레이건 행정부의 의제 설정과 정책 대안 작성에 기여하였다.<sup>56</sup> 즉, 헤리티지재단이 1980년에 작성한 1,093페이지에 달하는 『리더십에 대한 요구』(*Mandate for Leadership*) 라는 제목의 책자는 레이건 행정부의 국내 및 대외정책의 많은 사안들에 대한 지침서가 되었다.<sup>57</sup> 이후 헤리티지재단은 대통령선거 및 중간선거 때마다 보수주의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하여 정책 청사진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화당에 건의한다.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 8년 기간 동안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헤리티지재단은 2000년과 2004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도 역시 정책청사진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안함으로써<sup>58</sup> 부시 후보의 선거

---

<sup>55</sup> Ambassador L. Paul Bremmer, III and Edwin Meese, III, *Defending the American Homeland* (Washington, DC: Heritage Foundation, 2002).

<sup>56</sup> Donald E. Abelson, *American Think-Tanks and their Role in US Foreign Policy*, p. 14.

<sup>57</sup> David D. Newsom, *The Public Dimension of Foreign Policy*, p. 147.

승리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한반도문제와 관련 브루킹스연구소는 제4차 6자회담 1단계 회담이 끝난 직후인 2005년 8월 11일 부시행정부에서 북한담당 특사를 역임한 프리차드(Jack Pritchard)대사 주관아래 “북한상황 보고: 제4차 6자회담 이후?”란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황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sup>59</sup>

한편, 주요 think tanks는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을 포함하여 국내외정책에서의 의제 설정을 위해 전·현직 고위정책담당자, think tanks의 학자 및 전문가, 학계, 기업계, 언론, 시민단체, 언론 등의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의제 설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헤리티지재단은 보수주의 공동체의 의제 설정을 위한 연례 자료은행(Resource Bank) 회의를 개최하는데, 2005년에는 4월 28~29일 양일 동안 “원칙으로 이끌기: 제한 정부와 자유 확산” (Leading from Principle: Limiting Government and Expanding Freedom)이란 주제 아래 의제 설정과 대안 창출을 위한 제 28차 회의를 개최하였다.<sup>60</sup>

---

<sup>58</sup> 2000년도의 청사진 보고서는 Stuart M. Butler and Kim R. Holmes (eds.), *Issues 2000: The Candidates's Briefing Book* (Washington, D.C.: The Heritage Foundation, 2000)이며, 2004년도의 청사진 보고서는 The Heritage Foundation, *Mandate for Leadership: Principles to Limit Government, Expand Freedom, and Strengthen America* (Washington, D.C.: The Heritage Foundation, 2005)이다.

<sup>59</sup> “North Korea Status Report: What's Next After Round Four of the Six-Party Talks?”

<sup>60</sup> <<http://www.heritage.org/About/Community/Resource-Bank-2005-agenda.cfme>>.

## 2. 정책 인재 공급

미국의 정책결정과정에서 think tanks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많은 think tanks에 소속되어 각 분야의 정책문제를 연구하는 학자 또는 전문가들 간에는 물론 행정 각부의 관련 정책담당자들과 긴밀한 정책협조를 위한 연계망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연계망의 형성은 미국의 think tank에 종사하는 연구원들이 행정부의 관료로 충원되는 핵심적 인력 풀(pool)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장관급을 비롯하여 차관, 차관보, 국장급 및 하위관료에 이르기까지 행정부의 관리로서 종사한 사람들이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자리를 이동하거나, 그 반대 경로를 통해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행정부의 관료로 충원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조지아주의 주지사로서 대통령이 된 카터(Jimmy Carter)는 중앙정부와의 연계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특히 뉴욕과 워싱턴의 정책연구기관에 의존하였다. 카터는 ‘동부의 권력복합체’(the Eastern Establishment)가 1973년 세운 삼각위원회(Trilateral Commission)의 회원으로 초대받았고,<sup>61</sup> 이를 통해 미국 정치의 주류집단과 연계를 맺었다. 카터가 대통령이 되자 삼각위원회는 곧 영향력 있는 정책기획기구로 명성을 쌓았는데, 그 초대 디렉터인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가 카터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되었으며 부통령 먼데일(Walter Mondale),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볼커(Paul Volcker) 등이 또한 삼각위원회 회원이었다.

특히 CFR은 카터 대통령 행정부 시기에 최소 54명의 회원들이

<sup>61</sup> 삼각위원회는 동부의 재력가문 출신인 체이스맨해튼은행 의장 록펠러(David Rockefeller)와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가 중심이 되어 창립되었다.

주택도시개발부, 보건·교육 및 복지부의 장관, CIA 국장, 국무차관, 국가안보부보좌관, 유엔대사 등 장관, 차관, 차관보 등 각급 수준의 관료로 충원되었으며, 역시 다수의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들이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국무차관, 재무차관보(국제경제담당), 보건·교육 및 복지부 차관보(기획·평가담당), 재무부차관보, 군비통제 및 군축국 국장보 등 행정부 고위관료로서 충원되었다.<sup>62</sup>

민주당 정부에 이어 등장한 레이건(Ronald Reagan) 공화당 행정부에서도 그의 대통령 선거캠페인 과정에서 기여한 정책자문 그룹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관, 차관, 차관보 등으로 충원되었다. 헤리티지재단과 후버연구소(Hoover Institution) 출신인 국가안보보좌관 알렌(Richard Allen)을 필두로 헤리티지재단, 후버연구소, 미국기업연구소(AEI), RAND 등 보수적 성향의 think tanks 출신들이 많이 기용되었다. 특히 AEI에서는 20명의 연구원이 백악관의 참모로 발탁되었다.<sup>63</sup> 레이건 행정부 8년 기간 동안 대표적인 보수적 think tanks의 연구원 약 200명이 풀타임, 고문 또는 자문 등의 형식으로 레이건 행정부에 참여하였다. 이 중 5개의 think tanks가 특히 인재 공급원이었는데, 후버연구소 55명, 헤리티지재단 36명, AEI 32명, 현존위협위원회(Committee on the Present Danger) 32명, CSIS 18명 등이다.<sup>64</sup>

미국기업연구소(AEI)의 경우 레이건 행정부 아래서도 중요한

---

<sup>62</sup> Donald E. Abelson, *American Think-Tanks and their Role in US Foreign Policy*, pp. 10~11.

<sup>63</sup> David D. Newsom, *The Public Dimension of Foreign Policy*, p. 150.

<sup>64</sup> Donald E. Abelson, *American Think-Tanks and their Role in US Foreign Policy*, p. 15.

직책에 연구진들이 충원되었으나,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 행정부에 들어 두드러진다. 무엇보다도 체니(Dick Cheney)부통령은 아버지 부시(George H.W. Bush) 행정부의 국방장관을 역임한 후 1993~95년까지 AEI의 연구원이었으며, 그 후에도 계속 관계를 맺고 있었다. 체니 부통령의 부인도 1993년부터 AEI의 연구원으로 있다. 부시 1기 행정부 아래서 군비통제 및 국제안보 담당 국무차관으로서 북핵 문제에 대한 강경노선의 대표적인 주창자였던 볼튼(John R. Bolton)은 임명 직전까지 AEI의 수석부소장이었으며,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장을 역임하고 여전히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펄(Richard Perle)은 1987년 이후 AEI의 연구진으로 있다.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의 경우 국내정책연구소장을 역임(1997~2001)한 차오(Elaine Chao)가 2001년 노동부 장관이 되었으며, 2002년 1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국제기구국 담당 차관보로 일한 홈즈(Kim R. Holmes)는 1985년부터 헤리티지재단의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외교·국방정책연구실장, 부소장 등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2001년 이후 국방부 공보담당 수석부차관보인 디 리타(Lawrence Di Rita)는 1990년대 중반 헤리티지재단 외교정책 및 국방연구 부실장을 지낸 바 있다.

CSIS도 존슨(Lyndon Johnson) 행정부 이래 역대 행정부에 고위급 정책결정자를 공급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동 연구소 미래검토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었던 울시(James Woolsey)가 CIA국장으로 충원되었으며, 유럽연구실장이었던 헌터(Robert Hunter)는 클린턴 행정부의 NATO 대사가 되었다. 부시 1기 행정부 아래서 한반도문제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었던 국무부의 동아·태 담당 국

무차관보 켈리(James Kelly)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회장이었다. 2003년 3월부터 정보 담당 국방차관을 맡고 있는 캄본(Stephen A. Cambone)은 1990년대 중·후반에 CSIS의 선임연구원이었으며, 2001년 7월부터 국제안보문제 담당 국방차관보인 로드먼(Peter W. Rodman)도 닉슨 및 포드대통령 행정부의 국가안보회의(NSC) 근무를 거쳐 CSIS의 연구원을 역임하였다.

클린턴 행정부의 국무장관으로서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면담한 올브라이트(Madeleine Albright)는 전직 국가정책연구소(Center for National Policy) 소장이었으며,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로스(Stanley O. Roth)는 USIP 연구실장이었다. 부시 행정부 1기와 2기에 걸쳐 민주주의·인권 등 지구적 보편문제 담당 국무차관인 도브리안스키(Paula J. Dobriansky)는 외교협회(CFR) 수석부회장 겸 워싱턴사무소 책임자였으며, NSC에서 아시아담당 국장, 선임국장으로서 한반도문제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린(Michael Green)은 국방연구소(IDA)와 외교협회(CFR)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있었다.

부시 1기 행정부에서 2년 6개월 동안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을 역임하고 2003년 7월부터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회장을 맡고 있는 하스(Richard N. Haass)의 경력은 think tank 연구원이 정부의 정책담당자가 되고 다시 연구원으로 순환하는 전형적인 예를 보여준다. 즉, 그는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국제전략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연구원, 하버드대 케네디정부대학원 강사, 상원 입법보좌관, 국방부, 국무부 관료, 카네기국제평화기금(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선임연구원 등을 거쳐 아버지 부시(George H.W. Bush) 대통령 행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통령특별보좌관 겸 근동·남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을 역임하였다. 이후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부소장 겸 외교정책연구실장을 거쳐 부시 1기 행정부에서 대사직급(차관보급)의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으로 임명되었다.<sup>65</sup>

Think tanks의 연구진들은 정부의 주요 직책에 임명되어 정책결정의 일선에서 활동하다가 다시 연구소로 복귀하거나 다른 직책으로 이동한다. 또 어떤 한 정권에서 주요 정책결정 직위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정권이 교체되어 워싱턴과 기타 지역의 think tanks로 자리를 이동하기도 한다. Think tanks는 전직 관료들에게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공식 경험으로부터의 통찰력을 활용하거나 외교안보정책 논의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비공식적인 외교정책결정 영향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2년 7월부터 브루킹스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 스토틀(Strobe Talbott)은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1994-2001)을 역임하였다. 2005년 현재 AEI 연구진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린지(Lawrence Lindsey), 프럼(David Frum), 유(John Yoo)는 부시 1기 행정부에서 각각 대통령경제정책보좌관 겸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경제연설문 담당 대통령특별보좌관, 법무부 부차관보를 역임하였다. 2000년 1월부터 CSIS의 소장을 맡고 있는 함레(John J. Hamre)는 클린턴 행정부의 국방부에서 차관과 부장관을 역임하였으며, 선임부소장 겸 국제안보연구실장인 캠벨(Kurt Campbell)은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아·태 담당 부차관보로서 동아·태

---

<sup>65</sup> <<http://www.cfr.org/bio.php?id=3350>>.

전략보고서<sup>66</sup> 작성의 책임자였다. 같은 연구소 선임고문으로 있는 아인혼(Robert J. Einhorn)은 클린턴 행정부 말기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였다. 2003년부터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브룩스(Peter Brookes)는 부시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아·태 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했다.

이와 같이 think tanks 연구원에서 정부의 외교안보정책결정자가 되고 다시 think tanks의 연구원으로 돌아오는 ‘회전문’(revolving door) 현상은 미국 외교안보정책결정과정의 매우 특이한 양태이다. Think tanks의 연구진들이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직위에 충원되는 것은 곧 각 연구기관들이 자기의 정책아이디어를 정부의 의제에 반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다 준다. 주요 외교안보정책결정 직위에 취임하는 “사람들이 정책이다”<sup>67</sup>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각 think tanks는 정책인재의 공급처 역할을 하고 있다.

### 3. 정책공동체 형성

주요한 외교안보사안이 대두되었을 때, 정책결정자들은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대안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관련 전문가집단의 이해를 구하거나 컨센서스를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think tanks는

---

<sup>66</sup> Department of Defense, *The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November 1998.

<sup>67</sup> James A. Smith, *The Idea Brokers: Thinkers and the Rise of the New Policy Elite*, p. 207.



정책결정자들이 관련 정책전문가들 사이에 공동의 이해를 구축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Think tanks는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이 특정 사안에 대한 평가, 그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전략 등을 결정하기 전에 공식적, 비공식적 방법으로 관련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사전에 교감을 넓히는 것이다.

Think tanks의 전문가들은 학계에서뿐만 아니라 정계, 행정부처, 언론계, 비정부단체, 국제기구, 군 등 다양한 분야로부터 충원된다. 따라서 이들은 새로운 ‘전문가 계급’을 구성한다.<sup>68</sup> 이들은 정책전문가집단으로서 전에는 아마추어나 공무원조직의 승진을 통해서나 정치적 임명을 통해 정책결정의 지위에 오른 사람들에 의해 다루어졌던 문제들을 이슈네트워크 속에서 자신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다룬다.<sup>69</sup>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러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외교정책에 관한 여론 작성, 형성 및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 즉 일종의 ‘외교정책공중’(foreign policy public)이 형성되는 것이다.<sup>70</sup> 다시 말해 think tanks는 외교안보문제에 관한 정책공동체를 형성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 Think tanks의 전문가들은 상아탑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정책결정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투입시키려는 ‘행동하는 지성인’(action intellectuals)<sup>71</sup>이라고 할 수도 있다.

<sup>68</sup> David D. Newsom, *The Public Dimension of Foreign Policy*, p. 158.

<sup>69</sup> David M. Ricci, *Transformation of American Politics: The New Washington and the Rise of Think Tank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3), p. 142. quoted in David D. Newsom, *The Public Dimension of Foreign Policy*, p. 158.

<sup>70</sup> Richard N. Haass, “Think Tanks and U.S. Foreign Policy: A Policy-Maker’s Perspective,” p. 8.

헤리티지재단의 회장 풀너(Edwin J. Feulner)의 설명에 따르면 헤리티지재단의 역할은 첫째, 워싱턴 공공정책공동체, 특히 의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둘째로 행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셋째로 전국 뉴스매체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sup>72</sup>

일반적으로 외교정책공동체 내에서 결정적인 지지기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어떠한 주요한 외교정책 이니셔티브도 유지되기 어렵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주요 think tanks의 세미나, 공개강연회, 정책간담회 등의 이벤트를 활용하여 새로운 정책구상을 발표하거나 현재의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책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반응을 시험적으로 떠보기도 한다.

또한 미국 외교안보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이와 같은 think tanks의 역할에 따라서 외국의 대통령, 총리 등을 비롯한 주요 고위정책결정자들이 미국의 정책공동체에 자국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주류 권력복합체(establishment)에 대한 접근으로서 헤리티지재단, 미국기업연구소, 브루킹스연구소,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등 워싱턴의 심장부에 있는 유수의 think tanks를 활용하고 있다. 많은 think tanks중에서도 워싱턴, 뉴욕을 비롯해서 미국의 주요 도시들에서 매년 수 백회 이상의 모임을 주선하는 외교협회(CFR)는 외교정책공중의 형성과 확산 역할을 능숙하게 수행하고 있다.<sup>73</sup> CSIS의 경우는 델러스, 휴스턴, 뉴욕과 워싱턴에서 매년

<sup>71</sup> 이 용어는 James A. Smith, *The Idea Brokers: Thinkers and the Rise of the New Policy Elite*의 제6장의 제목(Action Intellectuals)에서 차용한 것이다.

<sup>72</sup> Phil McCombs, "Building a Heritage in the War of Ideas," *The Washington Post*, October 3, 1983. quoted in Donald E. Abelson, *American Think-Tanks and their Role in US Foreign Policy*, p. 56.

<sup>73</sup> Richard N. Haass, "Think Tanks and U.S. Foreign Policy: A Policy-Maker's

3~4 차례의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CSIS의 학자 및 전문가들과 지역의 기업인, 언론, 전문가 등 여론지도층 간의 정책포럼을 통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sup>74</sup>

정부나 의회만 워싱턴의 think tanks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외교안보정책 사안들이 특정 지역이나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또 국내외적 경계를 넘어서는 사안들이 늘어나면서 국제기구, 국가 간 협력기구, 국제 NGOs, 다국적 기업, 우수한 언론 등도 think tanks의 창구를 활용하고 있다. 즉, think tanks는 이와 같이 외교정책의 범세계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 4. 교육·홍보활동

모든 정책연구기관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어나 정책제안, 연구결과들을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알리려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책연구기관의 전문가와 학자들은 TV 방송 토론 및 논평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신문, 저널 등에 기고하여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지지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외교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 전문가들은 때로는 미 외교정책의 새로운 어젠다(agenda)를 제시하여 정부의 정책을 이끌기도 한다. 또한 이들 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책자와 저널, 연구보고서 등은 미국의 많은 대학에서 참고서로 활용되고 있다.<sup>75</sup>

---

Perspective,” p. 8.

<sup>74</sup> <[http://www.csis.org/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66&Itemid=109](http://www.csis.org/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66&Itemid=109)>.

또한 많은 think tank들이 외교안보문제, 국제문제에 대한 공개 강좌 등을 개최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에 대해 공개적인 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워싱턴에 위치한 think tank들은 수시로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한다. 이러한 행사들은 초청된 인사들만 참여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나,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의 참가를 허용하는 세미나, 학술회의, 공개강연회 등도 많이 열린다. 또한 매우 공식적이고 형식을 갖춘 회의 이외에도 점심시간을 이용한 ‘brown-bag lunch’ 회의<sup>76</sup>와 같은 모임을 통하여 현안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 교환뿐만 아니라 정책방향, 정책대안들을 수시로 토론했다. 이러한 think tanks의 활동은 일반 시민들에게 국제문제, 외교안보문제 등에 대하여 교육시킴으로써 시민문화(civic culture)의 육성에 기여한다.

한반도문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한 정책연구기관에서 열리는 한반도문제관련 세미나나 토론회 등에는 관련 전문가, 학자, 행정부관리, 의회관리, 의원 및 의원보좌관, 언론인 등이 초청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관심을 가진 일반인들의 참여도 허용된다.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한반도문제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되고, 이는 미국 사회에서 한반도문제와 관련한 여론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Think tanks는 또한 새로운 세대에 대한 교육활동도 중요한 기능으로 간주하고 있다. 많은 think tanks가 대학들과 연계하여 워

<sup>75</sup> David D. Newsom, *The Public Dimension of Foreign Policy*, p. 160.

<sup>76</sup> ‘brown-bag lunch’ 회의는 회의 참가자들이 각자 가벼운 점심식사를 지참하여 식사를 하면서 회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회의를 주최하는 측에서 샌드위치와 같은 간단한 점심식사를 준비한다.

싱턴 인턴프로그램(Washington Intern Program)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한 차세대들이 이러한 인턴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공 직무에 진입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헤리티지재단은 의회펠로우 프로그램, 인턴쉽 프로그램, 직업은행, think tanks 관리프로그램, 자료은행, online 보수주의포럼 운영 등을 통해 보수주의 공동체의 영향력 확산뿐만 아니라 차세대 보수주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데 특히 공을 들이고 있다.<sup>77</sup>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헤리티지 재단은 대학원 수준의 보수주의 교과목 개설을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많은 영리한 젊은 활동가들이 대학에 머무는 것보다는 보수주의 정책네트워크에 동참하는 것이 정치적 경력을 쌓고 공공 부문에 진출하는 빠른 길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sup>78</sup> 이러한 헤리티지재단의 활동은 전문가 교육·훈련은 대학원의 몫이고 전문가 경력은 전통적인 방식의 아카데미아를 통해 쌓인다는 전통적인 연구기관과는 다른 새로운 think tanks의 모델을 가져왔다.<sup>79</sup>

## 5. 갈등 완화를 위한 매개

Think tank는 민감한 이슈에 대하여 대화의 장을 제공·후원하고 갈등적인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에 대해 제3자로서 중재를

<sup>77</sup> 헤리티지재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heritage.org/About/Community>>.

<sup>78</sup> James A. Smith, *The Idea Brokers: Thinkers and the Rise of the New Policy Elite*, p. 207.

<sup>79</sup> Benjamin Hart, ed., *The Third Generation: Young Conservative Leaders Look to the Future* (Washington, D.C.: Heritage Foundation, 1987).

제공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sup>80</sup> 예를 들어 미국평화연구소(USIP) 사업 중의 하나는 의회의 위임에 의하여 갈등 당사자 내부 및 당사자 간의 대화를 조직하고 지원하며, 미국의 국가이익과 이해관계에 관련된 지역에서 발생하거나 지속되고 있거나 또는 새로운 분쟁의 해결을 위한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다.<sup>81</sup> 이에 따라서 USIP는 비공식적인 “Track II” 협상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오랜 분쟁을 중재하는 미국의 관리들을 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USIP의 갈등중재프로그램의 최근의 예로는 수단프로그램이 있다.<sup>82</sup> 즉, USIP는 수단 내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 뿐만 아니라 수단 내 다양한 집단을 참여시키는 갈등해결훈련프로그램과 리더십개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종교간 관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독교와 무슬림 지도자들 간의 ‘신앙간 대화’(Interfaith Dialogue)와 수단 내 남북 간 및 남부 내 경쟁 세력 간 ‘Track II’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다. USIP는 마케도니아(Macedonia), 보스니아 및 헤르체고비나(Bosnia and Herzegovina), 코소보(Kosovo), 크로아티아(Croatia), 세르비아(Serbia), 몬테네그로(Montenegro), 알바니아(Albania) 등이 있는 발칸반도의 분쟁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다른 전통적인 think tank들도 자신들의 사업에 예방 외교, 갈등관리 및 갈등해결을 위한 활동을 포함시키기도 한다.<sup>83</sup>

---

<sup>80</sup> Richard N. Haass, “Think Tanks and U.S. Foreign Policy: A Policy-Maker’s Perspective,” p. 8.

<sup>81</sup> <<http://www.usip.org/aboutus/mission.html>>.

<sup>82</sup> “Sudan Programs” <<http://www.usip.org/religionpeace/sudan.html>>.

<sup>83</sup> Richard N. Haass, “Think Tanks and U.S. Foreign Policy: A Policy-Maker’s Perspective,” p. 8.

예를 들어 카네기재단은 1980년대 중반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의회 의원 및 정부 관료 뿐만 아니라 정치인, 목사, 기업가, 노동자 대표, 학자, 추방된 해방 운동가들을 워싱턴으로 초청하여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8년에 걸쳐 진행된 이러한 모임을 통하여 갈등 당사자들 사이에 첫 대화가 시작되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미래에 대한 이해를 구축할 수 있었다. CSIS도 유고슬라비아 연방 해체 이후, 인종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하였으며, 그리스와 터키 간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중동 평화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다.<sup>84</sup>

---

<sup>84</sup> CSIS 홈페이지 참조 <[http://www.csis.org/index.php?option=com\\_csis\\_proj&Itemid=44](http://www.csis.org/index.php?option=com_csis_proj&Itemid=44)>.





# V

## 워싱턴 Think Tanks와 한반도문제



## 1. Think Tanks의 영향력 순위

미국의 정책결정과정에서 think tanks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렵다.<sup>85</sup> think tanks의 정책제안이 제도적으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의 공식 메커니즘에 그대로 투영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인 장치 이상으로 think tanks는 미국의 정책결정과정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과 그의 참모집단, 행정부, 의회, 정부 각 부처, 언론, 일반 여론 등이 모두 정책연구기관의 관련 보고서나 정책제안, 전문가들의 TV토론 및 신문 칼럼 등으로부터 노출되어 있고, 공식적, 비공식적인 인적 연계망과 정책 연계망을 통하여 think tank의 견해들이 정책결정과정에 투입된다.

Think tanks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은 대통령을 비롯하여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최고위정책결정자들이나 그 이하 수준의 정책결정자들이 think tanks를 자신들의 정책을 널리 알리는 창구로도 많이 활용한다는 점이다. 2005년도에 들어 행해진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먼저 부시 대통령은 6월 30일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행사에 기조연설자로 참여하여 그 다음 주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질 아프리카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연설하였다.<sup>86</sup> 국무부 장관 쥘릭(Robert Zoellick)은 5월 16일 헤리

---

<sup>85</sup> David D. Newsom, *The Public Dimension of Foreign Policy*, p. 159.

<sup>86</sup> "President Discusses G8 Summit, Progress in Africa," Meyer Auditorium

티지재단에서 미국-중미-도미니카 자유무역협정(CAFTA)이 동 지역의 자유증진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 연설하였다.<sup>87</sup> 부시 1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에서 강경노선의 선두에 섰던 볼튼(John R. Bolton)을 배출한 미국기업연구소에서는 7월 12일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 버냉키(Ben S. Bernanke)가 부시 대통령의 2004년 선거공약의 하나였던 소유권시대(ownership era)<sup>88</sup>와 관련하여 지구화의 세계경제 시대에 미국 노동자들의 소유권과 경제안보에 관해 부시 행정부의 정책적 입장에 대해 연설하였다.<sup>89</sup> 버냉키는 2005년 10월 24일 앨런 그린스펀 후임으로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일컬어지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의장 후임으로 지명되었다.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 해들리(Stephen Hadley)는 2005년 10월 18일 외교협회에서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의 적의 성격과 자유와 민주주의가 테러와의 전쟁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가에 대해 연설하였다.<sup>90</sup> 특히 헤리티지 재단에서는 2005년 한 해 동안 21세기의 군사전환문제와 관련하여 육군·해군·공군을 비롯하여 예비군, 방위군 등 각 군의 장관이나 참모총장, 사령관 등을 초청하여 일련의 세미나를 개최하였

---

at Freer Gallery, Washington, D.C., June 30, 2005.

<sup>87</sup> The Honorable Robert Zoellick, Deputy Secretary of State, “From Crisis to Commerce: CAFTA and Democracy in our Neighborhood,” May 16, 2005.

<sup>88</sup> The Platform Committee, 2004 Republic National Convention, *2004 Republic Party Platform: A Safer World and a More Hopeful America*, August 26, 2004 <www.gopconvention.com>.

<sup>89</sup> Ben S. Bernanke, Chairman of the President’s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Skills, Ownership, and Economic Security,” Tuesday, July 12, 2005.

<sup>90</sup> Remarks by National Security Advisor Stephen Hadley to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New York, October 18, 2005.

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맥케인(John McCain) 상원의원과 역대 부통령 중 외교안보정책과 관련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체니(Dick Cheney) 부통령은 각각 11월 10일과 11월 21일에 미국기업연구소에서 이라크 및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대해 연설을 하였다.<sup>91</sup>

이와 같이 고위급의 정책결정자들이 주요 think tanks를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설명의 자리로 활용하는 것은 think tanks가 미국 민주주의 정책결정과정의 주요 역할자로 자리 잡고 있음을 말해 준다. 앞 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think tanks는 의제의 설정에서부터 정책 대안의 제시와, 정보의 확산 및 정책 여론의 형성에 이르기까지 정책결정과정에 중요한 행위자로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시대에 think tanks의 전문가들은 주요 국제문제 및 정책 사안들에 대해 미국의 각종 미디어를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아카데미아와 정부의 중간 영역에서 정책결정에 깊이 관여하려고 하는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참여하면서 정부의 주요 직위로 진출하려는 경향의 증대에 따라서 think tanks 학자/전문가들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으나, 주요 think tanks의 학자/전문가들은 자신들의 전문성과 객관성에 대한 평판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sup>92</sup>

특히 워싱턴의 think tanks와 그 소속 학자/전문가들이 미국의 외교안보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장관급을 비롯하여 부장관,

---

<sup>91</sup> An Address by Senator John McCain, "Winning the War in Iraq," Wohlstetter Conference Center, AEI, November 10, 2005; A Speech by th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raq and the War on Terror," Wohlstetter Conference Center, AEI, November 21, 2005.

<sup>92</sup> David D. Newsom, *The Public Dimension of Foreign Policy*, p. 160.

차관, 차관보 및 그 이하의 관료에 이르기까지 행정부 관료가 think tanks의 연구원으로 자리를 이동하고, 역으로 think tanks의 연구원이 행정부 관료가 되는 ‘임무교환’(swapping jobs)이 일상화되어 있는<sup>93</sup> 미국적 현실에서 더욱 중요하게 나타난다. 정권 교체기에는 인물의 충원뿐만 아니라 정책의 종합 청사진을 제공함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미국의 국가전략과 정책방향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수 백 개에 달하는 미국의 think tanks중에서도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think tanks가 있다. <표 V-1>은 1997년에 조사된 상위 think tanks의 이데올로기 성향과 영향력 및 신뢰도에 대한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이데올로기적 성향의 측면에서 보면 보수 또는 중도 성향의 think tanks가 진보적인 성향의 think tanks보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최상위에는 보수 성향의 think tanks가 자리를 잡고 있다. 특히 외교·안보정책 분야를 다루지 않는 think tanks를 제외한다면, 상위 10위까지의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 think tanks 중에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think tank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영향력 1위로 평가된 헤리티지재단에 이어 2위의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 브루킹스연구소의 경우는 의회의 보좌진 및 저널리스트들의 평가에서는 다소의 진보주의적 성향을 띤 연구기관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표 V-2>에서 보여주듯이 2003~2004년도의 또 다른 조사에서는 브루

---

<sup>93</sup> Robert E. Hunter, “Think Tanks: Helping to Shape U.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U.S. Foreign Policy Agenda* (Electronic Journal of the Department of State), Vol. 5, No. 1 (March 2000) <<http://usinfo.state.gov/journals/itps/0300/ijpe/pj51hunt.htm>>.

<표 V-1> 주요 Think Tanks의 이데올로기 성향, 영향력 및 신뢰도 평가, 1997

Think Tank	이데올로기 성향	의회 보좌진 및 저널리스트 평가 이데올로기 성향	영향력	신뢰도
헤리티지재단	보수	보수(1)	1	9
브루킹스연구소	중도	진보(6)	2	1
미국기업연구소	보수	보수(3)	3	3
케이토연구소	보수	보수(2)	4	10
예산·정책우선순위센터	진보	진보(3)	5	8
랜드연구소	중도	중도	6	2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중도	중도	7	6
진보정책연구소	중도	진보(4)	8	13
경제정책연구소	진보	진보(7)	9	16
후버연구소	보수	보수(5)	10	11
도시연구소	중도	진보(1)	11	12
외교협회	중도	중도	12	4
국가정책센터	진보	중도	13	20
전국경제연구소	중도	중도	14	7
허드슨연구소	보수	보수(6)	15	14
국제경제연구소	중도	중도	16	18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중도	중도	17	5
이성재단	보수	보수(8)	18	24
경쟁기업연구소	보수	보수(4)	19	19
미래를 위한 자원	중도	중도	20	17
정치·경제연구합동센터	진보	중도	21	15
맨하탄연구소	보수	보수(7)	22	23
세계감시연구소	진보	진보(2)	23	22
정책연구소	진보	진보(5)	24	21
경제전략연구소	중도	진보(9)	25	25
세계자원연구소	진보	진보(8)	26	26
진보·자유재단	보수	보수(9)	27	27

참고: ( )안의 숫자는 각각 보수, 진보 성향의 순위를 말함.

출처: Andrew Rich, *Think Tanks, Public Policy, and the Politics of Expertis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p. 84~85, p. 230의 표를 기초로 작성.

킹스연구소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이 중도 성향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결국 진보주의적 성향을 가진 think tanks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클린턴 2기 행정부시기에 의회의 보좌진과 언론은 이데올로기적 think tanks 중에서 보수적인 think tank가 진보적 think tank보다 훨씬 더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였다.<sup>94</sup> 이러한 경향으로 볼 때, 보수적 이데올로기의 특성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 정부에서는 당연히 보수적 think tank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작용함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표 V-3>에서 증명된다. 즉, 2003년과 2004년도에 미디어에 인용된 횟수로 본 영향력을 보면, 보수 또는 중도-보수 성향의 think tanks의 비중이 50%를 차지한 데 반하여 진보 또는 중도-진보 성향의 think tanks의 비중은 각각 13%와 16%에 머물고 있다.

영향력 순위에 나타난 think tank들을 보면 think tanks 발전사에서 검토된 기관들이 대체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디어의 인용 빈도수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1997년도의 영향력 평가는 2003년과 2004년의 미디어 인용 순위 평가와 정(正)의 상관관계에 있으며, 이는 결국 영향력이 높을수록 미디어의 인용 빈도도 높은 것이다.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미국기업연구소(AEI), 케이토연구소(Cato Institute), 외교협회(CFR),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랜드연구소(RAND), 카네기국제평화

---

<sup>94</sup> Andrew Rich, *Think Tanks, Public Policy, and the Politics of Expertise*, pp. 78~79.



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허드슨연구소(Hudson Institute) 등 이미 잘 알려진 think tanks가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향력의 측면에서 가장 높은 기관으로 평가된 헤리티지재단은 1997년의 조사(표 V-1)에서 보면 신뢰도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트연구소의 경우도 영향력과 신뢰도에서 다소 그 순위의 차이가 나타났다. 두 기관 모두 보수주의 입장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기관이다. 신뢰도의 측면에서는 상위 10위 이내의 중도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1997년의 조사와 2003~2004년의 조사에서 USIP는 모두 빠졌는데, 이는 연구와 시민교육, 프로젝트 확산 등에 있어서는 민간 think tank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위상이 연방 기구이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표 V-2> Think Tanks의 미디어 인용 순위, 2003~2004

순위	Think Tank	이데올로기 성향	2004년	2003년	변화율 (%)
1	브루킹스연구소	중도	4,724	4,675	1
2	헤리티지재단	보수	3,114	3,035	3
3	미국기업연구소	보수	2,902	2,604	11
4	외교협회	중도	2,265	3,206	-29
5	케이토연구소	보수	2,241	1,851	21
6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보수	1,873	2,320	-19
7	랜드연구소	중도-보수	1,694	1,427	19
8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중도	1,399	1,210	16
9	경제정책연구소	진보	1,386	1,083	28
10	후버연구소	보수	1,000	750	33
11	도시연구소	중도-진보	991	883	12
12	가족연구협회	보수	914	742	23
13	미국진보센터	중도-진보	881	259	240
14	공공성실센터	진보	710	439	62
15	캘리포니아중도파 공공정책연구소	중도	587	565	4
16	맨하탄연구소	보수	516	487	6
17	국제경제연구소	중도	483	417	16
18	예산·정책우선순위센터	진보	428	635	-33
19	허드슨연구소	보수	388	342	13
20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	중도-보수	356	497	28
21	정치·경제연구합동센터	진보	305	147	107
22	신아메리카재단	중도	289	181	60
23	전국정책분석센터	보수	287	188	53
24	경제·정책연구센터	진보	283	213	33
25	미주대화	중도	281	158	78

출처: Michael Dolny, "Right, Center Think Tanks Still Most Quoted,"  
*Extra* (May/June 2005) <<http://www.fair.org/index.php?page=2534>>.

<표 V-3> 이데올로기별 Think Tanks의 미디어 인용 빈도 2003~2004

이데올로기 성향	2004년	2003년
보수 또는 중도-보수	15,285 (50%)	14,243 (50%)
중도	10,028 (33%)	10,412 (37%)
진보 또는 중도-진보	4,984 (16%)	3,659 (13%)
총 계	30,297 (100%)	28,314 (100%)

출처: Michael Dolny, "Right, Center Think Tanks Still Most Quoted,"  
*Extra* (May/June 2005) <<http://www.fair.org/index.php?page=2534>>.

## 2. 주요 Think Tanks의 한반도문제 관련 활동

북핵 문제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영향력은 과거에 있어서나 현재에 있어서 매우 크다. 과거 냉전시기에 미국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think tanks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관심도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워싱턴 집단'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것처럼 한반도문제에 대한 think tanks의 역할도 늘어났다. Think tank의 연구원들은 미국의 한반도정책을 연구하면서 연구보고서 제출, 토론, 자문, 신문에 의견제출 등의 방법을 통하여 미 행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한반도문제에 관한 연구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들은 공적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공적연구기관은 의회 또는 행정부에 의해 설립된 think tanks로서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미국평화연구소(Unites States Institute of Peace), 우드로 윌슨 국제연구센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국방연구소(Institute for Defense Analysis) 등이 있는데, 이들 기관들은 의회나 행정부의 예산지원을 받기 때문에 특정한 정책적 선호를 표명하지 않는다.

민간 think tanks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은 헤리티지재단, 브루킹스연구소, 미국기업연구소, 외교협회,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케이트연구소, 허드슨연구소, 랜드연구소 등이 우리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다. 이 밖에도 미국대서양협회(Atlantic Council of the United States),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진보정책연구소(Progressive Policy Institute) 등이 있다. 이 중 랜

드연구소는 주로 국방·안보문제 등을 미 국방·군사당국과의 계약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 연구기관 중에는 헤리티지재단과 같이 보수주의(conservatism) 내지는 공화당(Republican Party) 편향의 정책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기관도 있으나, 대부분이 비당파적(nonpartisan) 내지는 초당파적(bipartisan)인 정책 연구 지향을 표명하고 전문성과 객관성에 대한 평판을 지키려고 한다.<sup>95</sup> 이 중 앞 절에서 검토된 주요 think tank중에서 외교안보문제를 다루며 특히 한반도문제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연구소들의 활동을 주요 연구물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가.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

1970년대 보수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출범한 헤리티지재단은 다른 어떤 think tank들과는 달리 노선(보수주의)을 분명하게 표명하고, 그 노선을 대변하며 그를 반영하는 정책대안을 가장 활발하게 주창하는 연구소이다. 레이건 대통령과 그를 이은 아버지 부시(George H.W. Bush) 대통령의 공화당 행정부 시절에 많은 영향력을 투입한 헤리티지재단은 8년의 민주당 행정부 시절 의회의 다수당을 점한 공화당의 입법과정에 역시 많은 영향력을 투입하였으며, 아들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이 집권한 공화당 행정부에서 미국기업연구소와 함께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

<sup>95</sup> David D. Newsom, *The Public Dimension of Foreign Policy*, p. 160.

헤리티지재단은 2005년 현재 동북아시아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sup>96</sup> 즉, 동북아시아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두 나라인 일본과 한국이 있다. 이 두 국가는 경제적으로 강한 민주주의나라들로서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닳이지만 북한으로부터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한반도의 지표로서, 남한은 국내총생산(GDP) 6,779억 달러로 세계 11위의 경제이며 미국의 7번째 교역대상국(수출 350억 달러, 수입 220억 달러)이고, 비무장지대(DMZ)는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이 밀집된 곳이며 북한은 세계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은 GDP의 25%인 14억 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한다. 이러한 평가를 배경으로 헤리티지재단은 한반도문제와 관련, ① 미국은 이 지역의 동맹국과 미군을 위한 다른 방위 수단을 찾을 것, ② 북한의 점증하는 안보위협에 따라서 미국은 일본과 다른 동맹국들과 미사일방위협력을 확대할 것, ③ 미국은 북한이 먼저 자신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양자협상에 임해서는 안 되며, 지역의 동맹국 및 협력국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것, ④ 미국은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함께 북한이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포기할 때까지 에너지 및 다른 재정지원을 축소할 것, ⑤ 미국은 마약, 위조지폐, 대량살상무기를 포함 불법적인 물질의 거래를 막기 위해 확산방지구상(PSI) 아래서 동북아에서의 다자협력을 지속할 것, ⑥ 미국과 일본 및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지역에서 미사일방어 프로그램 같은 대안의 방위전략

<sup>96</sup> <<http://www.heritage.org/research/features/issues2004/northeast-asia.cfm>>.

을 추구할 것 등을 정책 방안으로 권고하고 있다.

헤리티지재단은 매 선거 때마다 보수주의 입장에서 후보자들을 위한 이슈 분석집을 발간해오고 있는데, 2000년 초에 대통령 및 의회선거를 앞두고 『이슈 2000: 후보자에 대한 브리핑』을 발간하였다.<sup>97</sup> 동 보고서에 따르면, 냉전의 종식이 강대국 간의 경쟁을 종식시킨 것은 아니며, 유럽, 러시아, 중국 및 일본이 제각기 미국의 외교정책 목표에 도전하고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외교정책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세계의 잠재적 강대국들 간의 경쟁과 협력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98</sup> 미국의 아시아지역에 대한 정책 중에서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물론 북한의 호전성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였다.<sup>99</sup>

동 보고서는 클린턴 행정부가 동아시아지역, 특히 전통적인 동맹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등한시하였으며, 따라서 새 행정부는 경제신장, 민주주의 확산 이외에도 강력한 안보를 중시해야 할 것임을 권고하였다. 미국이 중국과 관계를 개선해야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도전자이며, 북한은 여전히 믿을 수 없는 국가로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제네바합의에 따른 북한측의 의무 불이행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핵 및 미사일프로그램을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 공산주의정권

<sup>97</sup> Stuart M. Butler and Kim R. Holmes (eds.), *Issues 2000: The Candidates's Briefing Book* (Washington, D.C.: The Heritage Foundation, 2000).

<sup>98</sup> "Introduction of Regional Strategies(Chapter 18)," in Stuart M. Butler and Kim R. Holmes (eds.), *Issues 2000: The Candidates's Briefing Book*.

<sup>99</sup> Larry M. Wortzel, "Asia," in Stuart M. Butler and Kim R. Holmes (eds.), *Issues 2000: The Candidates's Briefing Book*.

에 대하여 대규모의 식량을 지원하는 등 양보를 했으면서도 미국은 원하는 정책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

이와 같은 헤리티지보고서의 내용은 공화당의 정강정책이나 부시 외교정책 참모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거의 비슷하다. 2001년 1월 이후 부시 1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회고해 보면 이와 같은 헤리티지의 입장과 거의 일맥상통한다.

헤리티지재단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연구나 관련 활동은 긴 보고서나 중장기 연구보다는 당시의 주요 정책 현안이나 관심 사안에 대한 짧은 수시현안분석보고서가 주종을 이룬다. 이들 보고서는 대체적으로 정책 현안들에 대하여 간명하고도 입장이 선명하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담고 있으며 의회의 상·하의원, 전문위원과 보좌관은 물론 언론, 정책기관, 주요 기업체, 전문가 등 정책 및 여론 형성계층에게 전파함으로써 자신들의 의사와 대안을 반영시키려고 한다. 헤리티지재단이 가장 역점을 두는 대상은 의회 의원들과 그들의 입법을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도와주는 전문위원과 보좌진들이다.<sup>100</sup>

헤리티지재단이 수시로 발간하여 배포하는 이슈 중심의 보고서에는 Issues in Brief, Executive Memorandum, Backgrounder, Heritage Lectures, WebMemo 등이 있으며,<sup>101</sup> 그 중에서도 Executive Memorandum, Backgrounder 등에는 대개 구체적인 행동계획(action plan)과 같은 대안들이 담겨있다. 헤리티지재단

<sup>100</sup> 헤리티지재단 한반도 및 아시아문제 정책분석가 Balbina Y. Hwang 박사와의 인터뷰, 2004년 4월 28일.

<sup>101</sup> Executive Memorandum은 의회보좌진 및 연구자들이 짧은 시간에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2-3페이지 정도로 이슈를 압축 정리하고 대안을 제시한 보고서이며, Backgrounder는 연구자들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보고서이며, WebMemo는 online 분석보고서이다.



의 한반도문제 연구 및 관련 활동은 주로 아시아연구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속 연구원은 소장(Peter T.R. Brookes)을 포함하여 5명이다. 이 중 2005년 현재 한반도문제 전문가로 일컬어질 수 있는 사람은 2명 정도이다. 2000년대에 발간된 수시현안 보고서들 중에서 다음에서는 의회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Executive Memorandum을 통해 헤리티지재단의 입장을 살펴본다.<sup>102</sup>

먼저 2000년 4월 14일자 “북한에 대한 주고받기 방식의 개입”<sup>103</sup>에서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평가하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주고받기식의 엄격한 개입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다. 2000년 5월 18일자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미국의 보조역할”<sup>104</sup>에서는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그 과정을 이끌도록 자유와 함께 책임을 갖도록 해야 하며, 미국은 조용한 외교적, 안보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건의하였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후 남북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이는 상황에서 북한의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2000년 10월 9~12일까지 미국을 방문하고 미·북 공동코뮤니케가 발표되었다. 이러한 정세변화에 따라서 클린턴 대통령의 북한 방문 가능성이 거론되었다. 헤리티지재단은 2000년 10월 19일의 Executive Memorandum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서둘러 북한을 방문하려는 것은 잘못”<sup>105</sup>이라는 제목 아

<sup>102</sup> 여기에서 정리된 수시보고서들은 헤리티지재단의 홈페이지<[www.heritage.org](http://www.heritage.org)> 연구(research)부분을 통해 원문에 접속할 수 있다.

<sup>103</sup> Edward Neilan, “With North Korea, Seek Quid Pro Quo Engagement,” *Executive Memorandum* #668, April 14, 2000.

<sup>104</sup> Edward Neilan, “America’s Supporting Role in Bringing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Executive Memorandum* #673, May 18, 2000.

래 클린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억압정권인 북한에게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어 미국에서 민주당 정권이 공화당 정권으로 바뀐 2001년 1월에는 재단 소장인 풀러(Edwin J. Feulner)가 쓴 “한반도의 긴급 현안들은 조기의 한·미 정상회담을 요청”<sup>106</sup> 제하의 Executive Memorandum을 통해 부시 대통령 취임 직후 새 정부가 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외교정책 사안의 하나가 한·미 동맹이라면서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을 갖도록 촉구하였다. 2001년 5월 17일의 “왜 북한은 미국이 아닌 유엔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만 하나”<sup>107</sup>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국무부에 대해 북한이 유엔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침을 내려야 함을 주장하였다.

2002년에는 총 49건의 Executive Memorandum이 생산되었으나,<sup>108</sup> 한반도문제에 관한 것은 1건도 없었다.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핵 프로그램 의혹이 대두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2003년 5월 8일 “북한 핵문제 해결하기”<sup>109</sup>라는 제목으로 처음 다루어졌다. 동 보고서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2003년 4월 23~25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중 3자회담에서 북·미 대화가 북한측의 핵무기보유를 선언해서 갑작스럽게 중

<sup>105</sup> Larry M. Wortzel, “Rushing to North Korea is a Mistake for President Clinton,” *Executive Memorandum* #702, October 19, 2000.

<sup>106</sup> Edwin J. Feulner, “Pressing Concerns on the Korean Peninsula Call for an Early Bush-Kim Summit,” *Executive Memorandum* #712, January 23, 2001.

<sup>107</sup> Larry M. Wortzel, “Why North Korea Should Sign a Peace Treaty with the U.N., Not the U.S.” *Executive Memorandum* #748, May 17, 2001.

<sup>108</sup> <[http://www.heritage.org/Research/index\\_em.cfm](http://www.heritage.org/Research/index_em.cfm)> 참조.

<sup>109</sup> Balbina Y. Hwang,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Executive Memorandum* #875, May 8, 2003.

료되었다고 북한을 비난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플루토늄 및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부시 행정부가 지역 국가들과 전략 조정을 위한 왕복외교를 강화하고, 향후 회담 마련을 위해 지역 국가들과 협력하며, 남한·일본 및 러시아를 향후 회담에 포함시키고, 북한의 국제협약 위반을 비난하는 유엔결의안을 추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2003년 하반기에는 한반도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두 차례 개최된 2004년도에도 총 44건의 Executive Memorandum이 발간되었으나 한반도문제는 취급되지 않았다. 2005년도에 들어서 “북한이 걸어 나가더라도 6자회담은 재개되어야”<sup>110</sup>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6자회담 참여를 촉구하는 Executive Memorandum이 3월 4일 발간되었다. 동 보고서에서는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은 북한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6자회담을 2005년 3월에 예정대로 개최하고, 6자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임의로 회담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하며 북한의 비협력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헤리티지재단이 2000년 1월에서 2005년 11월까지 생산한 총 347건의 Executive Memorandum 중에서 7건이 북한문제 관련 보고서이다. 그 중 부시 행정부에 들어서는 2001년 1월 한·미 정상회담을 촉구한 것을 제외한다면 3건(평화협정 관련 1건, 북핵 문제 관련 2건)이 발간되었다. 대체적으로 헤리티지재단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에 있어서 동 재단의

---

<sup>110</sup> Balbina Y. Hwang, “Resume the Six-Party Talks Even If North Korea Walks,” *Executive Memorandum* #962, March 4, 2005.

보수주의 노선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현실주의적이고 북한을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입장에서 단호한 정책대안들을 선택할 것을 미국 의회 및 행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이 밖에 2005년도에 헤리티지재단의 북한문제와 기타 한반도 관련 문제에 대한 수시보고서는 온라인 형식의 WebMemo로 5건이 생산되었으며, 모든 보고서가 한국계 미국인인 젊은 분석가 황(Balbina Y. Hwang)에 의해 작성되었다.<sup>111</sup>

## 나.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브루킹스연구소는 매우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을 하고 아이디어의 마케팅을 중시하는 헤리티지재단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아카데미한 분위기를 유지해오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의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스토틀(Strobe Talbott)이 소장으로 부임한 이후 정책적 연구를 강조하고 있으며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3년과 2004년 연속적으로 미국 미디어의 인용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부시 행정부 아래서는 외교·안보정책과 관련하여 그다지 커다란 영향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5년 10월 현재 브루킹스연구소가 아시아지역 전문가로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은 총 13명이다. 이 중 한반도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는 7명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한반도문제 전문가로서 분류될 수 있는 인사는 오핸론(Michael E. O'Hanlon)과

---

<sup>111</sup> 다만 미국의 6자회담 전략을 다룬 “U.S. Strategy For the Six-Party Talks,” *WebMemo* #802 (July 22, 2005)에는 국가안보분야 전문가인 Baker Spring 연구원이 함께 참여하였다.

프리차드(Charles L. Pritchard) 두 사람이다. 오핸론은 외교정책연구프로그램의 선임연구원이자 석좌(The Sydney Stein, Jr.) 연구원이며, 안보문제 전문가로서 국토안보, 군사조약, 군사기술 및 미사일 방어, 미국의 국방전략 및 예상 등의 문제와 함께 이라크 정책과 북한정책을 다루고 있다. 방문연구원의 직책을 달고 있는 프리차드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4자회담의 미국측 협상부대표, NSC 국장 및 선임국장 겸 대통령특별보좌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미국측 대표 등을 지냈고, 부시 행정부에 들어서도 대사급의 대북협상특사가 되었으나 정책의 이견으로 그만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만큼 그는 부시 행정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부시 행정부에서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진들의 한반도문제, 특히 북핵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은 주로 언론 매체에 게재된 의견-칼럼(op-ed)을 통해서 나타나며, 대부분의 경우는 오핸론의 작품이며 프리차드와 CNAPS의 소장인 부시(Richard C. Bush III)의 작품이 드물게 나타난다.

오핸론은 그의 전직 동료였던 모찌즈키(Mike Mochizuki)와 함께 2003년에 『한반도의 위기: 핵을 가진 북한 다루기』란 책을 출간하였다.<sup>112</sup> 이 책에서 필자들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이라크전쟁과 같은 방식에 의존하지 말고 대타협(grand bargain)을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들이 제시한

<sup>112</sup> Michael E. O'Hanlon and Mike Mochizuki,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How to Deal with a Nuclear North Korea* (New York: McGraw-Hill, 2003); Michael E. O'Hanlon and Mike Mochizuki, "Toward a Grand Bargain with North Korea," *The Washington Quarterly*, Autumn 2003.

단계적 해결 방향은 ①북한의 현재와 미래 및 동북아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②재래식 전력의 감축, 북한 경제의 재건과 북한 주민의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하며, ③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북한지도자들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신경을 안정시켜 주는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미국의 대북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보유를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 본토가 북한의 핵위협 아래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통한 방식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보수주의적 입장에 있는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진보주의적(liberal) 입장에서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전문가들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는 같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헨론은 2003년 1월 『북한을 다루는 마스터플랜』이란 제목의 정책보고서를 작성하였다.<sup>113</sup> 여기에서 그는 미국이 한국, 일본 및 중국, 러시아와 함께 동북아에서 급격히 심화되는 핵 위기를 다루기 위해 새로운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이 자세를 변화할 때까지 대화를 거부하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그는 북한이 부시 행정부의 예방공격 또는 정권변화 정책에 대응하여 상당량의 핵무기 보유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을 수도 있거나, 또는 북한이 더 많은 원조와 외교적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벵랑 끝(brinkmanship) 전략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두 방식을 동시

<sup>113</sup> Michael E. O'Hanlon, "A 'Master Plan' to Deal With North Korea," *Brookings Policy Brief*, No. 114 (January 2003).

에 추진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그는 미국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대북정책은 포용, 외교관계 정상화, 더 많은 원조의 가능성을 유지하지만 매우 강경한 조건에 따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2003년 이후 본 연구를 마무리 짓는 2005년 11월 20일 현재까지 브루킹스연구소의 홈페이지에는 오헨론의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문제에 대한 논문이나 언론 매체의 의견-칼럼은 전혀 없다. 각 연구진의 각종 활동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2004년과 2005년도에 브루킹스연구소의 대표적인 한반도문제 전문가로 간주되는 연구원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관심의 쇠퇴를 반영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한편, 브루킹스연구소는 경제연구, 외교정책연구, 거버넌스연구, 광역대도시정책 등의 핵심 프로그램 이외에 여러 개의 정책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1998년에 설립된 동북아시아정책연구센터(Center for Northeast Asian Policy Studies, CNAPS)에서 한반도관련 프로젝트가 수행된다. CNAPS는 매우 경쟁적인 방문연구원(visiting fellow)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매년 동북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소수의 전문가들을 받아들여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고 미국의 정책공동체와 학문공동체와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으로부터도 거의 매년 1명 정도의 방문연구원을 받아들이며 이들은 대체적으로 한반도문제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 다.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미국기업연구소는 헤리티지재단과 함께 보수주의 정책연구기관을 대표한다. 특히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에 들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신보수주의자(neoconservatives)들이<sup>114</sup> 여러 명 포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들로는 대표적인 신보수주의 이론가이자 미국 학술원 회원인 크리스톨(Irving Kristol), 유엔 인권위원회 및 CSCE 미국 대사를 역임한 종교 및 철학 전문가 노박(Michael Novak), 부시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국방정책위원장을 역임한 펄(Richard Perle), 레이건 행정부의 유엔대사를 지내고 부시 1기 행정부에서 유엔인권위원회 미국대표단장을 역임한 커크패트릭(Jeane J. Kirkpatrick), 신보수주의 및 사회주의역사 전문가 머라브치(Joshua Muravchik), 그리고 한반도문제에 관해 많은 저작과 활발한 언론 활동을 벌이고 있는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 등이다.

미국기업연구소의 연구 활동은 연구진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존하고 있지만,<sup>115</sup> 크게 경제정책연구, 사회 및 정치연구, 외교 및 국방정책연구 분야로 나뉘어 있으며, 출간물의 형태는 저서 및 보고서를 비롯하여 격월간지인 *The American Enterprise*와 월간 또는 분기별로 간행되는 Economic Outlook, Financial Services Outlook, Health Policy Outlook, Environmental Policy

---

<sup>114</sup> Karlyn Bowman, "Neoconservatives and the Court of Public Opinion in America," Irwin Stelzer (ed.), *The Neocon Reader* (New York: Grove Press, 2004), p. 263.

<sup>115</sup> 필자의 AEI 선임연구원 바우먼(Karlyn Bowman)과의 인터뷰, 2005년 9월 16일.



Outlook, Federalist Outlook, National Security Outlook, Russian Outlook, European Outlook, Asian Outlook과 같은 분야별 분석 보고서 등이 있다.

미국기업연구소에서 한반도문제, 특히 북한 문제를 다루는 연구진으로는 전직 주한 및 주중 미국대사를 역임한 릴리(James R. Lilley) 대사와 신보수주의자인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 중국·대만문제 전문가인 블루멘탈(Dan Blumenthal) 정도이다. 그러나 에버스타트가 대표적인 한반도문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 발간된 분석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에버스타트는 2004년 2월에 발표한 논문 “북한의 생존 게임: 과거의 이해와 미래에 대한 생각”<sup>116</sup>에서 북한의 경제개혁·개방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하였다. 그는 이 논문에서 북한의 생존을 위한 시나리오를 자체적인 외부로의 개방, 군사적 해제, 남북관계의 정상화 등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들 세 가지 유형은 각각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상호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각각의 경우를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통한 생존 시나리오를 그렸으나, 북한이 개혁·개방으로의 길을 착수한다는 증거가 아직 없으며, 따라서 대담한 전환을 해야만 북한이 경제적 붕괴라는 망령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sup>116</sup> Nicholas Eberstadt, “North Korea’s Survival Game: Understanding The Recent Past, Thinking About The Future,” Paper prepared for “Towards a Peaceful Resolution with North Korea: Creating a New International Engagement Framework,” KIEP-KEI-AEI-*Chosun Ilbo* Conferenc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Washington, D.C. February 12-13, 2004.

에버스타트는 이미 신보수주의자들이 미국에 대한 ‘현존 위협’ 국가로 분류한 나라들에 대한 분석에서 북한을 매우 위험한 나라이며 현재의 북한 정권이 붕괴될 때까지 위험한 나라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sup>117</sup> 같은 맥락에서 에버스타트는 “북한의 핵무기 추구”라는 제목의 논문<sup>118</sup>에서는 북한이 지구상의 여느 나라와는 다른 이상한 국가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이 사회주의로의 전환반도 통일, 한국전쟁 당시 미국 때문에 달성하지 못한 무력통일의 완성, 북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의 완성 등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이며, 이 밖에 위협을 통한 국제사회로부터의 보상 획득,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의 파기를 통한 주한미군 철수 등을 추진하기 위함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협상의 대상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하면서, 미국의 과제는 북한으로부터 세계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서 어렵고 위험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일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에버스타트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는 2005년 9월 19일의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부시 행정부의 강경파와 온건파 두 진영 모두의 실패라고 평가하였는데, 그 이유로서 공동성명이 북한으로 하여금 평화적 에너지 사용이라는 위장 아래 핵무기 프로그램

<sup>117</sup> Nicholas Eberstadt, “North Korea: Beyond Appeasement,” Robert Kagan and William Kristol, eds., *Present Dangers: Crisis and Opportunity in American Foreign and Defense Policy* (San Francisco, CA: Encounter Books, 2000), pp. 145~178.

<sup>118</sup> Nicholas Eberstadt, “North Korea’s Weapons Quest,” *The National Interest* (Summer 2005). AEI 홈페이지 게재일자 (June 16, 2005).

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잘못된 가정 아래 남  
한을 고립시킬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공동성명은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거의 완전하게 희생함으로  
써 만들어진 북한의 외교적 승리라고 결론지었다.<sup>119</sup>

중국문제 전문가 블루멘탈(Dan Blumenthal)의 “핵 국가 북한  
에 대한 대처”라는 제목의 북핵문제와 한·미관계의 미래에 관한  
분석도<sup>120</sup> 북한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는  
6자회담이 실패했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서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  
을 설득하여 핵 프로그램을 포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두 개의  
가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는 6자회담의 실패  
원인이 한국과 중국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중국은 북한의 핵  
무기 보유를 바라진 않지만, 중국 국경에서의 불안정과 전쟁을  
피하기 위해 북한체제의 생존을 원하며, 이는 아시아에서 중국의  
외교적 위신을 고양시키고 미국과 동맹한 통일한국의 출현을 바  
라지 않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꺼리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이래 북한 달래기에  
만 빠져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도 역시 에버스타트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최우선  
정책은 가장 위험한 체제인 북한으로부터 가장 위험한 무기를 제  
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어서 일본 및 한국과의 동맹관계  
유지, 아시아에서 미국주도의 안보질서 유지·강화, 전 세계에 걸

---

<sup>119</sup> Nicholas Eberstadt, “North Korea Triumphs Again in Diplomacy,” *On the Issues*, AEI Online, September 30, 2005.

<sup>120</sup> Dan Blumenthal, “Facing a Nuclear North Korea,” *Asian Outlook*, AEI Online, July 8, 2005; Dan Blumenthal, “Facing a Nuclear North Korea and the Future of U.S.-ROK Relations.” Presentation at the Institute for Korean-American Studies Fall Symposium, October 11, 2005.

친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산 등을 정책우선순위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미국의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봉쇄와 억지를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대북 강경입장의 정책 제안들이 부시 행정부에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미국기업연구소가 부시 행정부 아래서 정책적 정향이나 인적 연계망의 관점에서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sup>121</sup>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도 유의할 사항이다.

#### 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CSIS는 워싱턴 think tank중에서도 한반도문제에 비교적 관심이 많은 연구기관이다. 1990년대에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통일연구원(KINU)과 비교적 활발한 교류관계를 유지하였다. 1990년대에 CSIS에는 한반도문제 관련 전문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한 테일러(William Taylor, Jr.) 박사를 중심으로 한국의 정책연구기관, 기업 등과 교류를 유지하였으며,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과 면담하는 등 통일문제에도 관심을 가졌다. 이에 따라 1992년부터 KINU와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면서 연례적인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KIDA와는 1980년대 후반부터 정치군사게임(pol-mil game)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한국의 정책연구기관과의 교류는 외교안보연구원(IFANS), 세종연구소와도 이루어졌으며, 2000년대에는 IFANS와 연례적인 교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CSIS는

---

<sup>121</sup> 필자의 AEI 선임연구원 바우먼(Karlyn Bowman)과의 인터뷰, 2005년 9월 16일.

또한 한국의 전문가들을 방문연구원 또는 객원연구원의 형태로  
서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 국제안보프로그램(International  
Security Program)의 실장이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차관보를  
지낸 캠벨(Kurt Campbell)로 교체되면서 기존의 한반도문제를  
담당하던 연구진들도 교체되었고 그 이전보다는 한반도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CSIS 내에는 독자적인 일본  
프로그램(Japan Chair)과 중국프로그램(Freeman Chair in China  
Studies)이 있는데 반하여 한반도문제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갖  
고 있지 않으며, 그 연구비중은 비용의 확보에 달려 있다.<sup>122</sup> 그러  
나 CSIS는 2000년대에도 끊임없이 안보문제, 특히 한·미 동맹관  
계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문제에 관심을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합의에의  
길: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수정 과정”(Path to an Agreement:  
The U.S. - Republic of Korea Status of Forces Agreement  
Revision Process)연구는 한국 사회의 반미감정의 주요인의 하나  
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에 관해 검토한 것으로 2001년  
7월에 발간되었다.<sup>123</sup> 이 과정에서 CSIS는 한·미 정부 당국자들  
을 초청하여 검토 과정을 진행했으며, 향후 동맹국과 유사한 협  
상을 하는데 지침이 될 수 있는 교훈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CSIS는 한반도 통일 이후의 미국의 정책을 검토하는 미래 지

---

<sup>122</sup> 필자의 CSIS의 미첼(Derek Mitchell) 선임연구원과의 인터뷰, 2005년 9월  
15일.

<sup>123</sup> A CSIS International Security Program Report, *Path to an Agreement:  
The U.S. - Republic of Korea Status of Forces Agreement Revision  
Process* (Washington, DC: CSIS, July 2001).

향적 연구도 수행하였다. 2002년 8월에 출간된 “통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 청사진”(A Blueprint for U.S. Policy toward a Unified Korea)은 한반도의 통일시나리오를 평화적 통합, 북한 붕괴에 따른 흡수, 전쟁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경우가 미국의 이익에 주는 도전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미국의 정책대안을 제시한 연구이다.<sup>124</sup> 역시 2002년 8월에 간행된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Conventional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는 유럽 및 다른 지역에서의 군비통제조치들이 한반도에 적용가능한가에 대해 한·미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물이다.<sup>125</sup>

한·미동맹 50주년을 맞아 한·미 양국의 전문가들이 최근 한·미관계의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동맹관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를 담은 “한미동맹의 강화: 21세기의 청사진”(Strengthening the U.S.-ROK Alliance: A Blueprint for the 21st Century)은 2003년 9월에 발간되었다.<sup>126</sup>

2002년 가을 이후 한국에서는 반미감정이 고조되었다. CSIS는 이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2004년 6월 “전략과 감정: 미국에 대한 남한의 견해와 한·미 동맹”(Strategy and Sentiment: South Korean View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S.-ROK Alliance)이란 제목으로 발간하였다.<sup>127</sup> 이 보고서는 CSIS가 주도한 T/F가 특히

<sup>124</sup> A Working Group Report, *A Blueprint for U.S. Policy toward a Unified Korea* (Washington, DC: CSIS, August 2002).

<sup>125</sup> A Working Group Report, *Conventional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Washington, DC: CSIS, August 2002).

<sup>126</sup> CSIS, Seoul Forum, Edmund Walsh School of Foreign Service of Georgetown University, *Strengthening the U.S.-ROK Alliance: A Blueprint for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CSIS, September 2003).

<sup>127</sup> Derek J. Mitchell, ed., *Strategy and Sentiment: South Korean View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S.-ROK Alliance* (Washington, DC: CSIS,

2002년 이후 한국에서 일고 있는 반미감정의 제반 측면을 분석하고 한·미동맹관계의 주요 요소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과 미국이 각각 또는 함께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권고를 하고 있다.

2005년도에 CSIS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문제 관련 프로젝트는 카네기국제평화기금(CEIP)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위협감소프로그램”(A Threat Reduction Program for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이 있다. 동 프로젝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에 의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자간 위협감소프로그램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과거 러시아에서 수행되었던 상호위협감소프로그램의 누적된 경험과 1994년의 북미 제네바합의 및 비정부차원의 인도적 지원프로그램 등을 검토하여 대안을 찾으려고 한다. CSIS는 또한 정책결정자, 정책분석가, 학자 및 기타 외교정책공동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규모의 동아시아전략그룹(The East Asia Strategy Group, EASG)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아·태지역의 동향을 평가하고 미국의 정책대안을 토론하기 위해 비공개의 대화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CSIS의 아·태지역의 현안 및 정세에 대한 분석은 수시 분석보고서인 *Pctnet* 시리즈와 CSIS 태평양 포럼의 분기별 정세보고서인 *Comparative Connections*이 있다. 2005년 11월 15일 현재 나온 *Pctnet* 시리즈 중에서 한반도문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6자 회담에 관한 분석이 대부분이었으며,<sup>128</sup> 이 밖에 북한의 인권문

---

June 2004).

<sup>128</sup> Ralph A. Cossa, “Pyongyang Raises the Stakes,” *Pacnet* #06 (February

제,<sup>129</sup> 미국의 대북정책 평가<sup>130</sup> 등이 다루어졌다. 그리고 북핵문제를 포함하여 동북아시아 긴장요인과 정세분석도 취급되었다.<sup>131</sup> 그러나 동 보고서들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마.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가장 오래된 think tanks의 하나이자 그 권위 또한 비중 있게 인정받고 있는 미국 외교협회(CFR)는 특정한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대외정책의 주요 사안과 관련해서 자체의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관련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보고서를 작성·발표하고 정책건의를 수행함으로써 행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쳐오고 있다. CFR이 발간하는 ‘외교’(Foreign Affairs)지는 주요한 사안에 대한 명쾌한 분석·평가와 대안의 제

---

10, 2005); Aidan Foster-Carter, “The Six-Party Failure,” *Pacnet* #06A (February 11, 2005); James Goodby and Donald Gross, “From Six Party Talks to a Regional Security Mechanism,” *Pacnet* #13 (March 24, 2005); Alan D. Romberg, “The 4th Round of Six-Party Talks: Negotiating for Success,” *Pacnet* #29 (July 21, 2005); Brad Glosserman, “Living with a nuclear North Korea,” *Pacnet* #29AB (July 25, 2005); Scott Snyder, Ralph A. Cossa, and Brad Glosserman, “A Path to Progress for the Six-Party Talks,” *Pacnet* #33 (August 15, 2005); Alan D. Romberg, “Maintaining momentum with North Korea,” *Pacnet* #39 (September 8, 2005); Ralph A. Cossa, “Six-Party Talks: round four continues (finally),” *Pacnet* #39A (September 12, 2005); Ralph A. Cossa, “Six-party statement of principles: one small step for man,” *Pacnet* #41 (September 19, 2005).

<sup>129</sup> Scott Snyder and Brad Glosserman, “Bridging the Gap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Pacnet* #15 (March 31, 2005).

<sup>130</sup> Ralph A. Cossa, “North Korea: Cost-Benefit Analysis,” *Pacnet* #23 (June 6, 2005).

<sup>131</sup> James A. Kelly, “Mounting Tensions in Northeast Asia: what are the deeper causes?” *Pacnet* #23B (June 10, 2005); Brad Glosserman and Scott Snyder, “A target of opportunity for Northeast Asia,” *Pacnet* #26 (June 30, 2005).



시라는 실용주의적 저널로서 그 명성이 매우 높다. 냉전시기 미국의 외교정책의 기반이었던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의 아이디어가 1947년 동 저널에 게재됨으로써 CFR은 한반도문제에 관해서도 전문가들의 보고서 및 개별 논문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CFR은 1997년 한반도문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태스크포스(Independent Task Force; ITF)를 구성하여 북한 문제를 연구해왔다.

북한 문제를 연구해온 ITF는 ‘대북정책검토연구팀’으로도 불렸는데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이사장과 국무차관보를 역임하고 현재는 세기재단(Century Foundation)의 선임연구원인 아브라모위츠(Morton I. Abramowitz)와 에모리대학교 총장과 주한미국대사를 역임한 레이니(James T. Laney)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CFR의 ITF는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발사를 계기로 미 행정부에 대북정책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건의하는 공개서한을 10월 7일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달하였고,<sup>132</sup> 미 의회가 행정부로 하여금 KEDO의 대북 지원예산지출에 엄격한 조건을 부가하고 북한정책조정관(North Korea Policy Coordinator)을 임명하도록 하는 조항을 99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시키는<sup>133</sup> 등 미국의

---

<sup>132</sup> ‘대북정책 검토 연구팀’ 또는 ‘한반도 변화관리 연구팀’으로 불릴 수 있는 이 팀은 전직 주한대사, 하원의원, 주한미군사령관, 동아·태 담당 국무차관보를 비롯하여 학자,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공동명의로 클린턴 대통령에게 대북정책검토 건의편지를 보냈다. Morton Abramowitz, James Laney *et al.*, “Letter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rom the Independent Task Force on Managing Change on the Korean Peninsula,”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October 7, 1998).

<sup>133</sup> House-Senate Conference Report for HR4328, “Sec. 582.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Omnibus Appropriations Bill (October 19, 1998).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8년 6월에 공개된 ITF의 1차 보고서 “한반도 변화 관리”는<sup>134</sup> 그 권고안이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결정과정에서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으며,<sup>135</sup> 그 연구진이 미국의 대북정책 관련 전문가들을 광범위하게 포함(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실무담당자들도 observer로 참가)하였다는 점에서 페리보고서의 공개 및 비공개 정책대안에 반영되었다. ITF는 동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북한문제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포럼(Seoul Forum)과 공동 연구를 하였고,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하여 외무부, 국방부, 통일부 장관과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의 견해를 청취하였다.<sup>136</sup> ITF의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주무 역할을 수행한 그린(Michael J. Green)은 부시 대통령의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안보회의(NSC)의 아시아담당 국장이 되어 정책결정의 일선에 참여하게 되었고, 부시 2기 행정부에서는 선임국장으로 승진하였으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물망에 오르기도 하였다.

미 외교협회는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기로 1998년 10월 미 행정부에 대북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건의하는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하였다. 1차 보고서는 페리 대북정책 조정관의 포괄적 접근안에 대한 반응이 미진할 경우에는 ‘선별

---

<sup>134</sup> Morton I. Abramowitz and James T. Laney, Co-Chairs, Michael J. Green, Program Director, “Managing Change on the Korean Peninsula,” Report of an Independent Task Force Sponsored by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June 1998 <[www.foreignrelations.org](http://www.foreignrelations.org)>.

<sup>135</sup> Michael J. Green, “North Korea” <<http://www.foreignpolicy2000.org>>.

<sup>136</sup>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Managing Change on the Korean Peninsula* (Seoul: Seoul Press, 1998), pp. 14~15.

적(selective) 개입정책을 대안으로 권고하고, 거부할 경우에는 군사 억지력 강화, 경제제재 조치 등 강경한 대응을 권고하였다.<sup>137</sup>

ITF는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이 북한을 방문(1999.5)하여 미국의 포괄적 접근안에 대해 북한의 의중을 타진한 이후인 1999년 7월 “미국의 대북정책: 두 번째 검토”라는 제목의 2차 보고서를 공개하였다.<sup>138</sup> 동 보고서는 페리의 포괄적인 제안에 대해 북한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면서도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위해 포괄적 패키지를 포기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지적하였다. 북한은 시간이 갈수록 외부세계와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것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다고 전망하면서, 미국이 페리의 제안을 협상테이블에 올리고 한국의 포용정책을 계속 지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 해제 등 대북 유인책을 우선 추진할 것을 제안하면서도,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추가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할 경우와 페리의 포괄적 접근안에 대한 반응이 미진하거나 거부할 경우 ‘압박’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외교협회의 북한에 대한 기본 인식은 북한 문제가 매우 다루기 어려우며 쉬운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유인수단을 시험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만, 미국의 대북정책은 강력한 억지와 동맹국과의 긴밀한 방위협력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sup>139</sup>

---

<sup>137</sup> Morton I. Abramowitz and James T. Laney, Co-Chairs, Michael J. Green, Program Director, “Managing Change on the Korean Peninsula,” pp. 5~29.

<sup>138</sup> Morton I. Abramowitz and James T. Laney, Co-Chairs, Michael J. Green, Program Director,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A Second Look,” Report of an Independent Task Force Sponsored by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July 1999.

<sup>139</sup> Michael J. Green, “North Korea” <<http://www.foreignpolicy2000.org>>.

이어 CFR의 ITF는 “미국의 대북정책: 다음 조치들”(1999)<sup>140</sup>을 발간·배포하였으며, 2001년 9월에는 “북한 시험하기: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의 다음 단계”<sup>141</sup> 제목의 보고서를 펴냈다. 동 보고서는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 처음 발간된 것으로서, 한반도 상황의 진전은 쉽게 와해되기 쉽고 지난 10년간 한·미에 의해 성취된 외교적 성과는 파기될 수 없다고 하면서 부시 행정부로 하여금 북한을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로 다룰 것을 건의하였다. 북한의 핵 야망은 긴장을 증가키시키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정지를 해제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북한과의 협상을 권고하면서, 미국과 동맹국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경제적 당근과 채찍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문제 제기로써 제2차 북·미 핵 공방이 불거진 이후인 2003년 5월에는 “북한의 핵 도전에 대한 대처방안”<sup>142</sup>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서 ITF는 북한의 NPT 탈퇴, 핵무기 보유 주장, 핵연료 재처리 선언 등으로 북핵 프로그램이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그것을 중단하기 위한 일관되고 합의된 전략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였다. 즉, ① 미국의 지역 파트너

<sup>140</sup> Morton I. Abramowitz and James T. Laney, Co-Chairs, Michael J. Green, Program Director,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Next Steps,” Report of an Independent Task Force, 1999.

<sup>141</sup> Morton I. Abramowitz and James T. Laney, Co-Chairs, Robert A. Manning, Program Director, “Testing North Korea: The Next Stage in U.S. and ROK Policy,” Report of an Independent Task Force, September 2001.

<sup>142</sup> Morton I. Abramowitz and James T. Laney, Co-Chairs, Eric Heginbotham, Program Director, “Meeting the North Korean Nuclear Challenge,” Report of an Independent Task Force, May 2003.

를 재편할 수 있는 전략을 표명하고, ② 그 전략의 일환으로서 북한과 협상을 하면서 잠정적 합의를 제안하여 그 의도를 시험하며, ③ 협상이 실패한다면 더 강력한 행위를 취할 수 있도록 동맹국의 공약을 받도록 하며, ④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의무를 지도록 중국을 설득하며, ⑥ 한반도 문제를 전담할 고위급 조정자를 임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교협회의 대북정책 제안들이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정책결정시에 비교적 받아들여지는(receptive) 정향을 보였으나, 부시 1기 행정부에서는 그러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 바. 미국평화연구소(USIP)

미국평화연구소(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는 1984년 제정·발효된 미국평화연구소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적이고 비당파적인 연방기관이다. 주된 목적은 국제적 갈등의 예방, 관리 및 평화적 해결의 증진을 위한 연구와 교육이다. 이사회의 이사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원의 비준을 받는다. 따라서 USIP는 매우 중요한 think tank이면서도 민간 차원에서 설립된 think tanks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USIP가 한반도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 북한 핵문제가 대두된 이후이다. USIP는 1993년 가을 제 1차 북한 핵 위기가 고조될 당시에 미국의 한반도정책을 다루기 위해 전직 주한대사, 정부 관료, 정책전문가 등으로 한반도문제 전문가 연구그룹(Korea Working Group)을 구성하였다. 이후 북한 핵문제, 북한의 급격한 붕괴 가능성, 4자회담 등 한반도문제 현안에

대한 일련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특별리포트를 작성·제출함으로써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에 영향을 미쳐왔다.

이 연구그룹이 작성한 특별리포트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1994년 3월의 “북한 핵 프로그램: 미국의 정책에 대한 도전과 기회”(North Korea's Nuclear Program: Challenge and Opportunity for American Policy)이다. 이어 1994년 9월에는 정책결정자, 지역 전문가 및 핵전문가 등 약 40명의 전문가들이 토론하여 그 결과를 작성한 “북한 핵의 도전: 김일성 이후 단계의 시작”(The North Korean Nuclear Challenge: The Post-Kim Il Sung Phase Begins)이 있다. 이 보고서는 김일성 사후의 북한 정세를 평가하고 북핵 문제의 해결과 남북한 긴장완화를 위한 미국과 한국이 처한 도전에 대해 다루었다.

이어 1996년 10월에는 “한반도에 위기가 다가오는가?: 식량위기, 경제쇠퇴와 정치적 고려사항”(A Coming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Food Crisis, Economic Decline, and Political Considerations) 보고서를 통해 1990년대 중반 북한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식량위기가 지속되는 상황과 북한의 정책적 대안을 평가하고 그에 대처하는 미국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한·미·일의 정책공조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었다. 또한 북한의 위기는 북한의 최대 후원국인 중국에게 중요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북한의 쇠락과 중국의 전략적 딜레마”(North Korea's Decline and China's Strategic Dilemmas)를 1997년 10월에 발간하였다.<sup>143</sup> 이 보고서는 북·중 국경지대에 대한 현지조사의 토대 위에서 중국의 남북한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다.

---

<sup>143</sup> 두 보고서의 대표 작성자는 Scott Snyder이다.

USIP는 한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외환위기를 맞아 국제 통화기금(IMF)의 관리체제를 경험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1998년 4월에 “아시아의 금융위기를 넘어: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과 기회”(Beyond the Asian Financial Crisi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U.S. Leadership)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미국이 아시아 금융위기를 해결하고 21세기의 경제·정치적 경영에 맞는 지구적 차원의 기준을 촉진하는데 리더십 역할을 맡을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아시아금융위기가 장기적으로 일본을 대신해 중국이 부상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며, 따라서 미국은 이러한 결과를 회피하고 금융위기에 대처하도록 일본에게 시장자유화조치와 성장 지향적 정책을 제도화하도록 고무하는 지역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미국이 아시아에서 필수적인 경제, 정치 및 안보의 안정자 역할을 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미국의 입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1996년 4월에 한·미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한 및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4자회담은 1997년 12월에야 첫 회담이 개최될 수 있었다. 그런데 1998년에 들어 남한은 외환위기의 상황을 맞았고 새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식량난 속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한반도 상황에서 USIP는 1998년 6월 남북한의 정치, 경제, 안보적 변화와 미국의 정책대안을 제시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의 도전: 한반도의 정치적·경제적 변이”(Challenges of Building a Korean Peace Process: Political and Economic Transition on the Korean

Peninsula)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Korea Working Group이 1997년 11월과 12월, 그리고 1998년 3월에 걸친 세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작성되었으며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집약된 것이다.

1998년 10월에 발간한 보고서 “불신과 한반도: 오산의 위험”(Mistrust and the Korean Peninsula: Dangers of Miscalculation)에서는 1994년 제네바합의에 합의한 북한의 의도를 클린턴 행정부가 근본적으로 잘못 판단했으며, 북한이 경제개혁프로그램을 채택하고 군비감축조치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도록 고무하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위험에 빠져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책은 군부에 점차 의존하고 있는 북한의 리더십을 시험해볼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군부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태에서 한·미 간 정책공조의 강화를 강조하였다.

USIP는 1999년 8월 “북한의 기근의 정치”<sup>144</sup>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1994년에 시작하여 높은 사망률을 가져온 기근으로 악화된 북한의 식량위기를 분석하였다. 기근의 원인, 북한 정부의 대응, 기근이 북한사회, 정치체제 및 군에 미칠 영향을 다루었다. 그리고 최근 북한의 대외행위의 변화는 기근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향후 북한 경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필자는 1994년에서 1998년의 기간 중 2~3 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과 그와 연관된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추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정치적 파급효과를 낳았다고 분석하였다.

---

<sup>144</sup> Andrew Natsios, *Politics of Famine in North Korea*, Special Report 51, USIP, August 2, 1999.



그리고 2002년 7월 “북한에서의 인도주의적 딜레마의 극복”이란 제목의 보고서<sup>145</sup>에서는 1995년 북한이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한 이후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식량계획(WFP)과 국제비정부기구(NGOs) 등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하면서 경험하는 북한당국과의 관계를 다루었다. 인도주의기구들은 모니터링, 평가 등에서 북한 당국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점차 북한 당국과 국제지원기구 사이에 신뢰와 상호 이해의 과정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에 따라 계속되어야 하고, 건설적인 개입 및 신뢰구축의 정책을 권고하였다.

북한의 비밀 고농축우라늄 핵 프로그램 의혹이 대두된 이후 2003년 초 소수의 중견전문가들이 몇 차례의 토론회를 가졌으며, 그 결과 2003년 4월에 “한국전쟁의 포괄적 해결”(Comprehensive Resolution of the Korean War)이란 제목의 특별보고서를 발간하였다.<sup>146</sup> 동 보고서는 북한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의 검증을 통한 폐기에 상응하여 UN안보리의 후원 하에 한국전쟁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미국이 남북한 및 미국, 중국의 4자회담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면서, 동 회담이 ① 북핵의 다자해결이라는 미국의 요구에 부합하고, ② 남북한의 안보 불안의 근본적인 원천을 해결하며, ③ 미국의 동맹국과 여타 지역 국가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④ 만약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위한 정치적 접근을 거

<sup>145</sup> Hazel Smith, *Overcoming Humanitarian Dilemmas in the DPRK (North Korea)*, Special Report 90, USIP, July 2002.

<sup>146</sup> William M. Drennan, *A Comprehensive Resolution of the Korean War*, Special Report 106, USIP, May 2003.

부한다면 대북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을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4자간의 포괄적 평화정착은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료가 될 것이며, 그러한 평화정착의 핵심요소로서 ① 미국과 북한 간의 적대관계의 공식적 종료와 완전한 외교관계 시작, ② 남북한의 주권과 영토보전 인정, ③ NPT, IAEA 안전협정,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남북한의 재공약. 이러한 협정들은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항구적이고 검증을 통한 폐기를 하도록 함, ④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남북 간 재래식 전력의 감축, ⑤ 남북한을 위한 미국과 중국에 의한 안전보장 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포괄적 접근법이 북·미 양자협상 없이 한반도의 위기를 완화하며, 외교적 주도권을 다시 잡도록 해주고, 북한 지도부 내부에서 토론을 촉발하여 정책노선 간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게 만드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미국이 동북아 지역의 안정 및 지구적 차원의 핵비확산에 대한 주요 도전에 반응한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거부나 비타협적인 협상태도로 인해 이 제안이 성공적하지 못하다면 북한을 봉쇄하거나 강압하여 다자간 노력을 끌어가려는 미국의 입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USIP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연구 활동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크게 줄어들었다. 1990년대에 아시아지역에 대한 보고서 13건 중에 7건이 북한관련 문제였으며, 1건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금융위기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반해 2000년대에 들어와서 2005년 9월 현재까지 아시아지역에 대한 보고서 10건 중 2건에 불과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와 USIP의 주된 연구 영역은

아프리카, 발칸, 유럽, 이라크 및 여타 중동지역, 동남아시아에 집중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매우 미미하다. USIP는 앞에서 언급한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는 Korea Working Group을 유지하고 있으나, 과거와 같이 활발한 활동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또한 2003년 30년 이상 한반도문제 관찰자였던 드레넨(William M. Drennan) 연구부실장이 퇴직한 이후 2004년과 2005년에는 한반도문제와 관련한 연구 자체가 없으며, 2005년 현재 65명이 넘는 연구진 중에서 동북아시아 전문가로서 연구소소장인 솔로몬(Richard H. Solomon)과 연구실장인 스테어스(Paul B. Stares) 등 3명을 내세우고 있으나<sup>147</sup> 한반도문제 전문가로 일컬을 수 있는 사람은 솔로몬 소장 한 사람뿐이다. 2005년 10월 현재 USIP는 동북아시아 담당 연구원(program officer) 1명을 충원하는 과정에 있으나 자격 조건에 특히 중국어에 능통한 인물을 선호하고 있다.<sup>148</sup>

### 3. 한반도문제에 대한 관심도 평가: 전문가 조사 분석

미국의 정책결정의 중심지인 워싱턴의 think tanks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정치, 경제적인 역할이 신장되고 특히 북한의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 수단인 미사일의 개발, 북한체제의 불안정 등에 따라 한반도문제가

<sup>147</sup> 2005년 10월 현재 USIP 홈페이지에 각 지역별 전문가로서 소개하고 있는 연구진의 수를 센 것임.

<sup>148</sup> <<http://www.usip.org/jobs/index.php>> (검색일: 2005. 10. 15).

관심영역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문제, 한반도 안보 및 통일문제와 관련한 세미나, 간담회 등이 그 이전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워싱턴 일대의 think tanks들의 연구사업 중에서 한반도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매우 미약하다. 특히 민간 think tanks의 경우 자체 연구재원을 활용하여 한반도문제를 연구하는 비중은 극히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Think tanks는 자신들의 기본 프로그램과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연구 분야를 제외하고는 이슈의 중요성과 정책적 관심의 정도, 재정 확보 가능성 등의 토대 위에서 연구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거나 없애는 것이 일반적이다.<sup>149</sup> 특히 한반도문제에 관한 연구프로젝트의 경우 재정 확보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를 위해 필자가 면담한 워싱턴의 주요 think tanks 연구진들의 일치된 견해였다.<sup>150</sup> 그리고 한반도문제를 주 전문분야로 하는 연구진들은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수에 불과하며 일본 또는 중국 관련 정책전문가들의 수에 비하면 훨씬 적다.

주요 think tanks가 미국 행정부의 한반도정책에 영향을 투입하는 방식은 외교안보정책의 전반에 영향을 투입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이다. 한반도문제와 관련한 의제 설정 또는 정책제안, 관련 저작이나 분석보고서의 산출 및 확산, 미디어에 칼럼 게재, 의견 및 정보의 교환, 간담회·세미나·토론회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

---

<sup>149</sup> Robert W. Janes, *Scholars' Guide to Washington, D.C., for Pea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Washington, D.C.: The Woodrow Wilson Center Press, 1995), p. 181.

<sup>150</sup> 본 연구를 위해 필자는 2005년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워싱턴에 머물면서 주요 think tanks의 연구진들을 면담하였다.

진다. 정책제안이나 의제설정에서 있어서는 think tanks와 정부 사이를 순환하는 전문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 특정지역 및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부의 정책결정자들과의 긴밀한 인적 연계는 매우 중요한 정책투입의 수단이다.<sup>151</sup> 한반도문제와 관련한 정책결정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sup>152</sup>

미국의 주요 think tanks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 역량, 그리고 한반도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앞 두 절에서 언급된 주요 think tanks에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거나 전에 근무했던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e-mail 활용 및 현지 직접조사, 기간 2005. 9.5~9.17)를 실시하였고 현지에 출장을 가서 직접 면담도 가졌다. 설문조사(설문 및 대상자는 부록 1 참조)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대상자들은 필자가 수행한 2004년도의 연구<sup>153</sup>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성실하게 응답한 연구원들과 그밖에 think tanks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는데 총 23명이며 응답자는 52%인 12명이었다.

먼저 본 설문에서는 미국의 한반도정책 결정과정에서 think tanks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미국의 한반도정책 결정과정에서 주요 think tanks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문항(설문 1)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58%는 동의하지 않았으며, 42%가 동의하였다. 한반도 정책에 미치는 think tanks의 영향력이 그렇게 높지 않음을 보여

---

<sup>151</sup> 필자의 AEI 선임연구원 바우먼(Karlyn Bowman)과의 인터뷰, 2005년 9월 16일.

<sup>152</sup> 필자의 맨스필드연구소(Mansfield Center for Pacific Affairs)의 플레이크(L. Gordon Flake) 소장과의 인터뷰, 2005년 9월 12일.

<sup>153</sup> 박영호, 『미국의 한반도정책과 통일문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4).

준다. 본 설문에 응답한 연구원들 중에서 필자가 직접 면담한 한반도문제 전문가들 중에는 부시 행정부에 들어서 정책결정자들의 대안의 수용 폭이 좁아졌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복수였다. 그러나 “미국의 주요 think tanks가 한반도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설문 3)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2%가 강하게 동의하거나 동의를 표시하였다. 이어 “한반도문제를 연구주제로 선택하는 데 관심이 있는가”라는 문항(설문 4)에 대해서는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92%)가 강하게 동의하거나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그 이유를 한반도문제가 연구주제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으며 또 한반도문제 연구를 위한 재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중복하여 지적하였다(설문5).

위에서 한반도문제에 관한 연구프로젝트의 경우 재정확보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워싱턴의 주요 think tanks 연구진들이 지적하였지만, 이는 설문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즉 “연구비가 제공되면 한반도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또는 한반도문제를 연구주제의 우선순위로 올릴 것이다”라는 문항(설문 6)에 대하여 응답자 모두가 동의하였다(강하게 동의 42%, 동의 58%). 그리고 “당신의 연구소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한반도문제 관련) 연구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설문 2)에 대해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안보 이슈’를 지적한 응답자가 3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한·미관계 일반’과 ‘한·미동맹’을 지적한 응답자가 각각 23%였고, ‘북한 일반’을 지적한 응답자가 15%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설문에서 제시된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연구원이 있었고, 한·일 및 한·중

관계, 미국과 아시아의 전반적인 관계를 따로 지적인 연구원도 있었다.

한국의 학자 및 연구자, 정책결정자, 정치인, 언론, 기업 등이 미국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차지하는 think tanks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정책당국자나 정치인들이 미국의 우수한 think tanks를 방문하여 의견을 교환하거나 한국의 정책적 입장을 알리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의 think tanks 연구진들은 한국의 미국 think tanks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즉 “당신은 남한 정부가 대미관계를 다루는데 있어서 미국의 주요 think tanks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는데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하였다(설문 7). 이에 대해 응답자의 2/3인 67%가 동의하지 않았으며, 17%만이 동의하였다. 나머지 17%는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워싱턴 think tanks의 역할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think tanks가 행정부의 한반도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당신은 백악관을 포함한 미국정부가 ‘한반도 핵문제에 관한 독립 T/F’ 같은 초당파적인 한반도관찰자들에 의한 한반도문제에 대한 정책건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데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라고 물어보았다(설문 8). 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3인 67%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1/3인 33%만이 동의하였다. 이러한 응답 비율은 부시 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와는 달리 초당파적인 정책건의에 대하여 닫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필자가 본 연구를 위해 면담한 워싱턴의 think tanks 전문가들 중에서 그와 같은 견해를 피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sup>15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의 think tanks는 한반도문제에 관한 정보를 미국 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창구가 될 수 있음을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었다. 즉 본 설문조사의 아홉 번째 문항(설문 9)에서 “주요 think tank들이 미국 공중에게 한반도 이슈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중요한 창구/원천이다”라는 데에 동의하는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응답자 중 한 사람을 제외한 모두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최근 한·미관계의 변화과정에서 갈등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미관계는 한국의 높아진 국가적 능력 및 위상과 중강국(中強國)으로서의 국가전략 추진, 한반도 상황 및 동북아국제질서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과거의 전통적인 관계로부터 각각의 이해관계를 상호 충족시켜주면서 공통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넓혀가는 새로운 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반도문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관계를 보다 더 잘 투영시키거나 미국의 이해를 제고시킬 필요성도 등장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설문조사의 마지막 문항(설문 10)으로서 “한국인과 미국인 간의 대화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반도 통일문제 및 관련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미국 think tank의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3/4인 75%가 동의하지 않았으며, 17%만이 동의한다고 대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think tank를 만들기 보다는 이미 채널을 가지고 있는 think

---

<sup>154</sup> 면담자와의 약속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tanks를 지원하는 방안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거나 동북아지역 및 안보 이슈를 다루는 think tanks에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한 응답자가 있었다. 필자의 워싱턴 think tanks 연구진 면담과정에서는 한국이 워싱턴의 유력한 think tanks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의 이익을 미국의 정책결정 과정에 더 투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설문조사와 직접 면담을 통해 얻은 결과는 워싱턴의 주요 think tanks가 한반도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는 있으나, 우선순위의 연구주제로 채택되고 있지는 않으며, 또한 한반도문제를 주로 다루는 전문가도 여전히 소수에 머물고 있고 따라서 한반도문제에 대한 미국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여전히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워싱턴의 주요 think tanks의 미국 외교안보정책 결정과정에서 미치는 영향력의 증대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 VI

## 결론



지금까지 미국의 외교안보정책 결정과정에서 그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어온 think tanks의 발전 역사와 그 역할을 살펴보고, 주요 think tanks의 한반도문제에 관한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워싱턴의 주요 외교·안보 think tanks는 미국이 세계질서에서의 주도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서 세계 주요 지역의 외교안보문제를 다룬다. 그러나 특히 미국의 국가이익에 중요한 지역과 나라들에 더 관심이 있으며,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이나 이익과 밀접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다른 어떤 현안들보다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의 think tanks들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관심은 주로 북한 핵 등 북한문제로부터 비롯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클린턴 행정부 아래에서는 물론, 특히 부시 행정부 아래서 전통적인 한·미동맹관계에 따른 한·미관계도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지만, 핵 프로그램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와 북한의 내외적인 위기 상황, 탈북자문제 등이 북한에 대한 관심의 주종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더욱 신장되고, 남북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하며 한국의 국내정치적 변화 등에 따라 한·미관계도 변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미간의 긍정적, 부정적 차원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의 유지로부터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미국의 장기적인 동아시아전략 구도 속에 한·미동맹의 유지가 주요 고려요소가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동맹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맹국간에도 국익의 차원에서는 이해의 차이와 갈등이 발생한다. 그러나 동맹국간에 동맹의 유지에 상호이익을 전제로 하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한 정책대안의 차이

와 갈등이 그 이익을 심각히 침해한다면 이를 극복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관계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일상화가 필요하다.<sup>155</sup>

한·미동맹의 유지가 한·미의 국가이익의 유지에 높은 수준의 기여를 하고, 향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동맹의 유지가 동맹의 해체보다 한국과 미국의 이익에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한·미 양국은 동맹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국제정치·경제 및 국제안보 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의 변화 및 지속적인 요인은 어느 일방에 의한 조율되지 않은 관계 변화의 방향과 시도로 인해 때때로 불협화음과 갈등을 산출할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남북관계의 개선문제와 북한체제의 개혁과 개방을 통한 안정적인 변화문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통일문제 등이 매우 중요한 전략적 고려 요인이다. 한국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큰 전략적인 구도를 제시하고 세부 의제를 제안하며 설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한·미동맹관계의 지속이 그와 같은 큰 전략적 구도를 설정하고 세부 의제를 강구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설명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판단한다면, 그러한 틀 속에서 한·미관계가 설정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미의 상호 이해관계를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미국의 외교안보정책 결정과정에서 그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워싱턴의 think tanks와의 관계발전 또한 중요한 정책적 사안으로 고려될

---

<sup>155</sup> Celeste A. Wallander and Robert O. Keohane,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Alliance Theory," Paper No. 95-2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Harvard University, 1995), pp. 23~34.

필요가 있다. 정부 간의 공식적인 정책협력 체제를 저변에서 받쳐 줄 수 있도록 think tanks 간의 정책연계망을 조성·운영하는 것도 상호 이해를 튼튼히 구축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통일연구원, 외교안보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과 같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미국의 한반도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전문가집단과의 협의채널과 정책 토론헤를 일상화시키는 것은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한·미의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미 개인적 수준에서 수시 토론과 자문 등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정책에 우리의 입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개인적 수준의 협의채널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국가정보원. 미국 주요 싱크탱크 현황 . 서울: 국가정보원, 2004.
- 박영호.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전략 . 서울: 통일연구원, 1998.
- \_\_\_\_\_. 미국의 국내정치와 대북정책: 지속성과 변화 .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_\_\_\_\_. 미국의 한반도정책과 통일문제 .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Abelson, Donald E. *American Think-Tanks and their Role in US Foreign Policy*.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6.
- \_\_\_\_\_. *Do Think Tanks Matter? Assessing the Impact of Public Policy Institutes*. Montreal, Quebec: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02.
- Abrams, Elliott. *Security and Sacrifice: Isolation, Intervention, and American Foreign Policy*. Indianapolis, IN: Hudson Institute, 1995.
- Barber, Bernard. *Effective Social Science: Eight Cases in Economics, Political Science and Sociology*.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87.
- Blumenthal, Sidney. *The Rise of the Counter-Establishment: From Conservative Ideology to Political Power*. New York: Time Books, 1986.



- Bremmer, L. Paul, III and Edwin Meese, III. *Defending the American Homeland*. Washington, DC: Heritage Foundation, 2002.
- Butler, Stuart M. and Kim R. Holmes (eds.). *Issues 2000: The Candidates's Briefing Book*. Washington, D.C.: The Heritage Foundation, 2000.
- Collingridge, David and Colin Reeve. *Science Speaks to Power: The Role of Experts in Policy Making*.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6.
- CSIS Seoul Forum, Edmund Walsh School of Foreign Service of Georgetown University, *Strengthening the U.S.-ROK Alliance: A Blueprint for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CSIS, September 2003.
- CSIS. A Working Group Report. *A Blueprint for U.S. Policy toward a Unified Korea*. Washington, DC: CSIS, August 2002.
- \_\_\_\_\_. A Working Group Report. *Conventional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Washington, DC: CSIS, August 2002.
- \_\_\_\_\_. International Security Program Report. *Path to an Agreement: The U.S. - Republic of Korea Status of Forces Agreement Revision Process*. Washington, DC: CSIS, July 2001.
- Dickson, Paul. *Think-Tanks*. New York: Atheneum, 1970.
- Domhoff, G. William and Thomas R. Dye. *Power Elites and Organizations*. London: Sage, 1987.

- Dulles, Foster Rhea. *America's Rise to World Power: 1898-1954*. New York: Harper and Row, 1954.
- Hart, Benjamin ed. *The Third Generation: Young Conservative Leaders Look to the Future*. Washington, D.C.: Heritage Foundation, 1987.
- Janes, Robert W. *Scholars' Guide to Washington, D.C., for Pea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5.
- McGann, James G. *The Competition for Dollars, Scholars and Influence in the Public Policy Research Industry*.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5.
- McGann, James G. and R. Kent Weaver eds. *Think Tanks and Civil Societies: Catalysts for Ideas and Action*. Somerset, NJ: Transaction publishers, 2000.
- Mitchell, Derek J. ed. *Strategy and Sentiment: South Korean View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S.-ROK Alliance*. Washington, DC: CSIS, June 2004.
- Newsom, David D. *The Public Dimension of Foreign Polic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6.
- Nordlinger, Eric A. *Isolationism Reconfigured: American Foreign Policy for a New Centur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 O'Hanlon, Michael E. and Mike Mochizuki.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How to Deal with a Nuclear North Korea*. New York: McGraw-Hill, 2003.

- Perkins, Dexter. *The American Approach to Foreign Polic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2.
- Ricci, David M. *Transformation of American Politics: The New Washington and the Rise of Think Tank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3.
- Rich, Andrew. *Think Tanks, Public Policy, and the Politics of Expertis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Smith, Hedrick. *The Power Game: How Washington Works*. New York: Random House, 1988.
- Smith, James A. *The Idea Brokers: Thinkers and the Rise of the New Policy Elite*. New York: The Free Press, 1993.
- The Heritage Foundation. *Mandate for Leadership: Principles to Limit Government, Expand Freedom, and Strengthen America*. Washington, D.C.: The Heritage Foundation, 2005.
-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Managing Change on the Korean Peninsula*. Seoul: Seoul Press, 1998.
- Weiss, Carol H. *Organizations for Policy Analysis: Helping Government Think*.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1992.

## 2. 논문

- Abelson, Donald E. "Think Tanks and U.S. Foreign Policy: An Historical Perspective." *U.S. Foreign Policy Agenda*. Vol. 7, No. 3 (November 2002).
- Blumenthal, Dan. "Facing a Nuclear North Korea and the Future of U.S.-ROK Relations." Presentation at the Institute for Korean-American Studies Fall Symposium. October 11, 2005.
- Bowman, Karlyn. "Neoconservatives and the Court of Public Opinion in America." Irwin Stelzer (ed.). *The Neocon Reader*. New York: Grove Press, 2004.
- Caraley, Demetrios James. "Foreword from the Editor of *Political Science Quarterly*." Demetrios James Caraley, (ed.).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and U.S. Foreign Policy*. New York: The Academy of Political Science, 2002.
- Dye, Thomas R. "Oligarchic Tendencies in National Policy-Making: The Role of Private Policy-Planning Organizations." *The Journal of Politics*. Vol. 40 (1978).
- Eberstadt, Nicholas. "North Korea: Beyond Appeasement." Robert Kagan and William Kristol (eds). *Present Dangers: Crisis and Opportunity in American Foreign and Defense Policy*. San Francisco, CA: Encounter Books, 2000.

- Haass, Richard N. "Think Tanks and U.S. Foreign Policy: A Policy-Maker's Perspective." *The Role of Think Tanks in U.S. Foreign Policy*, U.S. *Foreign Policy Agenda*. Vol. 7, No. 3 (November 2002).
- Herzog, Arthur. "Report on a 'Think Factory'." *The New York Times Magazine*. November 10 (1963).
- Hunter, Robert E. "Think Tanks: Helping to Shape U.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U.S. Foreign Policy Agenda* (Electronic Journal of the Department of State). Vol. 5, No. 1 (March 2000).
- O'Hanlon, Michael E. "A 'Master Plan' to Deal With North Korea." *Brookings Policy Brief*. No. 114 (January 2003).
- O'Hanlon, Michael E. and Mike Mochizuki. "Toward a Grand Bargain with North Korea." *The Washington Quarterly*. Autumn 2003.
- Rich, Andrew. "War of Ideas: Why mainstream and liberal foundations and the think tanks they support are losing in the war of ideas in American politics."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Spring 2005).
- Robinson, William H.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Policy Consultant, Think Tank, and Information Factory." in Carol H. Weiss, (ed.). *Organizations for Policy Analysis: Helping Government Think*.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1992.

Wallander, Celeste A. and Robert O. Keohane.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Alliance Theory." Paper No. 95-2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Harvard University, 1995).

Weaver, R. Kent. "The Changing World of Think-Tanks."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Vol. 22, No. 3 (1989).

Whitaker, Brian. "US think tanks give lessons in foreign policy." *Guardian*. August 19, 2002.

### 3. 기타자료

Bernanke, Ben S. Chairman of the President's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Skills, Ownership, and Economic Security," Tuesday, July 12, 2005.

Blumenthal, Dan. "Facing a Nuclear North Korea," *Asian Outlook*. AEI Online. July 8, 2005.

Bowman, Karlyn H.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 Brief History." Unpublished mimeo (October 2003).

Butler, Stuart M. and Kim R. Holmes (eds.). "Introduction of Regional Strategies(Chapter 18)." *Issues 2000: The Candidates's Briefing Book*.

Department of Defense. *The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November 1998.

Drennan, William M. *A Comprehensive Resolution of the Korean War*. Special Report 106 USIP. May 2003.

Eberstadt, Nicholas. "North Korea's Weapons Quest." *The National Interest* (Summer 2005). AEI 홈페이지 게재일자 (June 16, 2005).

\_\_\_\_\_. "North Korea's Survival Game: Understanding The Recent Past, Thinking About The Future." Paper prepared for "Towards a Peaceful Resolution with North Korea: Creating a New International Engagement Framework." KIEP-KEI-AEI-Chosun Ilbo Conferenc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Washington, D.C. February 12-13, 2004.

Edward Neilan. "America's Supporting Role in Bringing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Executive Memorandum*. #673. May 18, 2000

\_\_\_\_\_. "With North Korea, Seek Quid Pro Quo Engagement." *Executive Memorandum* #668. April 14, 2000

Edwin J. Feulner. "Pressing Concerns on the Korean Peninsula Call for an Early Bush-Kim Summit." *Executive Memorandum* #712. January 23, 2001

Larry M. Wortzel. "Why North Korea Should Sign a Peace Treaty with the U.N., Not the U.S." *Executive Memorandum* #748. May 17, 2001.

House-Senate Conference Report for HR4328. "Sec. 582.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Omnibus Appropriations Bill (October 19, 1998).

McCombs, Phil. "Building a Heritage in the War of Ideas." *The Washington Post*, October 3, 1983. quoted in Donald E.

Abelson. *American Think-Tanks and their Role in US Foreign Policy*.

Morton I. Abramowitz and James T. Laney, Co-Chairs, Eric Heginbotham, Program Director. "Meeting the North Korean Nuclear Challenge." Report of an Independent Task Force. May 2003

\_\_\_\_\_. "Managing Change on the Korean Peninsula." Report of an Independent Task Force Sponsored by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June 1998

\_\_\_\_\_.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A Second Look." Report of an Independent Task Force Sponsored by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July 1999.

\_\_\_\_\_. "Testing North Korea: The Next Stage in U.S. and ROK Policy." Report of an Independent Task Force. September 2001.

Natsios, Andrew. *Politics of Famine in North Korea*, Special Report 51, USIP, August 2, 1999.

Smith, Hazel. *Overcoming Humanitarian Dilemmas in the DPRK (North Korea)*. Special Report 90. USIP, July 2002.

The Honorable Robert Zoellick, Deputy Secretary of State. "From Crisis to Commerce: CAFTA and Democracy in our Neighborhood." May 16, 2005.

The Platform Committee, 2004 Republic National Convention. *2004 Republic Party Platform: A Safer World and a More Hopeful America*. August 26, 2004.



Wortzel, Larry M. "Asia" in Stuart M. Butler and Kim R. Holmes (eds.). *Issues 2000: The Candidates's Briefing Book*.

A Speech by th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raq and the War on Terror." Wohlstetter Conference Center, AEI. November 21, 2005.

An Address by Senator John McCain. "Winning the War in Iraq." Wohlstetter Conference Center, AEI. November 10, 2005.

"President Discusses G8 Summit, Progress in Africa" Meyer Auditorium at Freer Gallery. Washington, D.C., June 30, 2005.

<CSIS Pacific Forum>.

Aidan Foster-Carter. "The Six-Party Failure." *Pacnet* #06A (February 11, 2005)

Alan D. Romberg. "Maintaining momentum with North Korea." *Pacnet* #39 (September 8, 2005)

\_\_\_\_\_. "The 4th Round of Six-Party Talks: Negotiating for Success." *Pacnet* #29 (July 21, 2005)

Brad Glosserman. "Living with a nuclear North Korea." *Pacnet* #29AB (July 25, 2005)

Brad Glosserman and Scott Snyder. "A target of opportunity for Northeast Asia." *Pacnet* #26 (June 30, 2005)

James A. Kelly. "Mounting Tensions in Northeast Asia: what are the deeper causes?" *Pacnet* #23B (June 10, 2005)

James Goodby and Donald Gross. “From Six Party Talks to a Regional Security Mechanism.” *Pacnet* #13 (March 24, 2005)

Ralph A. Cossa. “North Korea: Cost-Benefit Analysis.” *Pacnet* #23 (June 6, 2005)

\_\_\_\_\_. “Six-party statement of principles: one small step for man.” *Pacnet* #41 (September 19, 2005)

\_\_\_\_\_. “Six-Party Talks: round four continues (finally).” *Pacnet* #39A (September 12, 2005)

\_\_\_\_\_. “Pyongyang Raises the Stakes.” *Pacnet* #06 (February 10, 2005)

Scott Snyder, Ralph A. Cossa, and Brad Glosserman. “A Path to Progress for the Six-Party Talks.” *Pacnet* #33 (August 15, 2005).

# <부록 1>

미국 Think Tanks 연구원  
설문조사



Dear friends,

I am Young-Ho Park, a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This year, I am conducting a research on the role of think tanks in 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s a part of the research, I'd like to conduct a survey of Korea watchers in major US think tanks on some issues related to the research subject. This survey is conducted in anonymity via email and the results of the survey will be used only for study purposes. It would be greatly appreciated if you would take a few minutes to answer the questions and to return the answer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Attached is the questionnaire.

Yours sincerely,

Young-Ho Park, Ph.D.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Adjunct Fellow, Hudson Institute

SL. Gangbuk P. O. Box 22

Seoul, 142-600, Korea

Email: [youngho@kinu.or.kr](mailto:youngho@kinu.or.kr)

Phone: 82-2-901-2570

Mobile: 82-16-228-7795

## Questionnaire

Note: Please choose the number which you think is the closest to your thinking.

※ By “major think tanks” in the following questions, we mean those American think tanks which are listed under Policy Planning Staff in the State Department website (<http://www.state.gov/s/p/tt/>) and whose research work is not limited to any specific region.

1. Major think tanks, including yours, have a strong influence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            )

- ① Strongly agree    ② Agree    ③ Disagree  
④ Strongly disagree            ⑤ Don't know

2. Which in the following is the most interesting subject that draws your institution's attention? (            )

- ① North Korea in general  
② Security issues, including North Korea's WMD  
③ US-South Korea relations in general  
④ US-South Korea security alliance  
⑤ Korean unification  
⑥ (If none of the above, please specify:            )

3. Do you agree or disagree that major think tanks, including yours, have maintained continuing interests in the Korean peninsula problem. (            )

- ① Strongly agree    ② Agree    ③ Disagree
- ④ Strongly disagree            ⑤ Don't know

4. Major think tanks, including yours, have a special interest in taking the Korean peninsula issue as a research subject. (            )

- ① Strongly agree    ② Agree    ③ Disagree
- ④ Strongly disagree            ⑤ Don't know

5. If you answer “disagree” or “strongly disagree” in the above question, what is the main reason why they do not have an interest? (            )

- ① The Korean peninsula issue is not in the priority list as a research subject.
- ② They don't have fund that can be allotted to the Korean peninsula issue.
- ③ They simply don't have an interest.
- ④ They don't have (an) expert(s) on the Korean peninsula issue.
- ⑤ (If none of the above, please specify:    )

6. If research fund is provided, major think tanks, including yours, may conduct researches on the Korean peninsula issue and/or put the Korean peninsula issue on the priority list as a research subject. (            )

- ① Strongly agree    ② Agree    ③ Disagree  
④ Strongly disagree                      ⑤ Don't know

7. Do you agree or disagree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understands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major American think tanks, including yours, in handling its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            )

- ① Strongly agree    ② Agree    ③ Disagree  
④ Strongly disagree                      ⑤ Don't know

8. Do you agree or disagree that the US government, including White House, takes seriously policy recommend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issue made by bi-partisan Korea watchers (e.g. Independent Task Force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            )

- ① Strongly agree    ② Agree    ③ Disagree  
④ Strongly disagree                      ⑤ Don't know

9. Major think tanks, including yours, are an important window/source to get the American public to be informed of the Korean peninsula issue. (            )



- ① Strongly agree   ② Agree   ③ Disagree  
④ Strongly disagree   ⑤ Don't know

10. For the expansion of dialogue between Americans and Korean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merican think tank which focuses its research and related activities on the Korean unification problem. (            )

- ① Strongly agree   ② Agree   ③ Disagree  
④ Strongly disagree   ⑤ Don't know

## 조사 대상 Think Tanks 연구원

**Doug Bandow**, Senior Fellow, Cato Institute, dbandow@cato.org

**Karlyn Bowman**, Senior Fellow, AEI, KBowman@AEI.org

**Richard C. Bush III**, Senior Fellow and Director, Center for  
Northeast Asian Policy Studies, Brookings Institution,  
rbush@brookings.edu

**Kurt Campbell**, Senior Vice President, CSIS, kcampbell@csis.org

**Ted Galen Carpenter**, Director, Foreign Policy Studies, Cato  
Institute, tcarpenter@cato.org

**Robert Dujarric**, Senior Associate, National Institute for  
Public Policy, formerly at Hudson Institute,  
rdujarric@aol.com

**Nicholas Eberstadt**, Henry Wendt Scholar in Political  
Economy, AEI, eberstadt@aei.org

**L. Gordon Flake**, Executive Director, Mansfield Center for  
Pacific Affairs, lgflake@mansfieldfdn.org

**Kongdan Oh Hassig**, Research Staff Member,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kohassig@ida.org

**Eric Heginbotham**, Senior Fellow,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eheginbotham@cfr.org

**Balbina Y. Hwang**, Policy Analyst, Heritage Foundation,  
balbina.hwang@heritage.org

**Norman Levin**, RAND, Norman\_Levin@rand.org

**James G. McGann**, Senior Fellow,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Mcgann1429@aol.com

**Derek J. Mitchell**, Senior Fellow, CSIS, dmitchell@csis.org

**Marcus Noland**, Senior Fellow,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mnoland@iie.com

**Michael O'Hanlon**, Senior Fellow, Brookings Institution,  
mohanlon@brookings.edu

**James J. Przystup**, Senior Research Fellow, INSS, NDU,  
formerly at Heritage Foundation, przystupj@ndu.edu

**Alan D. Romberg**, Senior Associate, Stimson Center,  
aromberg@stimson.org

**Scott Snyder**, Asia Foundation, formerly at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Ssnnyder@asiafound-dc.org

**Joseph A.B. Winder**, President, Korea Economic Institute,  
jabw@keia.org

**Joel S. Wit**, Senior Fellow, CSIS, jwit@csis.org

**Kenneth R. Weinstein**, Chief Executive Officer and Board  
Member, Hudson Institute, ken@hudson.org

**Jon B. Wolfsthal**, Deputy Director, Non-Proliferation Project,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jwolfsthal@ceip.org



# <부록 2>

주요 Think Tanks 현황



# 1. 브루킹스연구소(The Brookings Institution)

단 체 명	The Brookings Institution
대 표	▶ Strobe Talbott
연 락 처	▶ 1775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36 ▶ Tel : 202-797-6000, Fax : 202-797-6004 ▶ http://www.brookings.edu
조 직	▶ 150여명의 연구원들이 경제, 외교, 정부, 도시정책의 4개분야별로 연구 활동 ▶ 예산 : 2,200만불
한 반 도 전 문 가	▶ Michael O'hanton, Charles Pritchard, Richard C. Bush III ▶ Brookings Center for Northeast Asian Policy Studies(CNAPS)
연 혁	▶ 1922-1924 Robert Somers Brookings이 Institute of Economics and a graduate school 설립 ▶ 1950년 Academic Prestige For Policy Research 조직 ▶ 1970년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첫 출판 ▶ 1982년 Brookings Review 시작 ▶ 1996년 Center on Urban and Metropolitan Policy 창설 ▶ 2005년 Global Economy and Development Center 창설
설 립 목 적	▶ 워싱턴의 가장 오래된 싱크탱크 조직으로서 독립적, 초당적 조직으로 현안 이슈에 대한 분석과 그 이슈에 대한 실용적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과학을 활용하여 미국 제도의 성과와 공공정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치, 경제, 안보 이해 및 정책 개발에 대한 연구, 분석, 공공교육 활동
프 로 그 램	▶ Economic Studies , Foreign Policy Studies, Governance Studies, Metropolitan Policy
정 책 센 터	▶ Global Economy and Development Center ▶ AEI-Brookings Joint Center for Regulatory Studies ▶ Brown Center on Education Policy ▶ Center for Northeast Asian Policy Studies ▶ Center for Children and Families ▶ Center on Social and Economic Dynamics ▶ Center o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 Saban Center for Middle East Policy ▶ Urban-Brookings Tax Policy Center
주 요 활 동	▶ 매년 최대 6명의 객원 연구원(한, 중, 일 학자)이 개별, 공동 연구로 CNAPS Working Paper Series 발간

## 2. 헤리티지재단(The Heritage Foundation)

단체명	The Heritage Foundation
대표	▶ Edwin Feulner
연락처	▶ 214 Massachusetts Ave NE Washington DC 20002-4999 ▶ Tel : 202-546-4400, Fax : 202-546-8328 ▶ <a href="http://www.heritage.org/">http://www.heritage.org/</a>
조직	▶ 연구조직은 DOMESTIC POLICY(5), EXTERNAL RELATIONS(6), GOVERNMENT RELATIONS(2)으로 구성
한반도전문가	▶ Edwin Feulner, Larry Wortzel, Peter Brookes, Dana Dillon, Balbina Hwang, John Tkacik, Paolo Pasicolan, Daryl Plunk
특징	▶ 자유민주주의 증진 및 아시아에서의 미국 안보 강화 ▶ 보수주의적 성향, 공화당의 외교정책과 유사한 보수주의 성향 나타냄 ▶ 강력한 국방정책 및 자유무역주의 주장
연혁	▶ 1973년 설립, 1983년 Asian Studies Center (ASC) 개설
설립목적	▶ 자유기업, 최소 정부, 개인적 자유주의, 전통적 미국적 가치, 강력한 안보주의에 기초한 보수적 공공정책을 생산하고 증진
직원수	▶ Senior Management 10명, Management 30여 명, Fellow 30여 명, Staff 100여 명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OARD OF TRUSTEES, · EXECUTIVE OFFICES</li> <li>▶ COMMUNICATIONS AND MARKETING, · DEVELOPMENT</li> <li>▶ DOMESTIC POLICY-DeVos Center for Religion and Civil Society, Thomas A. Roe Institute for Economic Policy Studies, Center for Data Analysis, Domestic Policy Studies, Center for Health Policy Studies</li> <li>▶ EXTERNAL RELATIONS- Coalition Relations/Resource Bank, Conservative Women's Network, The Insider, Lectures &amp; Seminars, Internship Program, Young Leaders Program</li> <li>▶ FINANCE AND OPERATIONS-Accounting, Administration, Business Support Services, Personnel, Publishing Services</li> <li>▶ GOVERNMENT RELATIONS-Congressional Witnesses, Issue Seminars and Specialized Briefings</li> <li>▶ THE KATHRYN AND SHELBY CULLOM DAVIS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Asian Studies Center, Center for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s (CITE), Washington Roundtable for the Asia-Pacific Press, Douglas and Sarah Allison Center for Foreign Policy Studies</li> <li>▶ INFORMATION TECHNOLOGY- Information Systems, Online Communications</li> <li>▶ ADDITIONAL PROJECTS-B. Kenneth Simon Center for American Studies, Center for Legal and Judicial Studies</li> </ul>



### 3. 미국평화연구소(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단체명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USIP)
대표	▶ Richard Solomon
연락처	▶ 1200 17th Street NW. Washington, DC 20036 ▶ Tel : 202-457-1700, Fax : 202-429-6063 ▶ <a href="http://www.usip.org/">http://www.usip.org/</a>
조직	▶ 교육, 장학사업, 정책연구 등의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 ▶ 48명의 상근 연구원으로 구성 ▶ 예산 : 22,099(천만불) 2005년 기준
한반도전문가	▶ Richard Solomon ▶ Korea Working Group 운영
설립목적	▶ 평화 증진과 국제 분쟁 억제를 위한 지식을 통해 국제 평화와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연혁	▶ 1978년 the National Academy of Peace and Conflict Resolution 설립 제안 ▶ 1984년 미국평화연구소법 의회 통과·설립, 1986년 연구소 출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 Congressional and Public Affairs ▶ Education, Fellowships ▶ Grants, Library & Links ▶ Information services ▶ Peace and Stability Operations ▶ Professional Training, Publications ▶ Research and StudiesRule of Law  ▶ Special Initiatives- Balkans, Iraq ▶ Muslim World, Philippine Facilitation Project ▶ Religion and Peacemaking ▶ Virtual Diplomacy ▶ Projects- Task Force on the United Nations
주요활동	Track II

#### 4.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단체명	Council on Foreign Relations(CFR)
대표	▶ Richard N. Haass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Harold Pratt House 58 East 68th Street New York, NY 10021</li> <li>▶ 1779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20036</li> <li>▶ Tel : 212-434-9400, Tel : 202-518-3400,</li> <li>▶ <a href="http://www.cfr.org/">http://www.cfr.org/</a></li> </ul>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Council's Think Tank, New York Meetings Program, Washington Program, National Program, Corporate Program, Term Member Program 구성</li> <li>▶ Independent Task Force 구성, Meeting the North Korean Nuclear Challenge(2003) 등 한반도문제 정책보고서 발표</li> </ul>
한반도전문가	▶ Morton I. Abramowitz, James T. Laney, Eric Heginbotham, Leslie Gelb, Jerome Cohen, Lee Feinstein, Eric Heginbotham
예산	
주요활동	▶ 주요현안에 대해서 Task Force 구성, 보고서 발표, Foreign Affairs 발간, Studies Program 구성
연혁	▶ 1921년 설립
설립목적	▶ 독립적, 초당적 조직으로서 정책결정자(정부관료), 저널리스트, 학자, 글로벌 리더들이 미국과 대외관계에 대한 이해와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외교정책 선택의 제안을 하기 위한 목적

## 5.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y & International Studies)

단체명	CSIS(Center for Strategy & International Studies)
대표	▶ Sam Nunn
연락처	▶ 1800 K St, NW, Suite 400, Washington DC, 20006 ▶ Tel : 202-887-0200, Fax : 202-775-3199 ▶ www.csis.org
조직	▶ 220명 이상의 직원
한반도전문가	▶ Kurt Campbell, Derek Mitchell
주요연구	▶ 방위 안보정책 연구, 글로벌 트렌드 및 지역연구 중심
프로그램	▶ Africa/Americas ▶ Biotechnology & Public policy initiative ▶ Brezinski Chair in National & Security Geostrategy ▶ Burke Chair in Strategy ▶ Director of Studies ▶ Eastern Europe Project ▶ Energy Program ▶ Europe Program ▶ Freeman Chair in China Studies ▶ Global Aging Initiative ▶ Global Strategy Institute ▶ Globalization 101 ▶ Hills Program on Governance ▶ Homeland Security Program ▶ Human Space Exploration Initiative ▶ International Action Commissions ▶ International Security Program ▶ Japan Chair ▶ Middle East Program ▶ Pacific Forum CSIS ▶ Russia and Eurasia Program ▶ Scholl Chair in International Business ▶ Simon Chair in Political Economy ▶ South Asia Program ▶ Technology and Public Policy ▶ Transnational Threats Project ▶ Turkey Project
연혁	▶ 1962년 설립
설립목적	▶ 전지구적 안보환경과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략적 통찰력과 실용적 정책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 6.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단 체 명	AEI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대 표	▶ Christopher DeMuth
연 락 처	▶ 1150 Seventeenth Street, N.W, Washington, DC 20036 ▶ Tel : 202-862-5800, Fax : 202-862-7177 ▶ www.aei.org
조 직	▶ Economic Policy Studies ▶ Social & Political Studies ▶ Foreign & Defense Policy Studies 로 크게 분류됨 ▶ 예산 \$24.41 million (2003년 기준)
한 반 도 전 문 가	▶ Nicholas Eberstadt, James R. Lilley
주 요 연구분야	▶ 경제 및 무역, 사회보장, 정부 세금 및 소비 등에 대한 정책, 미국 정치, 국제정치, 미국 안보 및 외교정책 ▶ 매년 수백여 편의 논문과 보고서, 수십여 권의 책, 정책간행물을 출간하여 미국 기업과 정부관료, 입법인, CEO, 언론인, 학자들에 배포함. ▶ 컨퍼런스, 세미나, 강의 등을 국영 TV를 통해 방영함.
연 혁	▶ 1943년 설립 ▶ 1954년 William J. Baroody 이 현재의 모습으로 변화시킴 ▶ 1960년대 경제학자 Milton Friedman, Paul McCracken, and Gottfried Haberler 등이 참가함 ▶ 1972년 Gottfried Haberler 이 첫 번째 상주 학자로 임명됨 ▶ 1980년대 소련의 해체에 대한 정책들을 제언함
설립목적	▶ '자유' 가치를 보존하고 강화하기 위해 제한 정부, 사적기업, 생생한 문화적 및 정치적 기구, 강력한 외교정책과 안보를 바탕으로 관련 연구 및 열린 토론과 출판을 목적으로 설립됨
주 출 판 물	▶ Economic Outlook, Financial Services Outlook, Health Policy Outlook, Environmental Policy Outlook, Federalist Outlook, National Security Outlook, Russian Outlook, European Outlook, and Asian Outlook.

## 7. 케이트연구소(CATO Institute)

단체명	CATO Institute
대표	▶ Edward H. Crane
연락처	▶ 1000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20001-5403 ▶ Tel : 202-842-0200, Fax : 202-842-3490 ▶ www.cato.org
조직	▶ 90여 명의 정직원, 60 여명의 자문학자, 16명의 인턴 ▶ Communications, Development, Government Relations, Administration & Support Staff 의 4부서로 크게 구분 ▶ \$14,923,000(2004년 기준)
한반도전문가	▶ Ted Galen Carpenter, Doug Bandow
연혁	▶ 1977년에 설립 ▶ 1979년 Cato Policy Report를 발간함 ▶ 1988년 상하이에서 처음으로 자유시장 포럼을 개최함 ▶ 1990년 모스크바에서 'Transition to Freedom: The New Soviet Challenge' 포럼을 개최함 ▶ 2002년 Center for Educational Freedom을 개관함
설립목적	▶ 제한 정부, 사적 자유, 자유 시장과 평화의 전통적 미국의 기본 원칙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하여 연구소는 정책의 쟁점과 정부의 적합한 역할에 대한 공공성 확대를 위하여 지식인들의 참여를 독려함
주요활동	▶ 공공정책의 전분야를 대상으로 한 서적, 모노그래프, 브리핑 페이지, 연구논문 등을 발행함. 정기적인 정책 포럼과 학술회의를 개최하며, 1년에 3회 Cato 저널을 발행함. 특히 런던, 모스크바, 상하이, 멕시코 등에서 주요 학술회의를 개최함. 분기별로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2개월에 한 번 뉴스레터를 발간함

## 8. 랜드연구소(RAND)

단 체 명	LAND Corporation
대 표	▶ James A. Thomson
연 락 처	▶ 1776 Main Street, Santa Monica, CA 90401-3208 ▶ Tel : 310-393-0411, Fax : 310-393-4818 ▶ www.land.org
조 직	▶ Rand arroyo center, Rand Education, Rand Europe, Rand Health, Rand Infrastructure Safety and Environment, Rand Institute for Civil Justice, Rand Labor and Population, R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Division, Rand Project Air Force 등의 연구부서로 구분 ▶ 예산 : 206,100,000 달러(2004년 research 기준)
한 반 도 가	▶ Bruce Bennett
연 혁	▶ 1948년 설립 'Research and Development'라는 의미에서 Rand를 명명함
설 립 목 적	▶ 공공 복지와 공공 안보를 위하여 연구와 분석을 통한 정책 및 정책결정을 향상시키기 위함
주 요 활 동	▶ 건강, 교육, 공공안보, 인구, 국방, 환경 등 각 분야의 연구 및 출판활동, 정책 제안, 교육사업 ▶ 미국 국방부 및 각군과 직접 계약을 통해 연구 활동

## 9. 후버연구소(Hoover Institution)

단체명	Hoover Institution
대표	▶ John Raisian
연락처	▶ Hoover Institution,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CA 94305-6010 ▶ Tel : 650-723-1754, Fax : 650-723-1687 ▶ www.hoover.org
조직	▶ 예산 : 32.4million 달러
한반도전문가	▶ William Perry, Thomas Henrickson, Charles Wolf
연혁	▶ 1919년 설립
설립목적	▶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부행위의 영향을 분석함 ▶ 긍정적 정책 형성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형성하고 보급시킴 ▶ 대중, 언론, 의회에 중요정책 이슈에 대한 이해와 대화를 증진시킴
주요활동	▶ 미국 교육기구와 학술연구, 국제 협력,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확산, 정부의 성장과 사회에 대한 책임성, 미국 개인주의와 사회적 가치, 경제 번영과 재정적 책임, 개인 자유와 법적 통제에 대한 연구 및 출판 활동

## 10. 허드슨연구소(Hudson Institute)

단체명	Hudson Institute
대표	▶ Herbert I. London
연락처	▶ 6th Floor 1015 15th Street, N.W. Washington, DC 20005 ▶ Tel : 202.974.2400, Fax : 202.974.2410 ▶ www.hudson.org
조직	▶ 정책연구분야: center for American common culture, center for Economic competitiveness, center for Employment policy, center for Middle East policy, center for Science in public policy, Center on Islam-Democracy and the future of the Muslim world, Center on National security studies, Economic policy, Project on campaign & Election Laws, The Bradley center for philanthropy & civic renewal
한반도전문가	▶ William Odom
연혁	▶ 1961년 설립 ▶ 1984년 인디애나폴리스로 본부를 이동함 ▶ 1987년 <Workforce 2000> 연구 실시 ▶ 1997년 <Workforce 2020> 발행함 ▶ 2004년 워싱턴으로 이동함
설립목적	▶ 세계 안보, 번영과 자유의 증진을 위한 연구와 분석을 위하여 설립. ▶ 안보, 국제관계, 경제, 문화, 과학, 기술, 법 분야에서 집합연구를 통한 전략적 변화의 관리에 이바지함.
주요활동	



## 11.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단체명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대표	▶ Jessica T. Mathews
연락처	▶ 437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22 USA ▶ Tel : 212-371-3200, Fax : 212-754-4073 ▶ www.carnegie.org
조직	▶ 이사회를 비롯하여 100명 이상의 Staff로 구성됨 ▶ 주요 프로그램 ▶ China Program ▶ Global Policy Program ▶ Russian and Eurasian Program ▶ The Group of Fifty (G-50) Dialogue
한반도 전문가	
연혁	▶ 1910년 카네기재단 설립
설립목적	▶ “to do real and permanent good in this world”라는 카네기의 정신에 따라 “지식과 이해의 진보 및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됨
주요활동	▶ 교육, 국제 평화 안보, 국제 개발, 미국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연구 및 정책 제안 ▶ 외교정책 전문저널 <i>Foreign Policy</i> 발행 ▶ Policy Briefs, Carnegie Paper Series 등 ▶ 카네기 모스크바 센터를 운영



# <부록 3>

한반도 문제 관련 전문가\*



이름	<b>James R. Lilley</b>
소속 및 직책	▶ Senior Fellow at AEI
전문분야	▶ China, Taiwan, Korea
연락처	▶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1150 Seventeenth Street, N.W. Washington, DC 20036 ▶ Tel : 202-862-5949, Fax : 202-862-7178 ▶ jlliley@aei.org
학력	▶ M.A., international relation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 B.A., Yale University
경력	▶ U.S. ambassador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89-1991) ▶ U.S.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1986-1989) ▶ Director, Institute for Global Chinese Affairs, University of Maryland (1996-1997) ▶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international affairs (1991-1993) ▶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ffairs (1985-1986) ▶ Director, American Institute in Taiwan (1982-1984) ▶ National intelligence officer for China (1975-1978)
주요저술	▶ China Hands: Nine Decades of Adventure, Espionage, and Diplomacy in Asia(with Jeffrey Lilley) (2004) ▶ "Stay the Course with North Korea" (2004) ▶ China's Military Faces the Future (coeditor with David Shambaugh) (2000)

이름	<b>Fred Thompson</b>
소속 및 직책	▶ Visiting Fellow at AEI
전문분야	▶ National security and intelligence (China, North Korea, and Russia)
연락처	▶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1150 Seventeenth Street, N.W. Washington, DC 20036 ▶ Fax : 202-862-7177 ▶ fthompson@aei.org
학력	▶ J.D., Vanderbilt University ▶ B.A., Memphis State University
경력	▶ United States senator from Tennessee (1994-2003) ▶ (chairman, Senate Committee on Governmental Affairs (1997-2001) ▶ Special counsel,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1980-1981) ▶ Minority counsel, Senate Select Committee on Presidential Campaign Activities (1973-1974) ▶ Assistant U.S. attorney (1969-1972) ▶ Practiced law (1967-1969) ▶ Feature film and television actor
주요저술	▶ "Successful America Requires Active Citizens" (2005) ▶ At That Point in Time: The Inside Story of the Senate Watergate Committee (2000)

\* 본 한반도 문제 관련 전문가 자료조사는 전봉근 박사(평화협력원)와 공동으로 수행하였음.

이름	<b>Nicholas Eberstadt</b>
소속 및 직책	▶ Henry Wendt Scholar in Political Economy at AEI
전문분야	▶ Economics: Economic development policy; Foreign and Defense; Poverty; Foreign aid; Korea; East Asia; Russia and other former Soviet republics; Social and Political; Demographics; Health and mortality in foreign locales
연락처	▶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1150 Seventeenth Street, N.W. Washington, DC 20036 ▶ Tel : 202-862-5825, Fax : 202-862-4877 ▶ eberstadt@aei.org
학력	▶ Ph.D., political economy and government, Harvard University ▶ M.P.A.,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Harvard University ▶ M.Sc., London School of Economics ▶ A.B., Harvard University
경력	▶ Visiting fellow, Harvard University Center for Population and Developmental Studies (1980-2002) ▶ Consultant, World Bank, State Department,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 Bureau of the Census
주요저술	▶ "North Korea's Weapons Quest" (2005) ▶ "Economic Implications of a "Bold Switchover" in DPRK Security Policy" (2005) ▶ A New International Engagement Framework for North Korea? (coeditor) (2004) ▶ Korea's Future and the Great Powers (with Richard J. Ellings) (2002) ▶ The End of North Korea (1999)

이름	<b>Kurt Campbell</b>
소속 및 직책	▶ Senior Vice President, Henry A. Kissinger Chair in National Security ▶ Director, International Security Program at CSIS
전문분야	▶ Politics and foreign policy problems of Asia, nuclear nonproliferation
연락처	▶ CSIS 1800 K Street, NW Suite 400 Washington, DC 20006 ▶ Tel : 202-775-3267, Fax : 202-775-3199 ▶ kcampbell@csis.org
학력	▶ Ph. D, Oxford University as a Marshall scholar ▶ B.A.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경력	▶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Asia and the Pacific in the Pentagon ▶ Director on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 Deputy special counselor to the president for NAFTA in the White House ▶ White House fellow at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주요저술	▶ Korean Changes, Asian Challenges and the U.S. Role (2001) ▶ US Alliances and Military Challenges in East Asia (2001)

이름	<b>Ralph A. Cossa</b>
소속 및 직책	▶ President of Pacific Forum CSIS in Honolulu
전문분야	▶ political-military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strategy
연락처	▶ 1001 Bishop Street Pauahi Tower, Suite 1150 Honolulu, HI 96813 ▶ Tel : 808-521-6745, Fax : 808-599-8690 ▶ pacforum@hawaii.rr.com
학력	▶ B.A. in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Syracuse University ▶ M.B.A. in management from Pepperdine University
경력	▶ Editor of the Pacific Forum's quarterly electronic journal, Comparative Connections ▶ Board member of the Council on U.S.-Korean Security Studies and the National Committee on U.S.-China Relations ▶ Founding member the steering committee of the Multinational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 Pacific (CSCAP) ▶ Executive director of the U.S. Committee of CSCAP ▶ Political-military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strategy specialist with over 25 years of experience in formulating, articulating, and implementing U.S. security policy in the Asia-Pacific and Near East-South Asia regions ▶ Colonel (retired), the U.S. Air Force
주요저술	▶ "Pyongyang Raises the Stakes" (February 10, 2005) ▶ "U.S.-ROK Relations: Silencing the Loose Cannons" (November 3, 2004) 등 ▶ Pacnet short on-line papers and Issues & Insights series

이름	<b>Robert J. Einhorn</b>
소속 및 직책	▶ Senior adviser in the International Security Program, CSIS
전문분야	▶ Proliferation and other security issues related to North Korea and the Korean Peninsula
연락처	▶ CSIS 1800 K Street, NW Suite 400 Washington, DC 20006 ▶ Tel : 202-775-3257 ▶ reinhorn@csis.org
학력	▶ B.A., magna cum laude, in government from Cornell University ▶ M.P.A. the Woodrow Wilson School of Public & International Affairs, Princeton University
경력	▶ Member of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nd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 (current) ▶ Assistant secretary for nonproliferation at the Department of State (1999-2001) ▶ Deputy assistant secretary for nonproliferation in the State Department's Political-Military Bureau (1992-1999) ▶ Senior adviser in the department's Policy Planning Staff (1986-1992) ▶ U.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ACDA) (1972-1984)
주요저술	▶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The Road Ahead (2004) ▶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2003)

이름	<b>William J. Taylor, Jr</b>
소속 및 직책	▶ Senior Adviser in the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CSIS ▶ Adjunct professor at Georgetown University
전문분야	▶ North/South Korea; military strategy/doctrine; political risk analysis; strategic forecasting; UN peace operations; leadership; public speaking; debate
연락처	▶ CSIS 1800 K Street, NW Suite 400 Washington, DC 20006 ▶ Tel : 202-775-3203, Fax : 202-833-3190 ▶ wtaylor@csis.org, wjtaylor44@aol.com
학력	▶ Ph.D. American University ▶ Postdoctoral studies at the American University of Beirut West Point
경력	▶ Professor, director of national security studies at West Point ▶ Visiting professor at the National War College ▶ Army colonel (retired) elected to the Infantry Officer Hall of Fame, Served in tank and rifle battalions in Germany, Korea, and Vietnam ▶ 김일성 면담
주요저술	▶ published 17 books including American National Security, 5th ed. (1998) ▶ published more than 500 articles in major newspapers internationally

이름	<b>Joel S. Wit</b>
소속 및 직책	▶ Senior Fellow in the International Security Program, CSIS
전문분야	▶ North Korea foreign policy; Korean Peninsula;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in Russia
연락처	▶ CSIS 1800 K Street, NW Suite 400 Washington, DC 20006 ▶ Tel : 202-887-0200 ▶ jwit@csis.org
학력	▶ M.A. Columbia University ▶ B.A. bucknell University
경력	▶ Coordinator for the 1994 U.S.-North Korea Agreed Framework, Senior adviser to Robert L. Gallucci, ambassador-at-large in charge of policy towards North Korea (1993-1995): served for 15 years in the Department of State in positions related to Northeast Asia, nuclear arms control, and weapons proliferation.
주요저술	▶ The Six Party Talks and Beyond: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and North Korea (2005) ▶ Going Critical: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with Daniel B. Poneman and Robert L. Galuucci) (2004) ▶ New Rules of Engagement with North Korea (2002), US-North Korean Relations (2001)



이 름	<b>Victor D. Cha</b>
소속 및 직책	▶ Director for Asian Affairs at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he White House ▶ Associate Professor, Georgetown Univ. Dept. of Government
전 문 분 야	▶ International Relations, East Asia
연 락 처	▶ Tel : 202-687-2978, Fax : 202-687-5858 ▶ chav@georgetown.edu
학 력	▶ Ph.D. Columbia University ▶ MA and BA, Oxford University
경 력	▶ D. S. Song-Korea Foundation Chair in Asian Studies and Government in the Edmund Walsh School of Foreign Service, Georgetown University ▶ John M. Olin National Security Fellow at Harvard University ▶ Hoover National Fellow and CISAC Fellow at Stanford University ▶ Independent consultant to the various branches of the US government, Booz Allen, SAIC, and CENTRA Technology
주 요 저 술	▶ Nuclear N.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2003) ▶ Engagement and Preventive Defense on the Korean Peninsula (2002) ▶ Engaging North Korea Credibility (2000) ▶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The United States-Korea-Japan Security Triangle (1999) (winner of the 2000 Chira Book Prize)

이 름	<b>Robert L. Gallucci</b>
소속 및 직책	▶ Dean of the Edmund A. Walsh School of Foreign Service, Georgetown University
전 문 분 야	▶ Proliferatio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s, U.S. foreign policy
연 락 처	▶ Tel : 202-687-1060 ▶ galluccr@georgetown.edu
학 력	▶ B.A.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 M.A., Ph.D., Brandeis University
경 력	▶ Ambassador at Large of the Department of State (1994-1998) ▶ (Head of the Deleg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mbassador at Larg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greed Framework 1994) ▶ Special Envoy to deal with the threat posed by the proliferation of ballistic missile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1998-2001) ▶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Political-Military Affairs (1992)
주 요 저 술	▶ Going Critical: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with Joel Wit and Daniel Poneman) (2004)

이 름	<b>L. Gordon Flake</b>
소속 및 직책	▶ Executive Director, The Mansfield Foundation Center for Pacific Affairs
전 문 분 야	▶ Korea, Japan, U.S. foreign policy
연 락 처	▶ 1401 New York Ave. NW Suite 740 Washington, DC 20005-2102 ▶ Tel : 202-347-1994, Fax : 202-347-3941 ▶ lgflake@mansfieldfdn.org
학 력	▶ B.A. (Korean with a minor in international relations) Brigham Young University ▶ M.A. David M. Kennedy Center for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BYU
경 력	▶ Senior Fellow and Associate Director of the Program on Conflict Resolution at The Atlantic Council of the United States ▶ Director for Research & Academic Affairs at the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 Lived in Korea for a number of years and speaks both fluent Korean
주 요 저 술	▶ Paved with Good Intentions: The NGO Experience in North Korea (coeditor with Scott Snyder, 2003) ▶ "Patterns In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1999) ▶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Under the 'Sunshine Policy'" (1999) ▶ "North Korea and Northeast Asian Regional Integration: Strategic Implications for Future Economic Relations" (1998)

이 름	<b>Marcus Noland</b>
소속 및 직책	▶ Senior Fellow,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전 문 분 야	▶ Asia, Korea, Trade Policy, Africa
연 락 처	▶ 1750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20036 ▶ Tel : 202-328-9000, mnoland@iie.com
학 력	▶ Ph.D. Johns Hopkins University ▶ B.A. Swarthmore College
경 력	▶ Senior Economist at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in 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 Research or teaching positions at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Tokyo University, Saitama University, etc. ▶ Fellowships sponsored by 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the Pohang Iron and Steel Corporation (POSCO), etc.
주 요 저 술	▶ Korea after Kim Jong-il (2004) ▶ Industrial Policy in an Era of Globalization: Lessons From Asia (coauthor, 2003) ▶ Avoiding the Apocalypse: The Future of the Two Koreas (2000) ▶ No More Bashing: Building a New Japan-United States Economic Relationship (2001) ▶ Economic Integ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1998)

이 름	<b>David I. Steinberg</b>
소속 및 직책	▶ Distinguished Professor and Director of Asian Studies, Georgetown University
전 문 분 야	▶ North and South Korea, Southeast Asia and US policy in Asia, Burma-Myanmar
연 락 처	▶ Tel : 202-687-0251, Fax : 202-687-7397 ▶ steinbdi@georgetown.edu
학 력	▶ Ph.D. Harvard University ▶ BA, Dartmouth College ▶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경 력	▶ Representative of the Asia Foundation in Korea ▶ President of the Mansfield Center for Pacific Affairs ▶ Former member of the Senior Foreign Service,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ID), Department of State
주 요 저 술	▶ Stone Mirror: Reflections on Contemporary Korea (2003) ▶ The Republic of Korea: Economic Transformation and Social Change (1989)

이 름	<b>Scott Snyder</b>
소속 및 직책	▶ Senior Associate in the Asia Foundation
전 문 분 야	▶ Politics and foreign policy of South and North Korea, U.S.-Korea relations, Northeast Asian security, U.S.-Asia relations.
연 락 처	▶ 1779 Massachusetts Avenue, NW, Suite 815 Washington, D.C. 20036 ▶ Tel : 202-588-9420, Fax : 202-588-9409 ▶ ssnyder@asiafound-dc.org
학 력	▶ M.A. Regional Studies East Asia Program at Harvard University ▶ B.A. Rice University
경 력	▶ Representative of Korea at Asia Foundation (2000-2004) ▶ Program Officer, Research and Studies Program at USIP (1994-1999)
주 요 저 술	▶ Paved with Good Intentions: The NGO Experience in North Korea (coeditor with L. Gordon Flake, 2003) ▶ Negotiating on the Edge: North Korean Negotiating Behavior (2001) ▶ Patterns of Negotiation in a Korean Cultural Context (1999) ▶ and several special reports published by USIP

이름	<b>David von Hippel</b>
소속 및 직책	▶ Senior Associate, Nautilus Institute
전문분야	▶ Energy and environmental issues in Asia, particularly Northeast Asia ▶ Energy and resource planning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연락처	▶ Tel : 541-687-9275, Fax : 541-687-9275 ▶ dvonhip@igc.org
학력	▶ Ph.D. and M.S. from the Energy and Resources Group at UC Berkeley ▶ M.A. (Biology) and B.S. degrees from the University of Oregon
경력	▶ Worked for a number of private and public agencies, including the World Bank, the United Nations, a domestic (US) gas utility, and Tellus Institute (Boston, MA)
주요저술	▶ Engaging North Korea on Energy Efficiency ▶ Global Dimensions of Energy Growth Projections in Northeast Asia (1996) ▶ Technological Alternatives to Reduce Acid Gas and Related Emissions from Energy-Sector Activities in Northeast Asia (1996)

이름	<b>David G. Brown</b>
소속 및 직책	▶ Associated Director in Asian Studies, SAIS,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전문분야	▶ U.S. Asian Policy, Taiwan, Korea
연락처	▶ (202) 663-5890, ▶ dgbrown@jhu.edu
학력	
경력	▶ Chair of the East Asian Area Studies course at the State Department's Foreign Service Institute (1998-2000) ▶ Senior Associate at the Asia Pacific Policy Center (1996-1998) ▶ Thirty-year diplomatic career focused on Asia
주요저술	

이름	<b>John Merrill</b>
소속 및 직책	▶ Foreign Affairs Analyst U.S. Departemet State
전문분야	▶ Korean Peninsula, U.S.-Korean Relations
연락처	▶ jmerrill05@comcast.net
학력	▶ M.A., Harvard University ▶ Ph.D., University of Delaware
경력	▶ Professorial lecturer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since 1991) ▶ Foreign Affairs Analyst with the Department of State (since 1987) ▶ Professorial lecturer at Lafayette College (1979-86)
주요저술	▶ Korea: The Peninsular Origins of the War (1989) ▶ Was it an Invasion or a War of National Liberation? The Korean War 1948-50 (1988)

이름	<b>Peter M. Beck</b>
소속 및 직책	▶ Director of North East Asia Project in the International Crisis Group(ICG)
전문분야	▶ North and South Koreans Affairs
연락처	▶ King's Garden Officetel #3, Suite 802, Naesu-dong 72, Jongro-gu ▶ Seoul, 110-070, Korea ▶ Tel : 822-730-2913, Fax : 822-7135-2913 ▶ pbeck@icg.org
학력	▶ Graduate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 B.A.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경력	▶ Member of the ROK's Ministry of Unification Policy Advisory Committee ▶ Lecturer, Georgetown University and American University (2002-04) ▶ Director of Research, Korea Economic Institute (1997-2004) ▶ Columnist for the Korean daily Donga Ilbo (2001-2004) ▶ Staff assistant at Korea's National Assembly 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Speaking fluent Korean
주요저술	▶ "Washington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From Muddling Multilateralism to Sanctions?" (2005) ▶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Rebuilding the Relationship (2004) ▶ Can the Nuclear Talks Lead to a Breakthrough? (2004)

이름	<b>Doug Bandow</b>
소속 및 직책	▶ Senior Fellow in the Cato Institute
전문분야	▶ foreign aid, religion, environmental protection, foreign policy, education, and the drug war
연락처	▶ 1000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20001-5403 ▶ Tel : 202-789-5200, Fax : 202-842-3490 ▶ dbandow@cato.org
학력	▶ B.S. in economics, Florida State University ▶ J.D., Stanford University
경력	▶ Former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at Reagan administration ▶ Former editor of the political magazine Inquiry ▶ 주한미군 철수론자
주요저술	▶ Korean Conundrum: America's Troubled Relationships with North and South Korea (2004) ▶ Tripwire: Korea and U.S. Foreign Policy in Changed World (1996)

이름	<b>Kent Calder</b>
소속 및 직책	▶ Director of Japan Studies and the Korea Initiative in SAIS at Johns Hopkins University.
전문분야	▶ East Asia: Japan; Korea; energy and security;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연락처	▶ Tel : 202-663-5889 ▶ kcalder@jhu.edu
학력	▶ Ph.D., Harvard University
경력	▶ 서울대 교환교수 역임 ▶ Special Advisor to the U.S. Ambassador to Japan (1977-2001) ▶ Japan Chair at the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1989-1993,1996) ▶ Lecturer on Government at Harvard University (1979-1983)
주요저술	

이름	<b>Larry M. Wortzel</b>
소속 및 직책	▶ Visiting Fellow at the Heritage Foundation
전문분야	▶ Foreign policy, East Asian politics and security, China, Taiwan, national security, military strategy, ballistic missile defense, intelligence
연락처	▶ 214 Massachusetts Ave NE Washington DC 20002-4999 ▶ Tel : 202-546-4400 ▶ staff@heritage.org
학력	▶ M.A. and Ph.D. the University of Hawaii ▶ B.A. Columbus College, Georgia
경력	▶ Vice president for foreign policy and defense studies at The Heritage Foundation (2002-2005.5); Distinguished 32-year career in the U.S. armed forces ▶ Assistant Army Attache at the U.S. Embassy in China (1998-1990); ▶ Member of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nd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 (current)
주요저술	▶ Dictionary of Contemporary Chinese Military History (1999) ▶ The Chinese Armed Forces in the 21st Century (1999); China's Military Modernization: International Implications (1988) ▶ Class in China: Stratification in a Classless Society (1987)

이름	<b>James E. Goodby</b>
소속 및 직책	▶ Nonresident Senior fellow in the Center for Northeast Asian Policy Studies, Foreign Policy Studies, Brookings Institution
전문분야	▶ strategic nuclear arms control, nuclear materials security and nuclear warhead dismantlement, Northeast Asia security issues
연락처	▶ 1775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36 ▶ Tel : 202-797-6000 ▶ communications@brookings.edu
학력	▶ A.B., Harvard University
경력	▶ Distinguished Service Professor Emeritus, Carnegie Mellon University ▶ Ambassador, principal negotiator, and special representative of President Clinton for Nuclear Security and Dismantlement ▶ Member, Secretary of State's policy planning staff
주요저술	▶ The Context of Korean Unification: The Case for a Multilateral Security Structure(1994) ▶ Global Security Conflicts-Armaments (2000)

이름	<b>Michael E. O'Hanlon</b>
소속 및 직책	▶ Senior fellow, Foreign Policy, Brookings Institution
전문분야	▶ Arms treaties, Asian security issues, homeland security, Asian security issues, North Korea policy, U.S. defense strategy and budget
연락처	▶ 1775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36 ▶ Tel : 202-797-6000 ▶ mohanlon@brookings.edu
학력	▶ Ph.D., M.A., M.S.E., A.B. Princeton University
경력	▶ Defense and Foreign Policy Analyst, National Security Division, Congressional Budget Office (1989-94) ▶ Peace Corps Volunteer, Congo
주요저술	▶ Defense Strategy for the Post-Saddam Era (2005) ▶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How to Deal with a Nuclear North Korea (2003) ▶ A "Master Plan" to Deal With North Korea (2003) ▶ Clinton's Strong Defense Legacy (2003)

이름	<b>Kongdan Oh</b>
소속 및 직책	▶ Research Staff Member,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1997- ) ▶ Nonresident Senior Fellow, Brookings Institution
전문분야	▶ Foreign Policy Studies ▶ North and South Korea, Japan, and China
연락처	▶ 1775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36 ▶ Tel : 202-797-6000 ▶ KoHassig@ida.org
학력	▶ M.A., Ph.D. in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M.A. i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경력	▶ Political Scientist, RAND (1987-1995) ▶ Academic Program Coordinator,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86-1987)
주요저술	▶ "North Korea's Nuclear Politics", Current History (September 2004) ▶ North Korea: The Hardest Nut (2003) ▶ 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Background and Issues (2000) ▶ North Korea Through the Looking Glass (2000)



이 름	<b>Charles L. Pritchard</b>
소속 및 직책	▶ Visiting Fellow, Foreign Policy Studies, Brookings Institution
전 문 분 야	▶ Japanese and Korean political/security issues,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U.S.-South Korea security relationship
연 락 처	▶ 1775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36 ▶ Tel : 202-797-6000 ▶ communications@brookings.edu
학 력	▶ M.A., University of Hawaii ▶ B.A., Mercer University
경 력	▶ former Ambassador and Special Envoy fo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nd U.S. Representative to the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State Department, ▶ former Deputy Chief Negotiator for Korean Peace Talks, State Department
주 요 저 술	▶ Strategy for 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the Future of Six-Party Talks: U.S. Policy for 2005(2004) ▶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Beyond(2004) ▶ North Korean Nuclear Brinkmanship: Testing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2003)

이 름	<b>Peter Brookes</b>
소속 및 직책	▶ Senior Fellow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and Director, Asian Studies Center at The Heritage Foundation
전 문 분 야	▶ Homeland Security, National Security, Asia and the Pacific
연 락 처	▶ 214 Massachusetts Ave NE Washington DC 20002-4999 ▶ Tel : 202-546-4400 ▶ staff@heritage.org
학 력	▶ U.S. Naval Academy (B.S. Engineering) ▶ M.A. in American Government at Johns Hopkins University
경 력	▶ served in the Bush administration as the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DASD) for Asian and Pacific Affairs in the Office of Defense Secretary Donald Rumsfeld ▶ served as an Intelligence Officer with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s Directorate of Operations ▶ former Commander in the Naval Reserves
주 요 저 술	▶ The Six Party Talks: Same Bed, Different Dreams (2003)

이름	<b>Balbina Y. Hwang</b>
소속 및 직책	▶ Policy Analyst, Asian Studies Center at The Heritage Foundation
전문분야	▶ Northeast Asia
연락처	▶ 214 Massachusetts Ave NE Washington DC 20002-4999 ▶ Tel : 202-546-4400 ▶ balbina.hwang@heritage.org
학력	▶ Ph.D. in Government, Georgetown University ▶ MIA(Masters of International Affairs), Columbia University ▶ MBA. University of Virginia, B.A. in philosophy and government, Smith College
경력	▶ Adjunct lecturer at Georgetown University and American University(current) ▶ worked for U.S. Department of Commerce and the Washington-based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주요저술	▶ Beyond the U.S.-South Korea Alliance: Reinvigorating Economic Relations(2005) ▶ Spotlight 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Correcting Misperceptions(2005) ▶ The Six-Party Talks: Keeping Diplomacy Alive (2004)

이름	<b>Eric Heginbotham</b>
소속 및 직책	▶ Senior Fellow, Asian Study,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전문분야	▶ Chinese, Japanese, and Korean politics and foreign policy, security affairs, military force structure and strategy
연락처	▶ Tel : 202-518-3476 ▶ ehginbotham@cfrr.org
학력	▶ Ph.D.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B.A., Swarthmore College
경력	▶ Captain, U.S. Army Reserves (Intelligence), through 2000
주요저술	▶ The Conventional Military Balance in Korea (1995)

이 름	<b>Bruce Cumings</b>
소속 및 직책	▶ Norman and Edna Freehling Professor of History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전 문 분 야	▶ Modern Korean History, East Asian Political Economy; International History American Foreign Relations
연 락 처	▶ The University of Chicago Department of History, 1126 East 59th Street, Mailbox 91 Chicago, IL 60637 ▶ Tel : 773-834-1818 ▶ rufus88@uchicago.edu
학 력	▶ Ph.D. Columbia University (1975)
경 력	▶ Professor, Columbia University
주 요 저 술	▶ Korea's Place in the Sun: A Modern History (1997) ▶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1981,1990) ▶ Wrong Again (about US policy on North Korea, 2003)

이 름	<b>Don Oberdorfer</b>
소속 및 직책	▶ Distinguished Journalist in Residence and Adjunct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Johns Hopkins University's Nitze SAIS
전 문 분 야	▶ East Asia, Japan, Korea, American foreign policy, U.S. Congress and foreign policy
연 락 처	▶ donober@comcast.net, ▶ www.donoberdorfer.com
학 력	▶ B.A.,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 Princeton University
경 력	▶ journalist for 38 years(including 25 years on the Washington Post) ▶ served as a U.S. Army lieutenant in Korea immediately following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in 1953 ▶ chaired the advisory committee of the Washington Center of the Asia Society (1986-89)
주 요 저 술	▶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1997, 2001)

이 름	<b>Edwin J. Feulner</b>
소속 및 직책	▶ President of the Heritage Foundation
전 문 분 야	▶ not specified
연 락 처	▶ 214 Massachusetts Ave NE Washington DC 20002-4999 ▶ Tel : 202-546-4400
학 력	▶ Ph.D. the University of Edinburgh ▶ MBA, Wharton School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 B.S., Georgetown University and Regis University
경 력	▶ Recipient of the Presidential Citizens Medal by President Reagan (1989) ▶ Treasurer and Trustee of The Mont Pelerin Society(current) ▶ Trustee and former Chairman of the Board of The Intercollegiate Studies Institute ▶ Publisher of Policy Review (1977-2001) ▶ Chairman of the U.S. Advisory Commission on Public Diplomacy (1982-91) ▶ Consultant for Domestic Policy to President Ronald Reagan
주 요 저 술	▶ Leadership for America (2000), Intellectual Pilgrims (1999), The March of Freedom (1998), Conservatives Stalk The House (1983), and Looking Back (1981) ▶ the editor of U.S. - Japan Mutual Security: The Next Twenty Years

이 름	<b>Charles L. Pritchard</b>
소속 및 직책	▶ Visiting Fellow, Foreign Policy Studies, Brookings Institution
전 문 분 야	▶ Japanese and Korean political/security issues, North Korea's Nuclear Issue U.S.-Japan and U.S.-South Korea security relationship
연 락 처	▶ 1775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36 ▶ Tel : 202-797-6000 ▶ communications@brookings.edu
학 력	▶ M.A., University of Hawaii ▶ B.A., Mercer University
경 력	▶ Ambassador and Social Envoy for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U.S. Representative to KEDO ▶ Deputy Chief Negotiator for Korean Peace Talks, State Department
주 요 저 술	▶ Strategy for 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the Future of Six-Party Talks: U.S Policy for 2005 (2004) ▶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2003) ▶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Beyond (2004)

이름	<b>Richard Perle</b>
소속 및 직책	▶ Resident Fellow, AEI
전문 분야	▶ Defense, Europe, Intelligence, National security
연락처	▶ 1150 Seventeenth Street, N.W. Washington, DC 20036 ▶ Tel : 301-656-0390, Fax : 202-862-4875 ▶ RPerle@aei.org
학력	▶ M.A., political science, Princeton University ▶ B.A.,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경력	▶ Member, Defense Policy Board, Department of Defense (1987-2004), Chairman (2001-2003) ▶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international security policy (1981-1987) ▶ U.S. Senate staff (1969-1980)
주요 저술	▶ An End to Evil Print Mail: How to Win the War on Terror (co-authored with David Frum (2003) ▶ Present Dangers: Crisis and Opportunity in American Foreign and Defense Policy (coauthor, 2000)

이름	<b>Jeane Kirkpatrick</b>
소속 및 직책	▶ Senior Fellow in AEI
전문 분야	▶ Defense, United Nations, National security
연락처	▶ 1150 Seventeenth Street, N.W. Washington, DC 20036 ▶ Tel : 202-862-5814, Fax : 202-862-7177 ▶ jkirkpatrick@aei.org
학력	▶ Ph.D., comparative politics, Columbia University ▶ M.A., political theory, Columbia University
경력	▶ Chair, U.S. Delegation to the U.N. Human Rights Commission (2003) ▶ Chair, Commission on Fail Safe and Risk Reduction, Department of Defense(1990-1992) ▶ Presidential Blue Ribbon Commission on Nuclear Products (1985-1987) ▶ Member, President Ronald Reagan's Cabinet (1981-1985)
주요 저술	▶ UN Human Rights Panel Needs Some Entry Standards(2003) ▶ The Withering Away of the Totalitarian State... and Other Surprises(2000)

이름	<b>Leslie Gelb</b>
소속 및 직책	▶ President Emeritus and Board Senior Fellow, CFR
전문분야	▶ General U.S. foreign policy, national security
연락처	▶ Tel : 212-434-9536 ▶ mstrauss@cfr.org
학력	▶ Pulitzer Prize in Explanatory Journalism (1985) ▶ APSA Woodrow Wilson Award for the best book on international relations (1981) Fellow,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경력	▶ Columnist, deputy editorial page editor, op-ed page editor, national security correspondent, diplomatic correspondent, The New York Times (1981-93) ▶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political-/military affairs (1977-79) ▶ director of policy planning and arms control for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Department of Defense (1967-69)
주요저술	▶ Toward a Theory of Alliances ▶ Our Own Worst Enemy: The Unmaking of American Foreign Policy

이름	<b>Jerome Cohen</b>
소속 및 직책	▶ Adjunct Senior Fellow for Asia Studies, CFR ▶ Professor at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전문분야	▶ Legal and business transactions in Asia, international relations of East Asia, international law
연락처	▶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Vanderbilt Hall 40 Washington Square South, Room 410 New York, NY 10012-1099 ▶ Tel : 212-998-6169 ▶ cohenj@juris.law.nyu.edu, jcohen@cfr.org
학력	▶ B.A. Yale University ▶ J.D. Yale University
경력	▶ Director of East Asian Legal Studies at Harvard Law School(1964-79) ▶ professor of law,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59-64)
주요저술	▶ "Investment Laws in Vietnam" (1990); "Contract Law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88); "People's China and International Law" (co-author, 1974); "Taiwan and American Policy: The Dilemma in U.S.-China Relations" (1971); "The Criminal Process in the P.R.C.: 1949-1968" (1968)

이 름	<b>Lee Feinstein</b>
소속 및 직책	▶ Senior Fellow, U.S. Foreign Policy and Executive Director, Task Force Program, CFR
전 문 분 야	▶ U.S. foreign policy&national security, WMD ▶ United Nations, peacekeeping
연 락 처	▶ Tel : 202-518-3412 ▶ lfeinstein@ CFR.org
학 력	▶ J.D., Georgetown University ▶ M.A., Graduate Center, CUNY
경 력	▶ Principal deputy director, Policy Planning Staff, Department of State; special assistant for Peacekeeping Policy,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senior adviser, the German Marshall Fund of the United States; visiting scholar,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주 요 저 술	▶ “A Duty to Prevent” Foreign Affairs (with Anne-Marie Slaughter, Jan/Feb 2004) “Enhancing U.S. Leadership at the United Nations,” report of an independent task force co-sponsored by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nd Freedom House (October 2002)

이 름	<b>Nina Hachigian</b>
소속 및 직책	▶ Senior Political Scientist, RAND
전 문 분 야	▶ Asia
연 락 처	▶ Contact RAND Office of External Communications, (703) 413-1100, x5117, or (310) 451-6913 ▶ oec@rand.org
학 력	▶ BS in biology from Yale ▶ JD from the Stanford University School of Law
경 력	▶ former Senior Fellow at the Pacific Council on International Policy ▶ served at the White House as an assistant to the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or, Jim Steinberg
주 요 저 술	▶ “China’s Stake in a Nonnuclear North Korea” (Christian Science Monitor, 2005.2.17) ▶ “Don’t Try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with Bruce Bennett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4.1.31) ▶ The Information Revolution in Asia (2003) ▶ Democracy and Islam in the New Constitution of Afghanistan (2003) ▶ The Internet and Power in One-Party East Asian States (2002)

이름	<b>Bruce Bennett</b>
소속 및 직책	▶ Senior Analyst and Professor of Policy Analysis, RAND
전문분야	▶ Military strategy, use of nuclear weapons, Korea
연락처	▶ Contact RAND Office of External Communications, (703) 413-1100, x5117, or (310) 451-6913 ▶ oec@rand.org
학력	▶ Ph.D. in Policy Analysis, RAND Graduat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Analysis ▶ B.S. in Economics,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경력	▶ researched asymmetric strategies for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QDR), and how to respond to asymmetric threats.
주요저술	▶ “Don’t Try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with Nina Hachigian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4.1.31) ▶ “N. Korea’s threat to S. Korea” (United Press International, 2003.3.7) ▶ Flexible Combat Modeling (2004) ▶ Metrics for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s Operational Goals (2003) ▶ New Challenges, New Tools for Defense Decisionmaking (2003) ▶ Emerging Threats, Force Structures, and the Role of Air Power in Korea(2000) ▶ Integrating Counterproliferation into Defense Planning (1997) ▶ How to assess the survivability of U.S. ICBMs (1980)

이름	<b>Gregory F. Treverton</b>
소속 및 직책	▶ Senior policy analyst and Associate Dean, Parade RAND Graduate School
전문분야	▶ Intelligence, US Foreign Relations, Intelligence, Europe, Japan, Korea
연락처	▶ gregt@rand.org
학력	▶ Ph.D., economics and politics, Harvard University ▶ M.P.P (Master’s in Public Policy), Harvard University ▶ A. B. summa cum laude, Princeton University
경력	▶ Direct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Policy Center, RAND ▶ Vice chair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Senior Fellow and Director of the Europe-America project at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in New York ▶ adjunct professor at Columbia’s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 Director of Studies at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n London
주요저술	▶ State and Local Intelligence in the War on Terrorism (coauthor, 2005) ▶ New Challenges for International Leadership: Positioning the United States for the 21st Century (coauthor, 2005) ▶ The Next Steps in Reshaping Intelligence (2005) ▶ Reshaping National Intelligence for an Age of Information (2001)



이름	<b>Somi Seong</b>
소속 및 직책	▶ Senior Economist, RAND Corporation
전문분야	▶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venture business and venture capital, government reform, antitrust and regulation, large scale public investment and military procurement, development strategy and industrial policy
연락처	▶ Contact RAND Office of External Communications, (703) 413-1100, x5117, or (310) 451-6913, ▶ oec@rand.org
학력	▶ Ph.D. and M.A. in Economics, Yale University ▶ B.A. in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경력	▶ former Head of the Corporate Affairs and Competition Policy Division of KDI ▶ Has worked with various Korean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and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주요저술	▶ Strategic Choi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Korea in the Era of a Rising China (coauthor, 2005 ) ▶ Ambivalent Allies? A Study of South Korean Attitudes Toward the U.S. (coauthor, 2004)

이름	<b>Joseph Cirincione</b>
소속 및 직책	▶ Senior Associate & Director for Non-Proliferation at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전문분야	▶ Non-proliferation, national security, U.S. foreign policy
연락처	▶ 1779 Massachusetts Ave. NW – Washington D.C. 20036-2103 ▶ Tel : 202-939-2297 ▶ joseph@ceip.org
학력	▶ B.A. Boston College ▶ M.S. Georgetown School of Foreign Service
경력	▶ U.S. House of Representatives on the professional staff of th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and the Committee on Government Operations.
주요저술	▶ North Korea and Iran: Test Cases for an Improved Nonproliferation Regime? (2003)

이름	<b>Jon Wolfsthal</b>
소속 및 직책	▶ Associate and Deputy Director for non-proliferation in CEIP
전문분야	▶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on-proliferation, North Korea
연락처	▶ 1779 Massachusetts Ave. NW – Washington D.C. 20036-2103 ▶ Tel : 202-939-2287 ▶ jwolfsthal@ceip.org
학력	▶ B.A., Emory University
경력	▶ Special policy adviser on non-proliferation at U.S. Department of Energy served as the U.S. Government's on-site monitor at North Korea's nuclear complex at Yongbyon
주요저술	▶ Track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 How Sincere if the US offer to Negotiate with Pyongyang? (2004)

이름	<b>Rose Gottemoeller</b>
소속 및 직책	▶ Senior Associate in CEIP
전문분야	▶ Nuclear Weapons
연락처	▶ 1779 Massachusetts Ave. NW – Washington D.C. 20036-2103 ▶ Tel : 202-939-2286 ▶ rgottemoeller@ceip.org
학력	▶ B.S., Georgetown University ▶ M.A.,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경력	▶ Director of the Office of Nonproliferation and National Security (1997-2000)
주요저술	▶ Beyond Arms Control: How to Deal With Nuclear Weapons (2003)

이름	<b>William J. Perry</b>
소속 및 직책	▶ Senior Fellow in Hoover Institution ▶ Michael and Barbara Berberian Professor at Stanford University
전문분야	▶ International security, arms control, U.S.-Korea relations
연락처	▶ Hoover Institution,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CA 94305-6010 ▶ Phone: 650-723-1754
학력	▶ B.S. and M.S. Stanford University ▶ Ph.D.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경력	▶ Secretary of defense(1994-1997); Deputy secretary of defense (1993-94); Professor (halftime) at Stanford University (1988-1993); chairman of Technology Strategies and Alliances (1985 - 93); Executive vice-president of Hambrecht & Quist (1981 - 85); Undersecretary of defense for research and engineering (1977-81) ▶ Member of the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and a fellow of th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주요저술	

이름	<b>Charles Wolf Jr.</b>
소속 및 직책	▶ Senior Research Fellow in Hoover Institution ▶ Senior economic adviser & corporate fellow in int'l economics at RAND
전문분야	▶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economic develop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issues and foreign and defense policy; China, Japan, Korea
연락처	▶ Hoover Institution,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CA 94305-6010 ▶ Phone: 650-723-1754
학력	▶ B.S. and Ph.D. in economics from Harvard University
경력	▶ Dean of the RAND Graduate School (1970-1997) ▶ Chairman of Rand's Economics Department (1967-1982) ▶ Member of the editorial boards of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Society(current)
주요저술	▶ North Korean Paradoxes (2005), Fault Lines in China's Economic Terrain (co-authored) (RAND 2003), Straddling Economics and Politics: Cross-Cutting Issues in Asia, the United States and the Global Economy (Rand, 2002), Markets or Governments: Choosing between Imperfect Alternatives, 2d ed. (MIT Press, 1993), Linking Economic Policy and Foreign Policy (Transaction, 1991)

이름	<b>Thomas H. Henriksen</b>
소속 및 직책	▶ Senior fellow at the Hoover Institution
전문분야	▶ U.S.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political and defense affairs, responses to “failed” and rogue states
연락처	▶ Hoover Institution,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CA 94305-6010 ▶ Phone: 650-723-1754
학력	▶ B.A. Virginia Military Institute (1962) ▶ M.A. (1966) and Ph.D.(1969),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력	▶ President’s Commission on White House Fellowships (1987-93) ▶ Member of the U.S. Army Science Board (1984 - 90) ▶ Professor of history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1969-1979)
주요저술	▶ Foreign Policy for America in the 21st Century: Alternative Perspectives (Hoover Institution Press, 2001); Using Power and Diplomacy to Deal with Rogue States (1999); North Korea after Kim Il Sung (1999); One Korea? Challenges and Prospects for Reunification (1994); The New World Order: War, Peace, and Military Preparedness (1992)

이름	<b>Richard H. Solomon</b>
소속 및 직책	▶ President, USIP
전문분야	▶ East Asia, China, Korea, Philippines, ASEAN, International Negotiations, U.S. Foreign Policy, Negotiation/Peace Talks/Mediation
연락처	▶ 1200 17th Street NW. Washington, DC 20036 ▶ Tel : 202-429-3835
학력	▶ Ph.D. in political science, with a specialization in Chinese politic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경력	▶ U.S. ambassador to the Philippines (1992-93) ▶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 and Pacific Affairs (1989-1992) ▶ Director of policy planning at the Department of State (1986-89) ▶ Senior staff member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1971-76) ▶ Head of the Political Science Department at the RAND Corporation (1976 - 1986) ▶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1966 - 1971)
주요저술	▶ Exiting Indochina: U.S. Leadership of the Cambodia Settlement & Normalization with Vietnam (2000); Chinese Negotiating Behavior: Pursuing Interests Through ‘Old Friends’ (1999)

이름	<b>William M. Drennan</b>
소속 및 직책	▶ Independent Consultant
전문분야	▶ Northeast Asia and Korean Peninsula, U.S.-South Korea Alliance, South Korean Politics, North Korea and Nuclear Weapons
연락처	
학력	▶ U.S. Air Force Academy ▶ M.A. Georgetown University
경력	▶ Deputy Director Research and Studies Program (1998-2004) ▶ Colonel(retired) in the United States Air Force (USAF) ▶ served with U.S. forces in Korea
주요저술	▶ Nuclear Weapons and North Korea: Who's Coercing Whom? ▶ North Korea's Non-Military Threats ▶ The U.S. Role in Korean Unification

이름	<b>Robert Dujarric</b>
소속 및 직책	▶ Visiting Scholar, Research Institute for Economy, Trade and Industry, RIETI ▶ Senior Associate, National Institute for Public Policy, VA
전문분야	▶ Northeast Asian Affairs, Security Issues, Korea and Japan ▶ European Affairs, US Security Policy
연락처	▶ rdujarric@aol.com
학력	▶ M.B.A. School of Management at Yale University ▶ B.A in Government at Harvard University
경력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itachi Fellow (2004) ▶ Senior Fellow, Hudson Institute (1993-2003) ▶ Associate, Mergers and Acquisitions, Goldman Sachs International (1989-93)
주요저술	▶ Korea: Security Pivot in Northeast Asia (1998) ▶ Korean Unification and After: The Challenge for U.S. Strategy (2000) ▶ America's Inadvertent Empire (2004)

이름	<b>Selig S. Harrison</b>
소속 및 직책	▶ Director of the Asia Program at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Policy ▶ Senior scholar of the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전문분야	▶ East Asia, South Asia, North Korea
연락처	▶ 1717 Massachusetts Avenue NW, Suite 801 Washington, DC 20036 ▶ Tel : 202-232-3317, Fax : 202-232-3440 ▶ sharrison@ciponline.org
학력	
경력	▶ Adjunct professor of Asian studie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current) ▶ Senior Associate of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74-96) ▶ Northeast Asia Bureau Chief of the Washington Post (1968-1972) ▶ South Asia Bureau Chief of the Washington Post (1962-1965) ▶ South Asia Correspondent of the Associated Press (1951-1954) ▶ first Americans to visit North Korea since the Korean War and to interview Kim Il Sung, and has visited North Korea nine times, most recently in April 2005
주요저술	▶ "Did North Korea Cheat?" (2005) ▶ Korean Endgame: A Strategy For Reunification and U.S. Disengagement (2002) ▶ Out of Afghanistan: The Inside Story of the Soviet Withdrawal (with Diego Cordovez) (1995), Dialogue with North Korea (1989)

이름	<b>Robert M. Hathaway</b>
소속 및 직책	▶ Director, Asia Program at WWIC
전문분야	▶ U.S.-North Korea Relations
연락처	▶ 1300 Pennsylvania Ave., N.W. Washington, D.C. 20004-3027 ▶ Tel : 202-691-4012 ▶ hathawar@wwic.si.edu
학력	▶ Ph.D., History (US Diplomatic history),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 M.A., American History, Wake Forest University
경력	▶ served twelve years on staff for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주요저술	▶ George W. Bush and Asia: A Midterm Assessment(2003)

이름	<b>Frank S. Jannuzi</b>
소속 및 직책	▶ Senior East Asia Specialist for the minority staff of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전문 분야	▶ East Asia, Korea, China, Peacekeeping
연락처	▶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S Senate, Washington, D.C. 20510-6225 ▶ Tel : 202-224-4651 ▶ Frank_Jannuzi@foreign.senate.gov
학력	▶ B.A. in History, Yale University ▶ Masters in Public Policy, Harvard University.
경력	▶ East Asia regional political-military analyst for the Bureau of Intelligence and Research(INR), Department of State (1989-97)
주요 저술	▶ "Managing China's 'Peaceful Rise': No Kayaking Please" (2005) ▶ "Missile Defense and East Asia: Downside and Risks" (2000)

이름	<b>William E. Odom</b>
소속 및 직책	▶ Senior Fellow, Hudson Institute and Visiting Professor, Georgetown University
전문 분야	▶ Security Issues, Intelligence, Asian economic and security issues, Military and Strategic Issues, Russian, Eastern European and Eurasian studies
연락처	▶ 1015 15th Street N.W. 6th Floor Washington, D.C. 20005 ▶ Tel : 202-974-2400, ▶ info@hudsondc.org
학력	▶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 ▶ Ph.D. Columbia University
경력	▶ Adjunct Professor, Yale University (1989-2003) ▶ Lt. General (retired, U.S. Army), Director of National Security Agency (1985-88) ▶ Assistant Chief of Staff for Intelligence (1981-1985) ▶ Military Assistant to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Zbigniew Brzezinski (1977-1981)
주요 저술	▶ The Collapse of the Soviet Military (1998) ▶ Fixing Intelligence: For a More Secure America (2003) ▶ America's Inadvertent Empire (co-authored with Robert Dujarric) (2004)

이 름	<b>C. Kenneth Quinones</b>
소속 및 직책	▶ Director, Korea Peninsula Program at American Research Center for Asia and the Pacific
전 문 분 야	▶ East Asian history and languages
연 락 처	▶ 499 South Capitol St. SW, Suite 500B Washington, D.C., 20003 ▶ Tel : 202-488-0735 ▶ ckquinones@msn.com
학 력	▶ Ph.D. in East Asian history and languages at Harvard University
경 력	▶ The Asia Foundation, Korea Representative, Seoul, Korea (1998-1999) ▶ State Department Representative to US Nuclear Spent Fuel Project in North Korea (1994-1996) ▶ Representative to US Delegation to Nuclear talks with North Korea (1993-1994) ▶ the first US diplomat to visit North Korea since the Korean War, the first to meet with Kim Il Sung, the first to cross the DMZ from North to South Korea
주 요 저 술	▶ North Korea's Nuclear Threat "Off the Record" Memories(2000) ▶ Beyond Negotiation Implementation of the Agreed Framework (2003)

이 름	<b>Leon V. Sigal</b>
소속 및 직책	▶ Director, Northeast Asia Cooperative Security Project, ▶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전 문 분 야	▶ Northeast Asia, Security Issues
연 락 처	▶ 810 Seventh Avenue, New York, NY 10019 ▶ Tel : 212-377-2700 ext. 456 ▶ sigal@ssrc.org
학 력	▶ Ph.D.
경 력	▶ Adjunct professor, Columbia University(1985-1989 and 1996-2000) ▶ Member of the editorial board of The New York Times (1989-1995) ▶ Guest scholar, Brookings Institution (1981-1984) ▶ Special Assistant to the Director of the Bureau of Politico-Military Affairs, Department of State (1980)
주 요 저 술	▶ "A Rogue by Any Other Name," Foreign Service Journal (October 2005) ▶ Hang Separately: Cooperative Securi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1985-1994 (2000) ▶ Disarming Strangers: Nuclear Diplomacy with North Korea (1998)



이름	<b>Joseph A.B. Winder</b>
소속 및 직책	▶ President of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KEI)
전문 분야	▶ Economic Issues, Korea
연락처	▶ Tel : 202-464-1982 ▶ jabw@keia.org
학력	▶ BA,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Michigan (1964) ▶ MBA, Business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Michigan (1965)
경력	▶ Vice President, KEI(1996-1999) ▶ Director, Office of Economic Analysis: Department of State (1993-1995), Minister-Counselor for Economic Affairs; American Embassy, Tokyo, Japan (1990-1993), Deputy Chief of Mission; American Embassy, Bangkok, Thailand (1986-1989), Deputy Director, Policy Planning Staff; Department of State (1985-1986), Director, Office of Indonesia, Malaysia, Brunei, and Singapore Affairs; Department of State (1983-1985), Counselor for Economic Affairs; American Embassy, Jakarta, Indonesia (1980-1983)
주요 저술	

이름	<b>Donald P. Gregg</b>
소속 및 직책	▶ President and Chairman of the Board of the Korea Society in N.Y
전문 분야	▶ Korea
연락처	▶ 950 Third Avenue, Eighth Floor, New York, New York 10022 ▶ 212-759-7525 ext. 310 ▶ gregg.ny@koreasociety.org
학력	▶ B.A., Williams College (1951)
경력	▶ Professorial lecturer at Georgetown University (1980-1989) ▶ National security advisor to Vice President George Bush (1982-1987) ▶ Central Intelligence Agency(CIA) (1951-1983) ▶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1979) ▶ United States Ambassador to Korea (1989-93)
주요 저술	▶ "Angst and Opportun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2003)

이름	<b>Charles K. Armstrong</b>
소속 및 직책	▶ Associate Professor of History and Director of the Center for Korean Research, Columbia University
전문분야	▶ Modern Korean history, International history of East Asia
연락처	▶ 930 International Aff 420 W 118 St Mail Code: 3333 ▶ Tel : 212-854-1721, ▶ cra10@columbia.edu
학력	▶ Yale University, London School of Economics, ▶ Ph.D., University of Chicago
경력	▶ Assistant Professor of History, Columbia University
주요저술	▶ Korea at the Center: Dynamics of Regionalism in Northeast Asia (2005) ▶ The North Korean Revolution, 1945-1950 (2003) ▶ Korean Society: Civil Society, Democracy, and the State (2002)

이름	<b>Gerrit W. Gong</b>
소속 및 직책	▶ Senior Associate, CSIS ▶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planning and assessment at Brigham Young University in Utah.
전문분야	▶ East Asian affairs; U.S.-East Asia policies; Chinese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the Korean peninsula; Southeast Asia
연락처	▶ Tel : 801-378-4919
학력	▶ Rhodes scholar with M.Phil. and Ph.D. in International Relations, Oxford University
경력	▶ Freeman Chair in China Studies and Director of Asia Studies Program at CSIS (1989-2001); Professorial Lecturer at the SAIS, Johns Hopkins University; Special Assistant to U.S. Ambassadors Winston Lord and James Lilly, U.S. Embassy in Beijing, China; Special Assistant to Michael H. Armacost, Undersecretary of State for Political Affairs; Fellow at CSIS (1981-85)
주요저술	▶ Memory and History in East and Southeast Asia (2001) ▶ Taiwan Strait Dilemmas (CSIS, 2000) ▶ Remembering and Forgetting: The Legacy of War and Peace in East Asia (1996), The Standard of "Civilization" in International Society (1984)

이름	<b>Paul F. Chamberlin</b>
소속 및 직책	▶ Adjunct Fellow,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President, Korea-U.S. Consulting, Inc.
전문 분야	▶ Korea, U.S.-Korea Relations
연락처	▶ Tel : 703-490-5580 ▶ PaulFChamberlin@cs.com
학력	
경력	▶ President, Korea-U.S. Consulting, Inc. ▶ Vice President, International Technology and Trade Associates, Inc.
주요 저술	▶ Korea 2010 (CSIS, 2001)

이름	<b>John J. Hamre</b>
소속 및 직책	▶ President and CEO, CSIS
전문 분야	▶ National security, international affairs
연락처	▶ CSIS, 1800 K Street, NW, Washington DC, 20006 ▶ Tel : 202-887-0200 ▶ jhamre@csis.org
학력	▶ Ph.D., with distinction, SAIS, Johns Hopkins University (1978) ▶ B.A., Augustana College in Sioux Falls, South Dakota (1972)
경력	▶ Deputy secretary of defense (1997-1999) ▶ Under secretary of defense (comptroller) (1993-1997) ▶ Professional staff member of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1984-1993) ▶ Deputy assistant director for national security and international affair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1978-1984)
주요 저술	▶ Iraq's Post-Conflict Reconstruction - A Field Review and Recommendations (Coauthor, 2003)

이름	<b>David C. Kang</b>
소속 및 직책	▶ Associate Professor of Government, and Adjunct Associate Professor and Research Director at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Business at the Tuck School of Business at Dartmouth
전문분야	▶ Korea, East Asia, International Economy
연락처	▶ David.C.Kang@Dartmouth.EDU
학력	▶ B.A. with honors, Stanford University ▶ Ph.D.,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경력	▶ Visiting Associate Professor, Stanford University (2005-2006) ▶ Member of the editorial boards of Political Science Quarterly, Asia Policy, IRI Review, Business and Politics and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Education
주요저술	▶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co-authored with Victor Cha) (2003) ▶ Crony Capitalism: Corruption and Development in South Korea and the Philippines (2002)

이름	<b>Mike M. Mochizuki</b>
소속 및 직책	▶ Associate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at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전문분야	▶ Japanese politics & foreign policy, U.S.-Japan relations, East Asian security
연락처	▶ 1957 E. Street N.W. Suite 503 Washington, D.C 20052 ▶ Tel : 202-994-7074 ▶ mochizuk@gwu.edu
학력	▶ Ph.D., Harvard University
경력	▶ co-director of the Center for Asia-Pacific Policy at RAND ▶ Senior Fellow at Brookings Institution
주요저술	▶ The Quest for Wealth and Security in East Asia (2000)

이 름	<b>Derek J. Mitchell</b>
소속 및 직책	▶ Senior Fellow, International Security Program, CSIS
전 문 분 야	▶ Political and security affairs of Northeast and Southeast Asia, U.S. relations with East Asia: political development (democratization), U.S. global strategy
연 락 처	▶ CSIS, 1800 K Street, NW, Washington DC, 20006 ▶ Tel : 202-775-3250 ▶ DMitchell@csis.org
학 력	▶ MA in Law and Diplomacy, 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 (1991) ▶ BA, University of Virginia (1986)
경 력	▶ Special Assistant for Asian and Pacific Affair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1997-2001), Senior Country Director for China, Taiwan, Mongolia, and Hong Kong (2000-1), Director for Regional Security Affairs (1998-2000), Country Director for Japan (1997-8), and Senior Country Director for the Philippines, Indonesia, Malaysia, Brunei, and Singapore (1998-9) ▶ Senior Program Officer for Asia and the former Soviet Union at the 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ffairs (1993-1997) ▶ Assistant to the senior foreign policy adviser to Senator Edward M. Kennedy (1986-1988)
주 요 저 술	▶ Strategy and Sentiment: South Korean View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S.-ROK Alliance (editor, 2004) ▶ East Asia Strategy Report, Department of Defense (principal author, 1998)

이 름	<b>James J. Prezystup</b>
소속 및 직책	▶ Senior Research Fellow, INSS, NDU
전 문 분 야	▶ Asian Security Issues, US-Japan and US-Korea Security Relations
연 락 처	▶ Tel : 202-685-2539 ▶ prezystupj@ndu.edu
학 력	▶ Ph.D. in Diplomatic History, University of Chicago ▶ MA in International Relations, University of Chicago ▶ BA, Summa cum Laude, University of Detroit
경 력	▶ Director of the Asian Studies Center, Heritage Foundation (1994-1998) ▶ Served on the staff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ubcommittee on Asian and Pacific Affairs; Policy Planning Staff, Department of State ▶ Director of Regional Security Strategie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Deputy Director on the Presidential Advisory Commission on US-Japan Relations (1983-84)
주 요 저 술	▶ U.S.-Japan Relations: Progress Toward a Mature Partnership (2005) ▶ "Trilateral Coordination on North Korea" (2004)

이름	<b>Morton I. Abramowitz</b>
소속 및 직책	▶ Senior Fellow at the Century Foundation
전문분야	▶ International Affairs, US Foreign Policy, Turkey, East Asia, Southeast Asia
연락처	▶ 1333 H Street, NW 10th Floor, Washington, D.C. 20005 ▶ Tel : 202-745-5468 ▶ abramowitz@tcf.org
학력	
경력	▶ President of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91-1997) ▶ Acting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risis Group ▶ US Ambassador to Turke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Intelligence and Research, Ambassador to the Mutual and Balanced Force Reduction Negotiations in Vienna, Ambassador to Thailand,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Inter-American,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Special Assistant to the Secretary of Defense, and Special Assistant to the Deputy Secretary of State, Political advisor to the Commander-in-Chief, Pacific
주요저술	▶ "America Needs a Coherent East Asia Policy" (with Stephen Bosworth) (2005), ▶ "Adjusting to the New Asia," (with Stephen Bosworth) (August 2003), ▶ The United States and Turkey: Allies in Need (2003), ▶ Testing North Korea: The Next Stage in U.S. and ROK Policy (with James T. Laney) (2001), Turkey's Transformation and American Policy (2001)

이름	<b>Alan D. Romberg</b>
소속 및 직책	▶ Senior Associate and Director of the East Asia Program, The Henry L. Stimson Center
전문분야	▶ U.S. policy issues in East Asia
연락처	▶ 1111 19th Street, NW, Suite 1200, Washington, DC 20036 ▶ Tel : 202-223-5956 ▶ aromberg@stimson.org, aromberg@earthlink.net
학력	
경력	▶ Special Assistant to the Secretary of the Navy (1999-2000) ▶ Senior Adviser and Director of the Washington Office of the U.S. Permanent Representative to the United Nations (1998-99) ▶ Principal Deputy Director, State Department's Policy Planning Staff (1994-98) ▶ Director of Research and Studies at the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1994) C.V. Starr Senior Fellow,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85-1994) ▶ Principal Deputy Assistant Secretary and Deputy Spokesman of the Department of State (1981-1985), Foreign Service Officer (1964-1985)
주요저술	▶ Rein In at the Brink of the Precipice: American Policy Toward Taiwan and U.S.-PRC Relations (2003)

이름	<b>Larry Niksch</b>
소속 및 직책	▶ Specialist in Asian Affairs with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U. S. Library of Congress
전문분야	▶ U.S. security policy in East Asia and the Western Pacific, internal politics and foreign policy developments within the region, North and South Korea
연락처	▶ Library of Congress, 101 Independence Ave., SE, Washington, DC 20540 ▶ Tel : 202-707-7680
학력	▶ Ph.D in History, Georgetown University ▶ Master of Science in Foreign Service, Georgetown University ▶ B.A. in History, Butler University
경력	▶ Senior Adviser on East Asia to The PRS (Political Risk Services Group) Adviser to the Asia Service of The WEFA Group ▶ Consultant to Lloyd, Thomas and Ball international business consulting service
주요저술	▶ “The Korean Peninsula Issues: The Widening Scope of Challenges to United States Interests” (2005) ▶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updated 2005) ▶ Korea: U.S.-Korean Relations – Issues for Congress (updated 2005)

이름	<b>Mark Manyin</b>
소속 및 직책	▶ Specialist in Asian Affairs with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U. S. Library of Congress
전문분야	▶ U.S. foreign economic policy toward East Asia, Korea, Japan, and Vietnam.
연락처	▶ Library of Congress, 101 Independence Ave., SE, Washington, DC 20540 ▶ Tel : 202-707-7653 ▶ mmanyin@crs.loc.gov
학력	▶ Ph.D. in Japanese trade policy at the 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
경력	▶ Has taught courses in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 Worked as a business consultant, and lived in Japan for three years
주요저술	▶ U.S. Assistance to North Korea (updated 2005) ▶ North Korea: A Chronology of Events, October 2002–December 2004 (2005) ▶ South Korea–U.S. Economic Relations: Cooperation, Friction, and Future Prospects (2004)

이름	<b>Charles Kartman</b>
소속 및 직책	
전문 분야	▶ Northeast Asia, Korea, Japan, North Korea's Nuclear Issue
연락처	
학력	▶ Graduate program at Georgetown University ▶ B.A., Knox College in Galesburg, Illinois
경력	▶ Executive Director,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KEDO) ▶ Special Envoy for the Korean Peace Talks, Principal Deputy Assistant Secretary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Deputy Chief of Mission at the U. S. Embassy in Seoul, Director for Korean Affairs, Deputy Director for Japanese Affairs, Consul General in Sapporo, Senior policy analyst for Asia in the Bureau of Politico-Military Affairs at the Department of State
주요 저술	

이름	<b>Richard C. Bush III</b>
소속 및 직책	▶ Director of the Center for Northeast Asian Policy Studies, Senior Fellow, Foreign Policy Studies, and The Michael H. Armacost Chair at Brookings Institution
전문 분야	▶ East Asia, Taiwan, U.S.-China relations
연락처	▶ 1775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20036-2103 ▶ Tel : 202-797-6232 ▶ rbush@brookings.edu
학력	▶ Ph.D., (1978), M.Phil (1975), M.A., (1973) Columbia University ▶ B.A., Lawrence University (1969)
경력	▶ Chairman of the Board and Managing Director of the American Institute in Taiwan (1997-2002); National Intelligence Officer for East Asia,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1995-1997); Director for Minority Liaison, U.S. Hous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1995); Director for Committee Liaison, U.S. House Committee of Foreign Affairs(1994); Deputy Program Director, Program Associate, China Council of The Asia Society
주요 저술	▶ Untying the Knot: Making Peace in the Taiwan Strait (2005) ▶ At Cross Purposes: U.S.-Taiwan Relations Since 1942 (2004) ▶ Brookings Northeast Asia Survey 2003-2004, co-editor (2004)



이름	<b>James T. Laney</b>
소속 및 직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resident emeritus of Emory University in Atlanta, Georgia</li> <li>▶ Co-chair of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Task Force on Korea.</li> </ul>
전문분야	▶ Korea, East Asia
연락처	
학력	▶ B.A., M.A., and a Ph.D. from Yale University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ited States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1993-1997)</li> <li>▶ Dean of the Candler School of Theology at Emory University</li> <li>▶ Had taught at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ssachusetts, and Vanderbilt University, The recipient of numerous honorary degrees from institutions in the United States, Korea, Japan, and the United Kingdom</li> </ul>
주요저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ow to Deal with North Korea," Foreign Affairs (March/April 2003)</li> <li>▶ "Talking is Better Than Fighting," The New York Times</li> </ul>

이름	<b>Chuck Downs</b>
소속 및 직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ormer senior official of the Pentagon and State Department</li> <li>▶ Independent Consultant</li> </ul>
전문분야	▶ North Korea, Security Issues, Foreign Affairs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1 South Carolina Ave., SE Washington, D.C. 20003</li> <li>▶ Tel : 202-841-1363</li> <li>▶ Chuck_downs@hotmail.com</li> </ul>
학력	▶ B.A. with honors in political science, Williams College (1972)
경력	▶ Senior Fellow at the National Institute for Public Policy, Senior Defense and Foreign Policy Advisor to the House Policy Committee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Deputy Director for Regional Affairs and Congressional Relations in the East Asia office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Assistant Director of the Office of Foreign Military Rights Affairs
주요저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ver the Line (AEI Press, 1999)</li> <li>▶ Crisis in the Taiwan Strait (co-editor with James R. Lilley) (NDU Press, 1997)</li> </ul>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총서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0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송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 중, 일, 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근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현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항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에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운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F/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 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 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 외 공저	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 연례 정세 보고서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 학술회의총서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번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 · 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1 (2003)	9,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2 (200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2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

## 협동연구총서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성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 I )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 I )	김광역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역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 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현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C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 I )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I)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전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근,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향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세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근,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Studies Series

- |         |   |                                  |
|---------|---|----------------------------------|
| 2004-01 |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 Kyo Duk Lee                      |
| 2004-02 |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 Hyeong Jung Park                 |
| 2004-03 |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 Jae Jean Suh                     |
| 2004-04 |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
| 2004-05 |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 Hyun Joon Chon                   |
| 2005-01 |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 Kang-Taeg Lim & Sung-Hoon Lim    |
| 2005-02 |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 Lim Soon Hee                     |
| 2005-03 |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 Young-Yoon Kim                   |
| 2005-04 |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 Jae Jean Suh                     |
| 2005-05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
| 2005-06 |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 Suk Lee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정세분석보고서」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므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므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 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근 무 처				
	직 위			
간 행 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			
연 락 처	전 화		FAX	
	전자메일			
	ID		PW	
전 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일반회원 ( ) 학생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정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절  
취  
선

- ※ 본 신청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FAX: 901-2547)
-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 (예금주: 통일연구원)
- ※ 본 연구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 신청서 뒷면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